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 김형기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 김형기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693-5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xvii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II. 국민의식조사	9
1. 조사개요	11
2. 조사결과분석	14
3. 소결	47
III. 대학생 설문조사	53
1. 조사개요	55
2. 조사결과분석	65
3. 소집단 공문조사	111
4. 소결	135
IV. 비교분석	139
1.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비교분석	141
2. 최근 여론조사 추이분석	155
V. 정책적 고려사항	177
1. 국민의식조사 주요내용	179
2.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내용	184



3. 통일정책 추진관련 고려사항	193
참고문헌	199
부 록	2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1

표목차

Contents

〈표 II-1〉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계	12
〈표 II-2〉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12
〈표 II-3〉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5
〈표 II-4〉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교차분석	15
〈표 II-5〉	통일 가능 시기	18
〈표 II-6〉	통일 가능 시기 교차분석	18
〈표 II-7〉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	19
〈표 II-8〉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 교차분석	20
〈표 II-9〉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21
〈표 II-10〉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교차분석	22
〈표 II-11〉	북한에 대한 인식	23
〈표 II-12〉	북한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24
〈표 II-13〉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	25
〈표 II-14〉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 교차분석	26
〈표 II-15〉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27
〈표 II-16〉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교차분석	28
〈표 II-17〉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29
〈표 II-18〉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교차분석	30
〈표 II-19〉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31
〈표 II-20〉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교차분석	32
〈표 II-21〉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34
〈표 II-22〉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교차분석	34
〈표 II-23〉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36
〈표 II-24〉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교차분석	36

〈표 II-25〉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38
〈표 II-26〉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교차분석	38
〈표 II-27〉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39
〈표 II-28〉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교차분석	39
〈표 II-29〉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41
〈표 II-30〉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42
〈표 II-31〉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43
〈표 II-32〉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교차분석	44
〈표 II-33〉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45
〈표 II-34〉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교차분석	45
〈표 III-1〉 대학생 설문조사 의사실험 연구 집단표집	59
〈표 III-2〉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66
〈표 III-3〉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교차분석	67
〈표 III-4〉 통일 가능 시기	68
〈표 III-5〉 통일 가능 시기 교차분석	69
〈표 III-6〉 북한의 안보위협	71
〈표 III-7〉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72
〈표 III-8〉 남한의 주식 저평가	73
〈표 III-9〉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74
〈표 III-10〉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교차분석	74
〈표 III-11〉 남북 간 교통단절	75
〈표 III-12〉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76
〈표 III-13〉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78
〈표 III-14〉 안보위협 해소	80



〈표 Ⅲ-15〉 안보위협 해소 교차분석	80
〈표 Ⅲ-16〉 국제적 위상 향상	82
〈표 Ⅲ-17〉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82
〈표 Ⅲ-18〉 경제적 기회의 확대	83
〈표 Ⅲ-19〉 남북 간 자유왕래	84
〈표 Ⅲ-20〉 민족 동질성 회복	86
〈표 Ⅲ-21〉 민족 동질성 회복 교차분석	87
〈표 Ⅲ-22〉 분단스트레스 해소	88
〈표 Ⅲ-23〉 북한에 대한 인식	89
〈표 Ⅲ-24〉 북한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90
〈표 Ⅲ-25〉 국민적 공감대 형성	92
〈표 Ⅲ-26〉 경제적 역량 강화	93
〈표 Ⅲ-27〉 제도적 준비	94
〈표 Ⅲ-28〉 국제적 환경조성	94
〈표 Ⅲ-29〉 통일 초기 조기안정비용 마련	95
〈표 Ⅲ-30〉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96
〈표 Ⅲ-31〉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교차분석	97
〈표 Ⅲ-32〉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98
〈표 Ⅲ-33〉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교차분석	98
〈표 Ⅲ-34〉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99
〈표 Ⅲ-35〉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교차분석	99
〈표 Ⅲ-36〉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100
〈표 Ⅲ-37〉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교차분석	101
〈표 Ⅲ-38〉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102

〈표 Ⅲ-39〉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104
〈표 Ⅲ-40〉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105
〈표 Ⅲ-41〉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07
〈표 Ⅲ-42〉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107
〈표 Ⅲ-43〉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08
〈표 Ⅲ-44〉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교차분석	109
〈표 Ⅲ-45〉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10
〈표 Ⅲ-46〉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교차분석	110
〈표 Ⅲ-47〉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13
〈표 Ⅲ-48〉 통일 가능 시기	114
〈표 Ⅲ-49〉 북한의 안보위협	115
〈표 Ⅲ-50〉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115
〈표 Ⅲ-51〉 남한의 주식 저평가	116
〈표 Ⅲ-52〉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117
〈표 Ⅲ-53〉 남북 간 교통단절	117
〈표 Ⅲ-54〉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118
〈표 Ⅲ-55〉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19
〈표 Ⅲ-56〉 안보위협 해소	120
〈표 Ⅲ-57〉 국제적 위상 향상	120
〈표 Ⅲ-58〉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121
〈표 Ⅲ-59〉 경제적 기회의 확대	122
〈표 Ⅲ-60〉 남북 간 자유왕래	122
〈표 Ⅲ-61〉 민족 동질성 회복	123
〈표 Ⅲ-62〉 분단스트레스 해소	124



〈표 Ⅲ-63〉 북한에 대한 인식	124
〈표 Ⅲ-64〉 국민적 공감대 형성	125
〈표 Ⅲ-65〉 경제적 역량 강화	126
〈표 Ⅲ-66〉 제도적 준비	126
〈표 Ⅲ-67〉 국제적 환경조성	127
〈표 Ⅲ-68〉 통일 초기 조기안정을 위한 비용 마련	128
〈표 Ⅲ-69〉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128
〈표 Ⅲ-70〉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129
〈표 Ⅲ-71〉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130
〈표 Ⅲ-72〉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130
〈표 Ⅲ-73〉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131
〈표 Ⅲ-74〉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132
〈표 Ⅲ-75〉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132
〈표 Ⅲ-76〉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33
〈표 Ⅲ-77〉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34
〈표 Ⅲ-78〉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34
〈표 Ⅳ-1〉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동일문항 추출	141
〈표 Ⅳ-2〉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42
〈표 Ⅳ-3〉 통일 가능 시기	143
〈표 Ⅳ-4〉 북한에 대한 인식	145
〈표 Ⅳ-5〉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146
〈표 Ⅳ-6〉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147
〈표 Ⅳ-7〉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148
〈표 Ⅳ-8〉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149

〈표 IV-9〉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150
〈표 IV-10〉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151
〈표 IV-11〉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53
〈표 IV-12〉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54
〈표 IV-13〉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55
〈표 IV-14〉 통일비용 및 통일인식 관련 주요 국민여론조사	158
〈표 IV-15〉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60
〈표 IV-16〉 통일 가능 시기	161
〈표 IV-17〉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163
〈표 IV-18〉 북한에 대한 인식	164
〈표 IV-19〉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	165
〈표 IV-20〉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166
〈표 IV-21〉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168
〈표 IV-22〉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69
〈표 IV-23〉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 요인분석	170
〈표 IV-24〉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171
〈표 IV-25〉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172
〈표 IV-26〉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73
〈표 IV-27〉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74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II-1〉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6
〈그림 II-2〉	연령별·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6
〈그림 II-3〉	통일 가능 시기	19
〈그림 II-4〉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	20
〈그림 II-5〉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22
〈그림 II-6〉	북한에 대한 인식	24
〈그림 II-7〉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	26
〈그림 II-8〉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 요인	28
〈그림 II-9〉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30
〈그림 II-10〉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33
〈그림 II-11〉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35
〈그림 II-12〉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37
〈그림 II-13〉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38
〈그림 II-14〉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40
〈그림 II-15〉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43
〈그림 II-16〉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44
〈그림 II-17〉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46
〈그림 III-1〉	대학생 설문조사 의사실험 연구설계	56
〈그림 III-2〉	국민의식조사(대학생)와 대학생 설문조사(통제집단) 간 평균-신뢰구간 비교	62
〈그림 III-3〉	실험집단-I과 실험집단-II의 평균-신뢰구간 비교	64
〈그림 III-4〉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67
〈그림 III-5〉	통일 가능 시기	70
〈그림 III-6〉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	70

〈그림 Ⅲ-7〉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77
〈그림 Ⅲ-8〉 통일기대 항목별 공감 정도	79
〈그림 Ⅲ-9〉 안보위협 해소	81
〈그림 Ⅲ-10〉 경제적 기회의 확대	84
〈그림 Ⅲ-11〉 민족 동질성 회복	87
〈그림 Ⅲ-12〉 북한에 대한 인식	90
〈그림 Ⅲ-13〉 남한의 항목별 통일준비 정도(통제집단)	91
〈그림 Ⅲ-14〉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102
〈그림 Ⅲ-15〉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과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103
〈그림 Ⅲ-16〉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에 대한 인식	106
〈그림 Ⅲ-17〉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07
〈그림 Ⅲ-18〉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09
〈그림 Ⅲ-19〉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11
〈그림 Ⅳ-1〉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43
〈그림 Ⅳ-2〉 통일 가능 시기	144
〈그림 Ⅳ-3〉 북한에 대한 인식	145
〈그림 Ⅳ-4〉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146
〈그림 Ⅳ-5〉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147
〈그림 Ⅳ-6〉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148
〈그림 Ⅳ-7〉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149
〈그림 Ⅳ-8〉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150
〈그림 Ⅳ-9〉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152
〈그림 Ⅳ-10〉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53
〈그림 Ⅳ-11〉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54



〈그림 IV-12〉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55
〈그림 IV-13〉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60
〈그림 IV-14〉 통일 가능 시기	162
〈그림 IV-15〉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163
〈그림 IV-16〉 북한에 대한 인식	164
〈그림 IV-17〉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	165
〈그림 IV-18〉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167
〈그림 IV-19〉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168
〈그림 IV-20〉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69
〈그림 IV-21〉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171
〈그림 IV-22〉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73
〈그림 IV-23〉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74
〈그림 V-1〉 연령별·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81



요약

I. 연구개요

본 연구는 2012년도에 통일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대 중점 과제의 하나인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외지 결집”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적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 시각에 의거한 다층적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통일재원과 통일외지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통일재원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는 통일재원 및 통일외지 관련 사안을 포함하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의 기대와 부담”이라는 제목 아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통일의 기대와 부담” 조사는 통일연구원의 수시과제로서 제한된 시간과 재원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여론의 파악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현상파악과 국민의 통일외지와 통일재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기획하였다. 우선 국민의식조사는 기존의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비용 중심적 접근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했다고 파악하고, 통일의 ‘혜택’ 또는 ‘기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최근 연구경향에 의하면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전통적인 소득과 지역의 균열(Cleavage)로부터 연령에 따른 세대 간 균열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특히 20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세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현상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해 각각 조건이 다른 세 개의 집단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문지를 통해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일반 대학생 집단, 통일 인지도가 높은 집단(장기자극 집단), 약식 공론조사 집단(단기자극 집단)이다.

끝으로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실험조사의 결과는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조사 집중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도출된 함의들은 국민들의 인식을 정책적 함의로 전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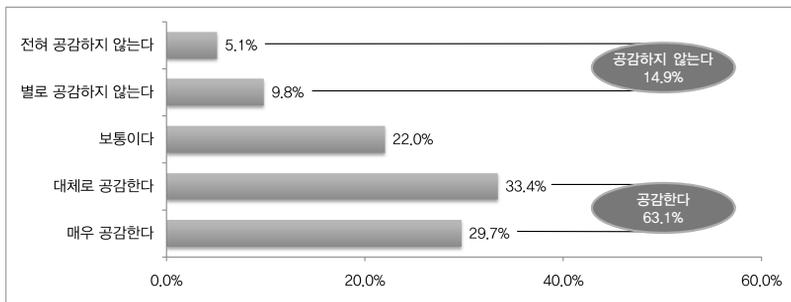
II. 국민의식조사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기존의 단순한 통일인식 중심의 여론조사 범주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통일의지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국민이 추구하는 통일재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최근 연구경향과 미디어의 보도는 통일부담(비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통일부담뿐만 아니라 통일기대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문항을 배치하였다. 통일기대는 통일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각종 유무형의 이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문지의 구성은 국민의 통일 인식에 대해 추적함과 동시에 통일기대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로 인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각종 통일 문항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구상과 방

향성 제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국민의식조사의 문항은 통상적인 전화여론조사의 제한에 따라 간결하고 평이한 용어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우선 기본적인 대북인식 파악을 위해 통일의 필요성(문1), 통일시기(문2), 대북인식(문5)을 설문하였다. 이들 문항은 기존의 통일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예외 없이 사용되는 문항이므로 선행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다.

조사대상은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로 추출된 1,000명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0\%$ 포인트이다.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2012년 7월 14~15일 시행하였다. 또한 표집오류 감소를 위해 비KT 전화를 포괄하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 문1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통일의지와 통일재원에 대한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 대다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문1)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 63.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22.0%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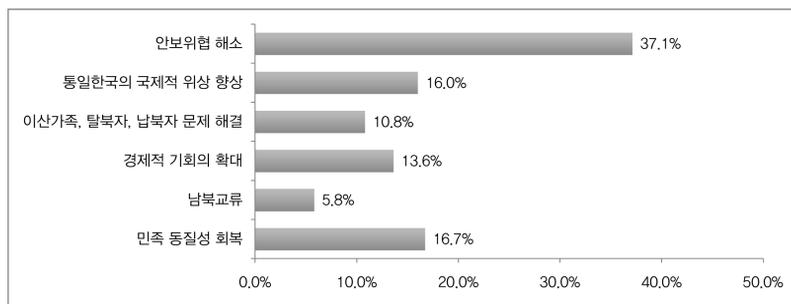
립'이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는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예외 없이 제시되어온 문항으로서 기본적인 통일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다. 본 문항에 대해 국민여론은 '40대 이상'과 '남성'일 경우 더 공감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년 이내'(29.2%), '10년 이내'(19.9%), '30년 이내'(12.9%)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설문은 기대 기간이 짧을수록 통일을 현실적인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 시기를 가까운 미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는 '30년 이내'와 '30년 이상'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0.9%).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중요한 평가문항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70%가 북한을 '협력대상' 또는 '관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3.1%가 '지원대상', 13.5%가 '적대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문항은 선행연구(통일연구원 공동체 통일방안 여론조사, 2011)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도발(2010.11.23.)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2011년 4월)에 22.5%, 2011년 7월 조사에서는 16.8%였다. 즉, 2012년 7월 현재,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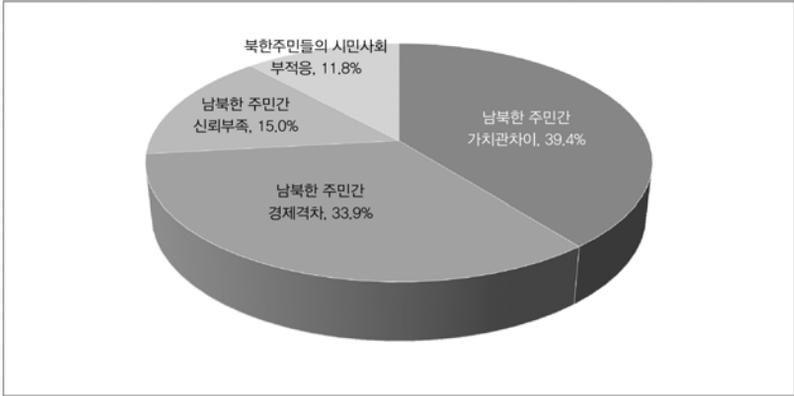
통일기대와 관련해서는 안보위협을 해소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다. 통일기대는 분단비용(문3)과 통일기대(문4)의 두 문항에 할당되었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을 시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통일의 이익 또는 기대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은 51.8%라는

절대 다수가 ‘안보위협’을 가장 큰 분단비용으로 선택하였다. ‘민족정체성’(15.1%)과 ‘분단이재민’(14.2%)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통일기대 문항에서는 분단비용과 우선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단비용에서 51.8%였던 ‘안보위협’은 37.1%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그러한 감소폭은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16%)과 ‘경제적 기회의 확대’(13.6%) 등의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항목별 답변의 변동은 통일기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기대상태를 반영한다. 즉, ‘안보위협’ 이외에도 다양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며, 각각의 통일기대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문4 ■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통일부담과 관련하여,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문7)을 조사하였다. 통합의 장애요인은 ‘남북한 주민 간 가치관의 차이’를 가장 큰 비중인 39.4%로 응답하였으며, ‘남북한 주민 간 경제격차’는 33.9%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격차에 대한 응답은 ‘40대’와 ‘자영업’ 집단에서 많았으며, ‘남북한 주민 간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는 ‘40대’와 ‘전문직/공무원’ 집단에서 많이 선택하였다.



Ⅱ 문7 Ⅱ 통일 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을 묻는 질문(문8)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국가’가 31.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동북아와 세계 평화 주도국가’와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국가’가 각각 23.8%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된 문항인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문9)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공개’가 39.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보공개’는 2011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한 항목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교과과정에 반영’(27.3%), ‘통일 가상체험관’(19.4%),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14%)가 제시되었다. 20-30대의 경우 ‘영화, 드라마의 소재’ 또는 ‘가상 체험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50대는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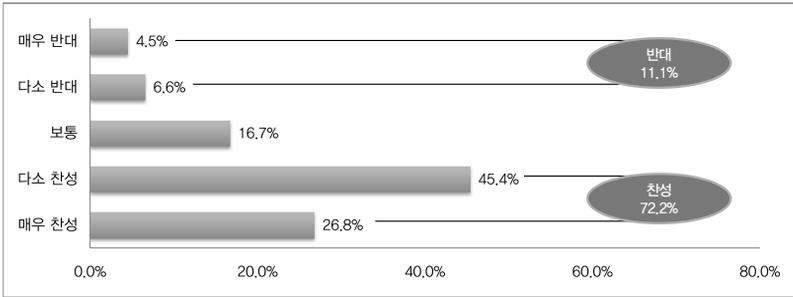
통일재원에 대한 문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대보다는 부담이 크며, 더 빨리 재원을 모아서 투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담과 통일기대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문10)라는 질문에 대해 66.4%가 ‘부담이 크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기대가 크다’의 방향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포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된 본 국민의식조사에서 다른 문항이 일정한 중심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민인식이 통일비용에 대해 극단적인 수준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통일기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통일비용의 지출을 통일 이전과 이후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문11)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일 이전’(34.5%), ‘중간’(19.8%), ‘통일 이후’(45.7%)로 응답하였다. 즉, 통일 이후에 더 많은 지출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그러나 통일의 긴 여정을 고려할 경우 통일 이전에 대한 지출 비중을 선택한 34.5%는 무시하지 못할 다수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남성’, ‘30대 이상’에서 많았다.

통일 과정과 방식 관련 문항에서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문12), 아니면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문13)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국민은 60.2%가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의 방식을 찬성하였으며,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방식은 45.1%가 찬성하였다. 즉, 국민은 우선 북한이 경제성장을 한 뒤 일정 수준이 되면 그 후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통일비용의 투자적 성격에 대한 인식(문14)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문15)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62.1%, 통일재원의 준비에 대해서는 72.2%가 동의하였다. ‘남성’, ‘40대’, ‘전문직/공무원’ 집단에서 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여야 하는가(문16)에 대한 답변은 ‘예산 일정부분 적립’이 51.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세금’, ‘국민 성금’, ‘해외 자본 유치’가 각각 15%, 13.2%, 12.6%로 비슷한 비중을 기록했다.



Ⅱ 문15 Ⅱ 통일자원 마련의 필요성

Ⅲ. 대학생 설문조사

최근 통일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세대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크며 그 중 20대가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정책적 고려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의 20대는 앞으로 통일이 현실적 과제로 당면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하며 통합을 담당하게 될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통일의식의 측정과 장기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대학생은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고학력자로서 20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재원을 담당할 핵심집단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설문조사의 설계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에 따라 가능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측정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통상적인 설문조사(Survey Research)와 실험조사(Experimental Research)를 결합하되,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따라 통제조건을 완화시

킨 의사실험 연구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의 형태로 구상하였다. 의사실험 연구설계는 실험대상의 무작위 할당, 외생변수의 통제 등 실험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험실 연구설계와 달리 실험설계가 갖고 있는 비교와 통제 등의 조건이 완화된 연구설계이다. 설계구조는 크게 3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1개 통제집단과 2개 실험집단으로 구분한 뒤, 3개의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2개의 실험집단은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자극을 받은 집단과 단기자극을 받은 집단으로 다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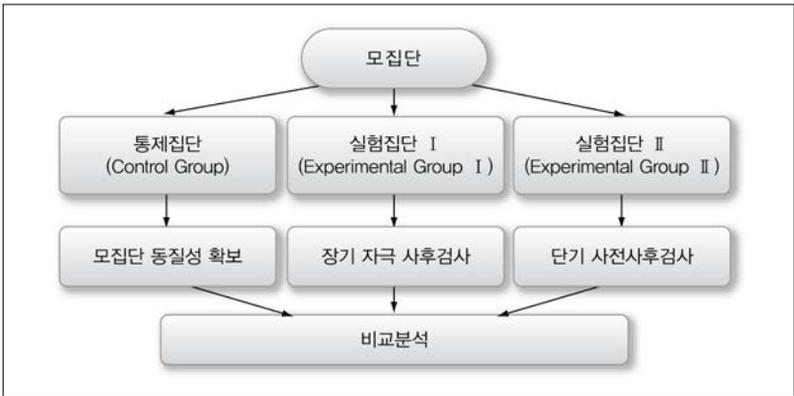
연구설계에 포함될 표본은 편의할당추출(Convenient Quota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가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시과제로서 매우 단기간에 한정된 주제에 대해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설계에 맞추어 크게 3가지 유형의 집단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3개의 집단은 통제집단, 실험집단 I, 실험집단 II로 구성된다.

우선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서 모집단인 대학생 전체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의 비교를 도모하였다. 그 대상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경제교육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는 JA Korea의 수강생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 I(Experimental Group I)은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에 장기자극을 받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수행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단을 선정한 뒤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사전사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실험집단 I을 일정기간 교양과목으로서 북한 및 통일관련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정치학 또는 북한학 전공자의 경우 대학생 전체와는 달리 편향된 응답자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집단 II(Experimental Group II)는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에

단기자극을 받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가장 가까운 실험설계이다. 또한 실험집단-Ⅱ에 사용된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에서 도출된 공론 조사(Deliberative Polling)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론조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조사기법으로 일반인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자극에 비교적 단기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충분한 자극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Ⅲ 그림 Ⅲ-1 Ⅲ 대학생 설문조사 의사실험연구 설계

대학생 설문조사의 설문지는 국민의식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본 구조로 유지하되 개별적인 통일의 기대와 부담 관련 문항에 나열된 주요 항목을 하위문항의 형태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인식’, ‘통일의 기대와 부담’, ‘통일재원’의 3분야에 대한 총 16개 문항으로 작성된 국민의식조사 항목은 14개의 상위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23개의 하위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대학생 설문조사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편의할당표집으로 진행되

었으며, 엄격한 실험통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실험연구이므로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 이전에 집단 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설문조사는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간 비교는 물론이고 선행 여론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지표문항으로 통일의식을 묻는 <문1>, <문2>, <문5>를 준비한 바 있으며, 기본적인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1>을 통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하였다.

우선 통제집단은 모집단인 대학생 전체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대학생 전체집단은 별도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앞장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에서 20대만을 추출하여 두 집단 간 평균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은 국민의식조사의 20대에 비해 남녀 평균이 다소 높으나 동일 집단으로 판명되었다.

북한 및 통일분야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실험집단 I은 일반 대학생으로 구성된 통제집단에 비해 비교적 큰 평균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I의 평균은 4.01로서 이 점수는 국민의식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가장 높은 공감 정도를 보인 '60대 이상' 집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비교적 장기간 집중적으로 통일정보에 노출시키고 토론 참여를 유도할 경우 20대의 부정적 통일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집단 II의 경우 1회의 단기자극에 의한 사전사후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 II의 사전조사 결과는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하였으나 단기자극 이후의 변화가 매우 미세한 수준에서만 관찰되었다. 실험집단 II의 사전사후 조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매우 짧은 준비기간과 부족한 인력 및 자원으로 인해 적절한 단기자극이 주어지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다만 실험집단 II에서 시도되었던 약식 공론조사는 자료제공, 토론, 전문가 질의응답 등 과정의 적절한 자극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조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IV.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 추진한 다층적 방식의 국민의식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적 양태가 표출되었다.

첫째, 일반 국민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립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표명한 국민의 비중이 63.1%에 달한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일반 국민에서 균질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대별, 성별로 뚜렷한 균열(Cleavage)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은 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응답의 백분율이다. 기준선은 전체 평균인 63%이다. <그림 V-1>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점은 여성과 남성의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이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현저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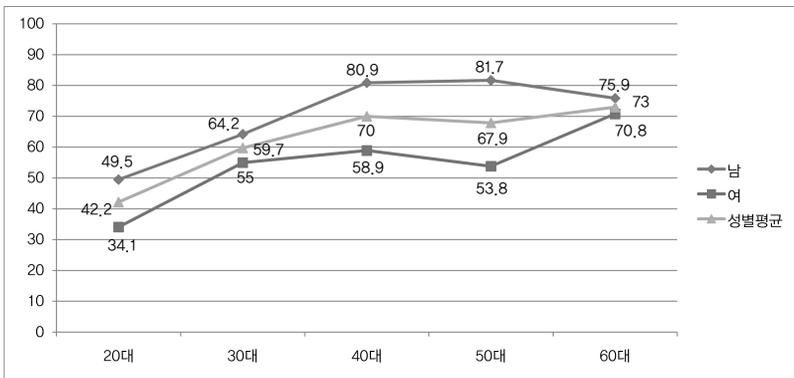


그림 V-1 | 연령별·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평균 63%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34.1%에 불과하다. 또한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남녀 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 30대의 격차는 9.2%포인트에 불과하지만 50대에 이르러서는 27.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낮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는 점은 중대한 정책적 관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0대와 30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20대와 30대 평균은 모두 전체 평균 63% 보다 밑에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42.2%에 불과하다. 한편 40대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의 증가 비율보다 현저하게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0대가 소위 486세대의 참여 지향적 특성을 다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현재의 20대가 학창 시절 겪었던 IMF 사태와 취업난 등 사회적 요인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기대는 ‘안보위협 해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문항 <문3>과 <문4>에서 국민은 가장 큰 분단비용을 ‘북한의 안보위협’으로 51.8%, 가장 큰 통일기대를 ‘안보위협 해소’로 37.1%로 응답했다. 다만 다른 통일기대에 대해 국민과 대학생 집단의 응답은 다소 편차를 보였다.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국제적 위상 향상’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등의 분단이재민 문제 해결’과

‘경제적 기회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특이점은 ‘분단스트레스 해소’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한 답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통일기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항인 <문8>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 상’을 보면,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국가’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한 반면,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세계 경제 주도국가’를 우선적 가치로 보았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남북 간 가치관 차이’(39.4%), ‘남북 간 경제격차’(33.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남북 간 경제격차’(43.4%)를 가장 큰 부담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남북 간 가치관 차이’(33%)가 그 뒤를 이었다.

요컨대,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해 국민의식조사에의 우선순위는 안보, 민족,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인데 반해, 대학생 설문조사의 경우 안보와 경제가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지적한 세대 간 균열과 일관된 결과이며, 정책대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젊은 층의 경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더욱 이끌리는 경향이 존재한다.

셋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62.1%가 ‘통일비용이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72.2%가 미래를 위한 통일재원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51.6%가 ‘예산적립’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시각은 국민적 과제로서 통일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통일재원은 통일이 되기 전 북한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60.2%). 그러나

다른 문항에서 남한의 통일준비는 대체로 미비한 상황이며, 그 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제도적 준비’는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통일재원의 준비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며, ‘통일초기 조기안정 비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홍보가 추진되었는데, 국민의 통일재원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그러한 홍보효과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적극적으로 통일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수단은 예산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신뢰는 그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식조사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국민이 느끼는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제도적 준비’에 대한 기대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홍보수단은 통일관련 ‘정보의 공개’(39.1%)와 ‘교과 과정에 반영’(27.3%)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세대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대학생 집단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34.7)로 다루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섯째, 대학생 설문조사 과정에서 실험집단 I로 구별된 북한 및 통일관련 과목 수강생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매우 인상적인 자극을 주었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8.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민의식조사의 세대 중 가장 공감대가 높은 ‘60대 이상 남자’의 75.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의식조사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던 성별 격차가 실험집단 I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대학생 집단은 앞으로 통일 시대의 주축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 여론을 주도하게 될 인적 자원이다.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그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나 공론조사의 확

대가 필요하다. 공문조사는 비교적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통일인식을 제고하는 유용한 기법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으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 수차례 제기되었던 20대와 여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고정된 설문문항을 이용한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호트 분석은 종단분석의 일종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동종집단이 나타내는 시간적 변모양태를 추적하는 조사방법이다. 코호트란 동일한 출발점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2000년 대학생 집단 표본 500명, 2005년 대학생 500명, 2010년 대학생 500명의 형태로 통일인식을 조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시간적 변모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조사연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책대상의 현상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코호트 분석이 요구된다.

V. 정책적 고려사항

총론적 차원에서 국민의식조사에서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통일준비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구체적인 통일정책과 그에 적절한 통일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만 현실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지 결집과 관련해서는 첫째, 정부와 전문가 집단 및 국민 간의 다양한 경로의 소통을 강화해서 통일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구성을 감안해서 통일 논의는 분단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과거 지향적 통일 보다는 통일의 혜택을 향유하는 미래지향적 통일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당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통일논의가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다양한 민간차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통일의 바람직한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통일비전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대별·성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바에 의하면 성별 차원으로는 여성이, 세대 차원으로는 젊은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덜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 및 젊은 세대에 대한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서 통일관련 영화 및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 및 제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안의 근거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대학생 실험집단-I에 대한 실험에서 통일관련 정보에 대한 노출이 태도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의식의 확산을 위해 통일이 한민족의 역사적 발전 경로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남한이 먼저 성취한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한민족의 우수한 능력의 귀결점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발전 관점에 의거한 통일의 필연성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첫째, 우리가 현재 유형·무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분단에서 비롯된 비용의 문제를 보다 직시함으로써 분단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통일재원 마련은 통일비용의 규모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바 통일비용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력 한도 내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당연하지만 부각되지 못한 사안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통일을 위한 비용의 지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경제발전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서도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또한 통일이 달성될 경우 파생될 다양한 유·무형의 통일편익은 한민족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한 고려사항과 함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외교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의지를 결집시켜 국제사회의 더욱 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일의지가 확고하다면 주변국가로부터 통일 한반도의 도래가 역사적 필연이라는 점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대로 통일정책 추진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체계적 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표준화된 설문지에 의거한 정기조사와 사안별 수시조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통일관련 의식조사에서 각 기관마다 상이

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시계열 분석을 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대로 통일의식 취약계층에 대한 코호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적 의식의 객관적 측정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산적인 통일정책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주기적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은 통일관련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통일관련 인식의 차이를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통일에 대한 정기·수시 국민의식조사, 통일의식 취약계층에 대한 코호트 조사, 전문가 집단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통일의지 결집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체계적 의식조사와 그 결과의 종합적 제시는 통일문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의지의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2012년 통일부 8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외지 결집”과 관련해서 객관적 시각에 기초한 다층적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수행과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부의 정책 담당부서인 통일정책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외지 결집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일부는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서 통일계정(통일항아리)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을 통해서 통일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통일재원의 용도를 통일 이후 남북간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 지원에 두고 있다. 또한 실질적 통일준비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국내적·국제적 민간출연 등을 통해서 통일외지를 결집 및 확산시키는 동시에 통일 비용 분담을 통해 미래 통일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북한지역 투자 재원 적립 등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¹

통일부는 또한 국민적 통일외지 결집과 관련하여 통일의 혜택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일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고위통일정책과정을 개설하여

¹ 통일부, 「2012년 업무계획(안)」 (2012년 통일부 업무보고, 2012.1.5), p. 8.

고위공무원, 군 장성, 기업 CEO, 언론사, 학계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부의 2012년도 업무 추진은 사실상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및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의 3대 정책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주안점인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인지 결집은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통일부의 실질적 통일준비 노력은 2010년 8월 15일에 발표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2010년 3월 26일에 발발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결이 아닌 공존”과 “정체가 아닌 발전” 및 “분단 상황관리를 넘어선 평화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²

사실상 통일재원 마련의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이 당위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으나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어느 정도 염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는 순간 주저하게 되는 분위기도 있다. 또한 통일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재원의 적립은 현재 세대가 부담하고 통일의 혜택은 미래 세대가 향유한다는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의 상태를 경험한 국민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통일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이 변화될 것임을 나타낸다. 즉,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1945년 해방 이전에 출생한

² 대통령 연설,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0년 8월 15일, <<http://www.president.go.kr/kr/common>>.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4%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전쟁 경험 세대는 그 보다 적은 7.6%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단과 전쟁의 문제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총체적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 이들이 이미 65세를 상회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재원 마련의 문제와 실질적 통일준비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20-50대까지의 세대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다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통일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실질적 통일 준비의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우선적 작업은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재원과 통일의지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통일재원의 문제는 남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는 통일재원 및 통일의지 관련 사안을 포함하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의 기대와 부담”이라는 제목 아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에 있어서 보다 적실성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다층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일반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래의 통일주역을 담당할 젊은 세대의 인식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별도

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의식조사의 결과를 전문가 그룹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집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합의들은 국민들의 인식을 정책적 함의로 전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첫째, 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총체적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의식조사에서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추출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설문문항은 대학생 설문조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폭 축약되고 평이한 용어로 재작성하였다. 표본수집은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층화추출 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0\%$ 포인트의 범위를 가진다.

둘째, 대학생 설문조사는 대학생의 의식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설문지를 현장에서 배포하고 대학생들이 답변지를 작성해서 현장에서 수거하는 필답조사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대학생 설문조사의 목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20대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집단), 실험집단 I(3개월간 북한 및 통일 관련 강의를 수강한 대학생 집단-장기자극 집단), 실험집단 II(1회 통일 특강을 수강한 대학생 집단-단기자극 집단)로 구별하여 이들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학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식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구분을 통해 의식변화의 방식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는 점 및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의 축약된 형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설문조사와 국민의식조사를 비교함으로써 국민들의 총체적 인식과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와 최근에 타 기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취합하는 작업은 각 회의 당 3명의 전문가를 초치하여 진행한 4차 회의 집중 토론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대학생 설문조사 및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질적 제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연구의 착수에서부터 설문 문항의 마련 및 실시과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일부의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추진하였으며 수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실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Ⅱ. 국민의식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설계

본 연구는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수행해 온 대북인식 또는 통일인식 중심의 조사를 넘어서 ‘통일의 기대와 부담’이라는 주제로 시행되는 매우 예외적인 국민의식조사이다. 특히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통일부담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던 바,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항을 통일에 대한 기대와 부담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조사는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구상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고려하였다.

국민의식조사의 문항은 대학생 설문조사의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다만 조사대상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는 점과 전화 여론조사라는 점으로 인해 문항의 크기는 대폭 축소되었으며, 보다 평이한 용어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대북인식 파악을 위해 <문1>, <문2>, <문5>는 대학생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기존의 통일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예외 없이 사용되는 문항이므로 선행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하위문항을 모두 축약하여 명목척도로 구성된 단순선택 문항으로 변형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구조적 체계로 <문3>, <문4>, <문6>에서 <문10>까지 7개의 문항이 작성되었다. 예를 들면, 총 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된 <문3>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하위문항의 주제를 선택지로 변형하여 5지형 1개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통일재원과 관련된 문항 역시 전화여론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평이한 문항으로 수정

하였다. <문11>의 경우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개방형 문항이었으나 국민의식조사에서는 5점 척도의 문항으로 변형하였다. 통일재원 문항은 <문11>에서 <문16>까지 배정되었다. 이는 대학생 설문조사의 하위문항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로 추출된 1,000명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0\%$ 포인트이다.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2012년 7월 14~15일 시행하였다. 또한 표집오류 감소를 위해 비KT 전화를 포괄하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 표 II-1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조사일시	2012년 07월 14일(토)~15일(일)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문항구조	총 16문항(통일의식 3문항, 통일의 기대와 부담 7문항, 통일재원 6문항)
유효표본	1,000 명
표집방법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추출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pm 3.10\%$
조사대행기관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나. 응답자 특성

● 표 II-2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비율
1. 성별	남성	49.5%
	여성	50.5%

구분		응답자 비율
2. 거주지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19.8% 28.9% 3.2% 9.8% 11.0% 10.5% 15.6% 1.1%
3.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8.6% 20.6% 22.1% 18.7% 20.0%
4.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15.1% 26.7% 58.2%
5. 가구소득별	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19.6% 17.0% 21.9% 16.4% 13.7% 11.4%
6. 직업별	농림어업 자영업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가정주부 학생 전문직/공무원 무직	1.9% 14.7% 21.3% 7.6% 24.3% 12.1% 9.4% 8.7%
7. 조부모 고향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5.1% 9.2% 5.8% 16.3% 23.6%

구분		응답자 비율
7. 조부모 고향별	대구/경북	17.4%
	부산/울산/경남	14.3%
	제주	1.4%
	이북	6.6%
	해외	0.3%
8. 계층별	저소득층	34.4%
	중산층	63.7%
	고소득층	1.8%
9. 정치적 성향별	보수적	33.8%
	중도	41.7%
	진보적	24.5%
합계		100.0%

2. 조사결과분석

가.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63.1%(‘매우 공감한다’ 29.7% + ‘대체로 공감한다’ 33.4%)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14.9%(‘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1% +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직업별, 계층별, 정치적 성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한다’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70.6%), 연령별로는 60세 이상(73.2%),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66.9%)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성별 여성(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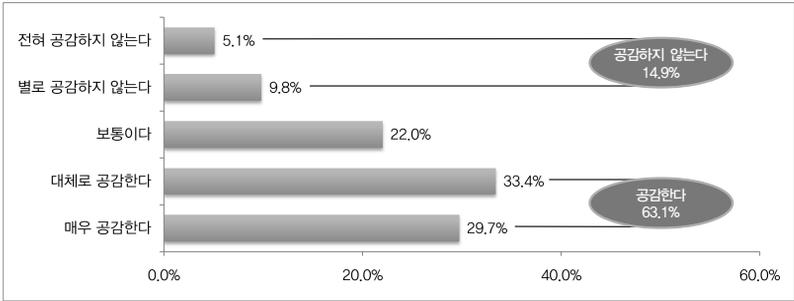
● 표 II-3 통일 필요성 공감 정도

문1.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1%	➔	14.9%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8%		
보통이다	22.0%		
대체로 공감한다	33.4%	➔	63.1%
매우 공감한다	29.7%		

연령별 50대(19.4%), 정치적 성향별 보수(20.8%)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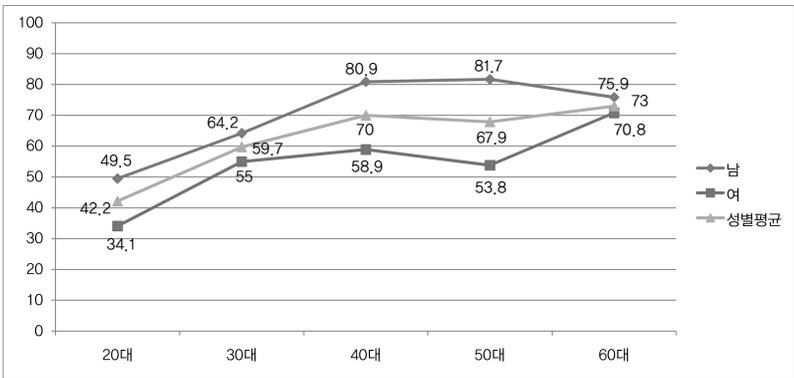
● 표 II-4 통일 필요성 공감 정도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공감 한다	매우 공감 한다	종합			유의도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공감 한다	
전 체	(987)	5.1	9.8	22.0	33.4	29.7	14.9	22.0	63.1	
성별	남성 (490)	5.6	6.2	17.6	35.6	34.9	11.8	17.6	70.6	$\chi^2 = 32.681$ $p = 0.000$
	여성 (497)	4.7	13.4	26.3	31.2	24.5	18.0	26.3	55.7	
연령별	20대 (181)	6.2	12.3	39.3	35.4	6.9	18.5	39.3	42.2	$\chi^2 = 119.126$ $p = 0.000$
	30대 (205)	7.4	9.6	23.3	38.4	21.4	17.0	23.3	59.7	
	40대 (218)	3.5	5.3	21.1	33.3	36.7	8.8	21.1	70.1	
	50대 (184)	3.9	15.5	12.6	32.4	35.7	19.4	12.6	68.1	
	60세 이상 (199)	4.8	7.4	14.5	27.6	45.6	12.2	14.5	73.2	
학력별	중졸 이하 (146)	6.4	9.4	19.7	22.4	42.1	15.8	19.7	64.5	$\chi^2 = 17.603$ $p = 0.024$
	고졸 (260)	3.7	9.2	21.5	35.9	29.8	12.8	21.5	65.7	
	대재 이상 (564)	5.6	10.1	22.7	35.3	26.3	15.7	22.7	61.6	
정치적 성향별	보수 (308)	7.5	13.4	18.6	30.2	30.4	20.8	18.6	60.6	$\chi^2 = 18.094$ $p = 0.021$
	중도 (383)	3.1	9.3	24.5	36.5	26.7	12.4	24.5	63.1	
	진보 (220)	4.7	7.7	20.7	34.4	32.5	12.4	20.7	66.9	



Ⅱ 그림 Ⅱ-1 Ⅱ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한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본 문항은 다년간 통일관련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이다. 최근 동 문항에 대한 경향은 과거 지역별, 소득별 태도변화가 점차 축소되고 성별, 세대별 태도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금번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5점 척도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와 ‘매우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만을 성별, 세대별로 <그림 Ⅱ-2>와 같이 표시하였다. 기준선은 전체 평균인 63%이다. 우선 선명히 드러나는 점은 여성과 남성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현저한 격차를 가



Ⅱ 그림 Ⅱ-2 Ⅱ 연령별·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63%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비율이 34.1%에 불과하다. 또한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남녀 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 30대의 격차는 9.2%포인트에 불과하지만 50대에 이르러서는 27.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는 점은 중대한 정책적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20대와 30대 평균은 모두 전체 평균 63% 보다 밑에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42.2%에 불과하다. 한편 40대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의 증가 비율보다 현저하게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0대가 소위 486세대의 참여 지향적 특성을 다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20대의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현재 20대가 학창시절 겪었던 IMF 사태와 취업난 등 사회적 요인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통일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문항을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년 이내’(29.2%), ‘10년 이내’(19.9%), ‘30년 이내’(12.9%)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5 통일 가능 시기

문2.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이내	19.9%
20년 이내	29.2%
30년 이내	12.9%
30년 이상	38.0%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직업별, 계층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20대(50.4%),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년 이내’라는 응답은 연령별 40대(34.6%) 및 50대(34.6%), 학력별 고졸(3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6 통일 가능 시기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유의도
전체		(896)	19.9	29.2	12.9	38.0	
연령별	20대	(176)	8.4	24.1	17.1	50.4	$\chi^2 = 65.397$ $p = 0.000$
	30대	(200)	14.2	28.4	13.5	44.0	
	40대	(202)	23.2	34.6	13.8	28.3	
	50대	(165)	19.8	34.6	10.5	35.1	
	60세 이상	(154)	36.0	23.0	9.0	31.9	
학력별	중졸 이하	(107)	37.0	22.7	6.8	33.6	$\chi^2 = 26.819$ $p = 0.000$
	고졸	(233)	18.7	30.2	12.7	38.4	
	대재 이상	(540)	16.5	29.9	14.2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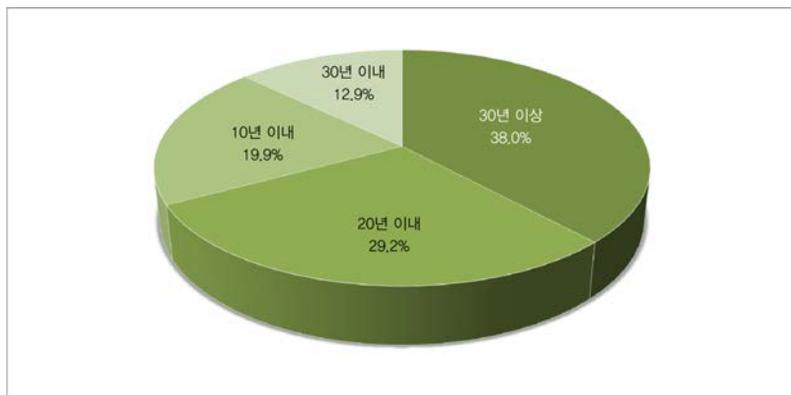


그림 II-3 통일 가능 시기

다.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안보 위협’(5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15.1%),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14.2%) ‘남북 간 교통단절’(10.0%), ‘남한의 주식 저평가’(8.9%)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정치적 성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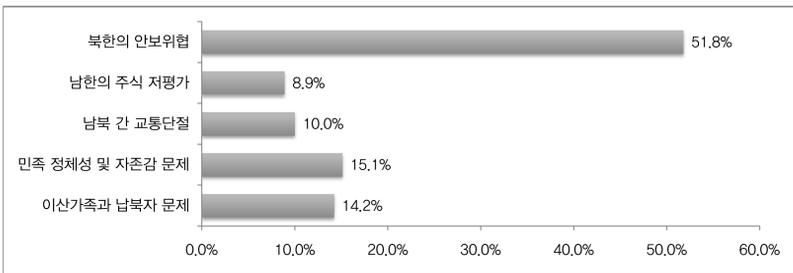
표 II-7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

문3.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항목입니다. 이 중 무엇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안보위협	51.8%
남한의 주식 저평가	8.9%
남북 간 교통단절	10.0%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15.1%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	14.2%

‘북한의 안보위협’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5.7%), 학력별로는 고졸(53.1%),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56.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라는 응답은 연령별 40대(17.6%),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적 성향별 진보(16.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8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북한의 안보 위협	남한의 주식 저평가	남북 간 교통 단절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	유의도	
전 체	(926)	51.8	8.9	10.0	15.1	14.2		
연령별	20대	(180)	49.4	11.1	9.7	13.8	15.9	$\chi^2 = 31.730$ $p = 0.011$
	30대	(200)	51.6	10.8	7.6	16.5	13.5	
	40대	(212)	53.6	10.2	11.2	17.6	7.4	
	50대	(172)	48.8	7.4	13.7	15.9	14.2	
	60세 이상	(162)	55.7	3.9	8.0	10.4	22.0	
학력별	중졸 이하	(113)	50.8	4.7	6.3	10.0	28.3	$\chi^2 = 29.259$ $p = 0.000$
	고졸	(242)	53.1	8.7	13.1	13.3	11.8	
	대재 이상	(552)	51.2	9.8	9.4	17.0	12.6	
정치적 성향별	보수	(290)	56.7	8.3	8.1	15.8	11.1	$\chi^2 = 22.057$ $p = 0.005$
	중도	(360)	53.8	9.0	8.6	14.1	14.4	
	진보	(212)	39.5	10.2	16.0	16.7	17.5	



|| 그림 II-4 || 분단비용 항목 공감 정도

라.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보위협 해소’(37.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16.7%)이 높았으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16.0%), ‘경제적 기회의 확대’(13.6%),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10.8%), ‘남북교류’(5.8%)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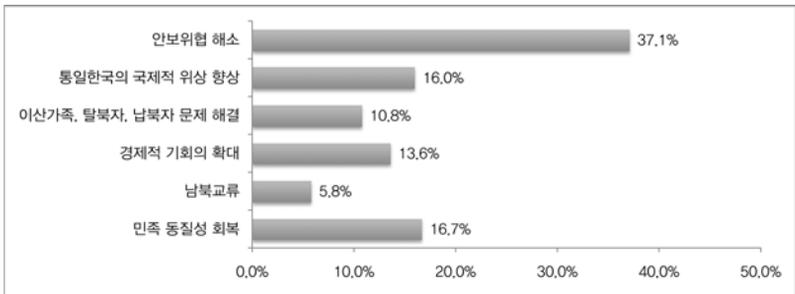
‘안보위협 해소’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41.9%),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0.6%),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9.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7.1%)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응답은 성별 남성(20.4%), 연령별 40대(18.6%),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별 자영업(24.2%)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9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문4. 다음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귀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위협 해소	37.1%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	16.0%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10.8%
경제적 기회의 확대	13.6%
남북교류	5.8%
민족 동질성 회복	16.7%

● 표 II-10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교차분석

구 분	사례수 (명)	안보 위협 해소	통일한 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경제적 기회의 확대	남북 교류	민족 동질성 회복	유의도	
전 체	(969)	37.1	16.0	10.8	13.6	5.8	16.7		
성별	남성	(480)	32.3	20.0	6.9	14.5	5.9	20.4	$\chi^2 = 37.784$ p=0.000
	여성	(489)	41.9	12.0	14.6	12.7	5.7	13.0	
연령별	20대	(180)	34.8	10.4	15.2	21.5	2.7	15.4	$\chi^2 = 48.760$ p=0.000
	30대	(202)	39.0	15.5	8.7	17.8	4.5	14.6	
	40대	(219)	38.5	19.1	5.6	12.4	5.9	18.6	
	50대	(181)	32.2	19.3	14.4	8.9	7.0	18.2	
	60세 이상	(188)	40.6	15.0	11.4	7.5	8.8	16.7	
학력별	중졸 이하	(137)	39.4	10.9	20.2	6.4	10.6	12.5	$\chi^2 = 42.792$ p=0.000
	고졸	(257)	34.2	21.5	12.1	11.9	3.4	16.9	
	대재 이상	(557)	37.2	15.2	8.0	16.4	5.5	17.6	
직업별	농림어업	(18)	35.0	12.6	22.7	8.0	6.5	15.1	$\chi^2 = 73.588$ p=0.000
	자영업	(143)	34.6	17.0	7.7	9.5	7.0	24.2	
	화이트칼라	(204)	41.2	19.5	4.6	14.8	4.9	15.1	
	블루칼라	(71)	26.6	24.6	13.9	16.7	6.3	11.8	
	가정주부	(231)	47.1	10.5	14.7	10.5	5.8	11.4	
	학생	(116)	33.3	7.6	16.2	21.7	4.3	17.0	
	전문직/공무원	(91)	31.4	19.7	8.5	16.2	4.7	19.5	
무직	(81)	26.6	20.3	12.5	10.5	7.3	22.8		



|| 그림 II-5 ||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마.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협력대상’(35.8%), ‘관리대상’(34.2%)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적대대상’(13.5%), ‘지원대상’(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경쟁대상’은 3.4%로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직업별, 계층별, 정치적 성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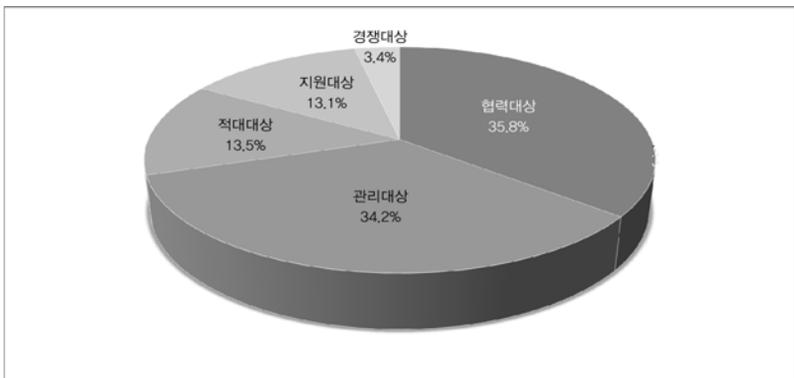
‘협력대상’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20대(45.5%),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학생(49.2%),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45.0%)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관리대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 50대(40.5%), 학력별 고졸(36.5%), 직업별 가정주부(42.4%), 정치적 성향별 보수(40.1%)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 -11 북한에 대한 인식

문5. 귀하는 다음 중 북한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대상	13.1%
협력대상	35.8%
경쟁대상	3.4%
관리대상	34.2%
적대대상	13.5%

●표 II-12 북한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관리 대상	적대 대상	유의도
전체		(977)	13.1	35.8	3.4	34.2	13.5	
연령별	20대	(181)	12.3	45.5	4.8	27.6	9.7	$\chi^2 = 63.167$ $p = 0.000$
	30대	(203)	16.2	39.9	1.9	32.3	9.7	
	40대	(218)	12.7	41.5	0.9	34.3	10.5	
	50대	(182)	16.9	24.7	4.4	40.5	13.5	
	60세 이상	(192)	7.2	26.4	5.5	36.3	24.6	
학력별	중졸 이하	(140)	11.3	30.7	7.6	27.3	23.1	$\chi^2 = 33.926$ $p = 0.000$
	고졸	(257)	14.3	31.4	5.0	36.5	12.9	
	대재 이상	(563)	12.9	39.3	1.6	34.8	11.4	
직업별	농림어업	(19)	43.7	10.8	0.0	15.6	29.9	$\chi^2 = 72.818$ $p = 0.000$
	자영업	(144)	10.8	39.4	2.2	31.5	16.0	
	화이트칼라	(204)	16.4	34.8	2.2	36.2	10.4	
	블루칼라	(70)	16.1	30.5	5.8	32.6	15.0	
	가정주부	(234)	10.3	31.9	3.1	42.4	12.4	
	학생	(117)	10.6	49.2	6.4	24.3	9.5	
	전문직/공무원	(92)	8.0	47.4	1.3	33.4	10.0	
	무직	(83)	15.8	21.5	6.1	34.3	22.3	
정치적 성향별	보수	(306)	11.1	23.1	3.0	40.1	22.7	$\chi^2 = 62.767$ $p = 0.000$
	중도	(377)	12.1	39.6	3.8	35.6	8.9	
	진보	(224)	16.9	45.0	3.5	26.7	7.8	



■그림 II-6 ■ 북한에 대한 인식

바.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3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제도적 준비’(27.9%)가 높았으며,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18.9%), ‘남한의 경제적 역량’(18.3%)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조부모 고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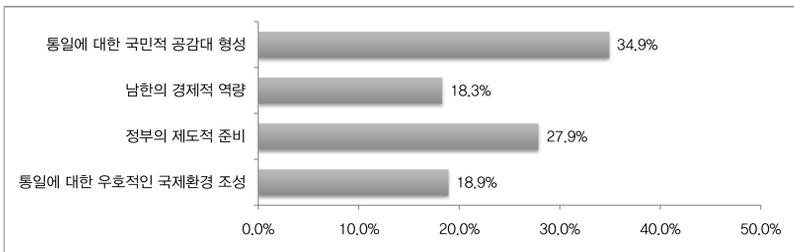
미비항목 중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39.0%), 연령별로는 20대(40.1%),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1.1%)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제도적 통일 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은 성별 남성(30.6%), 연령별 40대(33.3%), 직업별 전문직/공무원(37.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13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4.9%
남한의 경제적 역량	18.3%
정부의 제도적 준비	27.9%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18.9%

● 표 II-14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한의 경제적 역량	정부의 제도적 준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유의도
전 체		(940)	34.9	18.3	27.9	18.9	
성별	남성	(471)	30.8	16.9	30.6	21.7	$\chi^2 = 11.613$ $p = 0.009$
	여성	(468)	39.0	19.6	25.2	16.1	
연령별	20대	(180)	40.1	16.8	25.7	17.5	$\chi^2 = 12.502$ $p = 0.406$
	30대	(204)	33.4	17.8	29.4	19.4	
	40대	(212)	31.5	14.7	33.3	20.5	
	50대	(175)	37.6	20.5	25.8	16.0	
	60세 이상	(169)	32.5	22.6	23.9	21.0	
직업별	농림어업	(15)	29.7	33.9	16.2	20.2	$\chi^2 = 23.642$ $p = 0.311$
	자영업	(139)	32.0	18.6	29.9	19.5	
	화이트칼라	(205)	32.9	17.3	28.2	21.6	
	블루칼라	(68)	26.4	23.4	32.5	17.7	
	가정주부	(217)	41.1	20.6	22.1	16.2	
	학생	(113)	40.2	13.4	29.5	16.8	
	전문직/공무원	(92)	27.9	15.3	37.3	19.4	
무직	(76)	34.3	19.0	22.4	24.3		



Ⅱ 그림 II-7 Ⅱ 남한의 통일준비 미비항목

사.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북주민 간 가치관 차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남북주민 간 경제격차’(33.9%), ‘남북주민 간 신뢰부족’(15.0%), ‘북한 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11.8%)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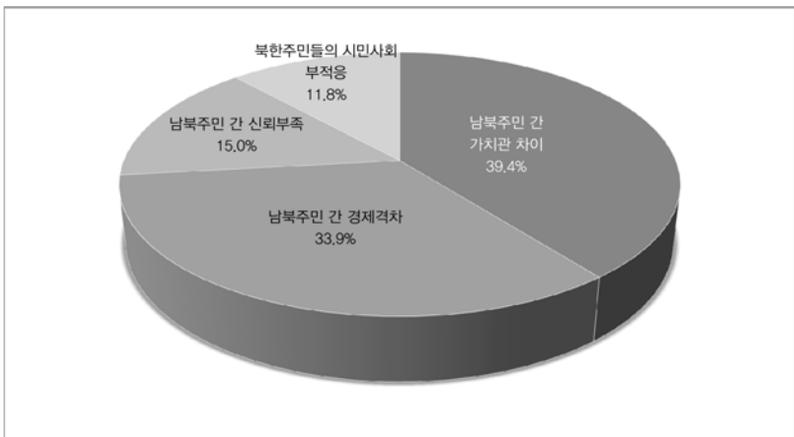
‘남북주민 간 가치관 차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47.7%), 직업별로는 전문직/공무원(50.9%)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북주민 간 경제격차’라는 응답은 연령별 30대(37.9%), 직업별 자영업(41.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5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문7. 귀하는 통일이후 민족통합의 완성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주민 간 신뢰부족	15.0%
남북주민 간 경제격차	33.9%
남북주민 간 가치관 차이	39.4%
북한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	11.8%

● 표 II-16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남북 주민 간 신뢰부족	남북 주민 간 경제격차	남북 주민 간 가치관 차이	북한 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	유의도
전체		(965)	15.0	33.9	39.4	11.8	
연령별	20대	(185)	14.2	33.7	36.5	15.6	$\chi^2 = 23.066$ $p = 0.027$
	30대	(203)	9.3	37.9	40.4	12.3	
	40대	(214)	14.6	31.1	47.7	6.6	
	50대	(183)	17.8	33.0	35.9	13.3	
	60세 이상	(179)	19.7	33.8	34.8	11.7	
직업별	농림어업	(16)	4.1	22.7	44.0	29.1	$\chi^2 = 29.491$ $p = 0.103$
	자영업	(140)	14.5	41.6	30.9	13.1	
	화이트칼라	(206)	13.5	38.9	36.4	11.2	
	블루칼라	(73)	16.0	35.8	41.8	6.4	
	가정주부	(228)	17.6	30.3	42.7	9.4	
	학생	(118)	17.1	27.0	39.9	16.0	
	전문직/공무원	(91)	9.4	28.2	50.9	11.6	
	무직	(76)	18.9	34.6	32.8	13.7	



■ 그림 II-8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 요인

아.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23.8%),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22.8%),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14.1%), ‘친환경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7.0%)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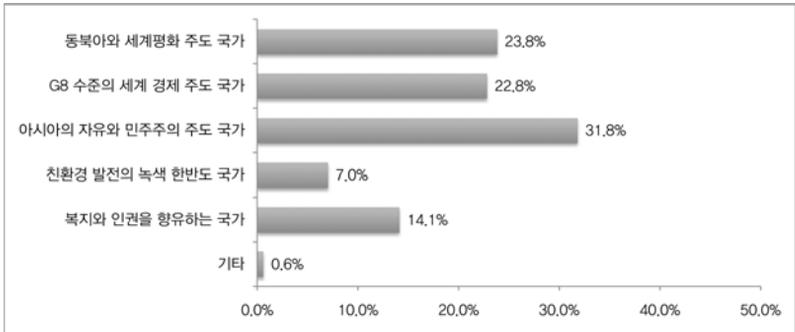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20대(34.6%), 가구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38.3%), 직업별로는 농림어업(40.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라는 응답은 연령별 40대(29.8%), 가구소득별 600만 원 이상(30.3%), 직업별 가정주부(29.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17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문8. 통일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통일 후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	23.8%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	22.8%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	31.8%
친환경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	7.0%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	14.1%
기타	0.6%

● 표 II-18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	친환경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	기타	유의도
전체		(879)	23.8	22.8	31.8	7.0	14.1	0.6	
연령 별	20대	(170)	17.7	23.4	34.6	3.7	18.4	2.2	$\chi^2 = 33.943$ $p = 0.027$
	30대	(186)	19.3	25.5	31.3	10.0	13.1	0.8	
	40대	(200)	29.8	23.5	28.4	8.1	10.2	0.0	
	50대	(166)	27.0	19.6	32.7	6.0	14.7	0.0	
	60세 이상	(157)	24.8	21.3	32.6	6.4	14.9	0.0	
가구 소득 별	200만 원 미만	(132)	24.4	16.5	38.3	8.6	11.1	1.0	$\chi^2 = 28.966$ $p = 0.265$
	200~300만 원 미만	(133)	24.4	24.1	27.0	6.8	17.7	0.0	
	300~400만 원 미만	(167)	21.6	21.9	34.6	5.8	14.6	1.5	
	400~500만 원 미만	(128)	17.2	32.9	28.3	4.5	17.2	0.0	
	500~600만 원 미만	(109)	23.8	25.5	31.0	8.8	10.8	0.0	
	600만 원 이상	(92)	30.3	24.3	27.1	8.9	7.8	1.6	
직업 별	농림어업	(16)	17.8	37.0	40.8	0.0	4.4	0.0	$\chi^2 = 47.656$ $p = 0.075$
	자영업	(131)	24.7	27.6	25.9	7.2	14.6	0.0	
	화이트칼라	(190)	27.7	24.9	30.3	7.7	8.7	0.8	
	블루칼라	(66)	20.0	26.3	34.0	7.1	12.6	0.0	
	가정주부	(197)	29.3	14.3	34.2	8.4	13.8	0.0	
	학생	(108)	14.0	24.1	33.1	3.5	22.9	2.3	
	전문직/공무원	(88)	19.9	26.4	30.8	9.0	12.5	1.5	
	무직	(70)	21.8	20.3	36.8	3.9	17.2	0.0	



■ 그림 II-9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자.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과 과정에 반영’(27.3%),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19.4%), ‘영화 및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14.0%)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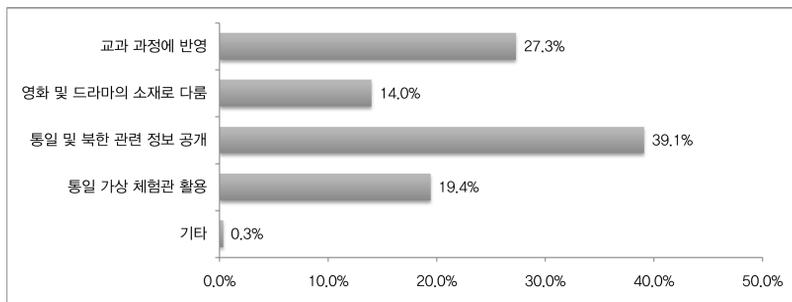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으로는 50대(47.0%), 학력별로는 고졸(41.3%), 가구소득별로는 500~600만 원 미만(51.1%), 직업별로는 농림어업(52.0%)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과 과정에 반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 60세 이상(38.7%),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별 200만 원 미만(36.3%), 직업별 무직(36.4%)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19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문9. 귀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 과정에 반영	27.3%
영화 및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14.0%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39.1%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	19.4%
기타	0.3%

●표 11-20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교과 과정에 반영	영화 및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	기타	유의도
전체		(926)	27.3	14.0	39.1	19.4	0.3	
연령별	20대	(176)	17.7	23.6	30.6	28.1	0.0	$\chi^2 = 52.914$ $p = 0.000$
	30대	(202)	24.7	13.2	39.1	23.0	0.0	
	40대	(208)	28.9	11.4	43.6	15.7	0.4	
	50대	(173)	26.9	12.0	47.0	13.5	0.5	
	60세 이상	(166)	38.7	10.4	34.0	16.5	0.4	
학력별	중졸 이하	(118)	33.0	12.9	32.8	20.7	0.6	$\chi^2 = 6.824$ $p = 0.556$
	고졸	(244)	27.8	13.0	41.3	17.9	0.0	
	대재 이상	(546)	24.9	15.0	39.8	20.0	0.3	
가구 소득별	200만 원 미만	(139)	36.3	13.6	34.5	15.1	0.5	$\chi^2 = 25.854$ $p = 0.171$
	200~300만 원 미만	(140)	25.7	13.3	39.0	21.4	0.6	
	300~400만 원 미만	(179)	27.1	16.1	36.5	19.8	0.5	
	400~500만 원 미만	(135)	20.8	17.6	35.3	26.3	0.0	
	500~600만 원 미만	(116)	23.3	8.7	51.1	16.9	0.0	
	600만 원 이상	(95)	27.7	16.4	38.8	17.1	0.0	
직업별	농림어업	(19)	24.0	20.3	52.0	3.6	0.0	$\chi^2 = 42.389$ $p = 0.040$
	자영업	(136)	30.7	12.9	40.2	16.2	0.0	
	화이트칼라	(200)	24.9	15.4	37.6	22.1	0.0	
	블루칼라	(70)	30.5	9.4	36.9	23.1	0.0	
	가정주부	(217)	28.0	11.5	42.5	17.6	0.4	
	학생	(112)	17.2	21.6	33.5	27.7	0.0	
	전문직/공무원	(85)	25.6	16.8	40.4	17.2	0.0	
	무직	(73)	36.4	10.6	34.9	15.9	2.2	



■ 그림 II-10 ■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차.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이 더 크다’는 응답은 66.4%(‘부담이 훨씬 더 크다’ 38.6% + ‘부담이 조금 더 크다’ 27.9%)로 나타났으며,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21.1%(‘기대가 훨씬 더 크다’ 9.3% + ‘기대가 조금 더 크다’ 11.8%)로 나타났다. 한편, ‘비슷하다’라는 응답은 12.4%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정치적 성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크다’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68.4%), 연령별로는 30대(70.7%), 학력별로는 고졸(70.1%),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1.5%),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69.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대가 크다’라는 응답은 성별 남성(25.2%), 연령별 40대(24.8%), 학력별 중졸 이하(22.7%), 직업별 농림어업(35.7%), 정치적 성향별 진보(25.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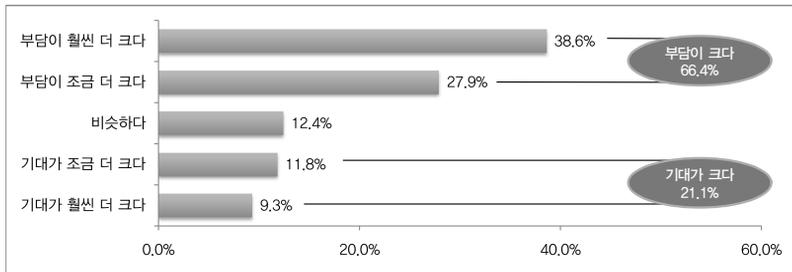
● 표 11-21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문10.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일로 인한 부담과 통일로 인한 기대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부담이 훨씬 더 크다	38.6%	➔ 66.4%
부담이 조금 더 크다	27.9%	
비슷하다	12.4%	
기대가 조금 더 크다	11.8%	➔ 21.1%
기대가 훨씬 더 크다	9.3%	

● 표 11-22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교차분석

구분	사레수 (명)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부담이 조금 더 크다	비슷 하다	기대가 조금 더 크다	기대가 훨씬 더 크다	종합			유의도	
							부담이 크다	비슷 하다	기대가 크다		
전체	(983)	38.6	27.9	12.4	11.8	9.3	66.4	12.4	21.1		
성별	남성	(486)	35.6	28.8	10.4	13.3	11.9	64.4	10.4	25.2	$\chi^2 = 13.948$ p=0.007
	여성	(497)	41.5	27.0	14.4	10.4	6.8	68.4	14.4	17.1	
연령별	20대	(185)	30.2	33.2	19.0	14.9	2.7	63.4	19.0	17.7	$\chi^2 = 48.120$ p=0.000
	30대	(206)	37.8	32.9	10.8	11.3	7.2	70.7	10.8	18.5	
	40대	(215)	34.0	29.7	11.5	13.7	11.1	63.7	11.5	24.8	
	50대	(183)	46.7	20.6	11.7	9.9	11.0	67.4	11.7	20.9	
	60세 이상	(193)	44.7	22.2	9.7	9.0	14.4	66.9	9.7	23.4	
학력별	중졸 이하	(141)	44.0	20.5	12.8	7.0	15.6	64.5	12.8	22.7	$\chi^2 = 19.470$ p=0.013
	고졸	(258)	42.1	27.9	9.5	11.4	9.0	70.1	9.5	20.4	
	대재 이상	(566)	35.7	29.5	13.8	13.1	7.9	65.2	13.8	21.0	
직업별	농림어업	(19)	49.7	9.8	4.8	11.6	24.1	59.5	4.8	35.7	$\chi^2 = 53.949$ p=0.002
	자영업	(143)	39.4	30.3	8.8	13.9	7.6	69.7	8.8	21.5	
	화이트칼라	(207)	35.3	26.1	14.3	15.5	8.8	61.4	14.3	24.3	
	블루칼라	(71)	38.6	31.2	13.0	5.6	11.7	69.8	13.0	17.2	
	가정주부	(233)	45.7	25.7	13.3	7.8	7.4	71.5	13.3	15.2	

구분	사례수 (명)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부담이 조금 더 크다	비슷 하다	기대가 조금 더 크다	기대가 훨씬 더 크다	종합			유의도	
							부담이 크다	비슷 하다	기대가 크다		
직업별	학생	(119)	29.1	34.1	17.8	15.8	3.2	63.2	17.8	19.0	$\chi^2 = 53.949$ $p = 0.002$
	전문직/공무원	(92)	37.2	32.4	9.3	9.5	11.6	69.6	9.3	21.1	
	무직	(83)	34.5	21.7	10.6	13.1	20.0	56.2	10.6	33.1	
정치적 성향별	보수	(307)	46.6	23.2	11.3	11.6	7.2	69.8	11.3	18.9	$\chi^2 = 17.921$ $p = 0.022$
	중도	(378)	35.4	31.5	13.3	11.0	8.8	66.9	13.3	19.8	
	진보	(224)	31.8	29.8	13.1	13.3	12.0	61.6	13.1	25.3	



■ 그림 II-11 ■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카.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통일 이후에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45.7%(‘통일 이후에 매우 많이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20.3% +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25.5%)로, ‘통일 이전에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34.5%(‘통일 이전에 매우 많이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10.4% + ‘통일 이전에 어느 정도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2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슷하다’라는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에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52.3%), 연령별로는 20대(55.6%),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47.7%)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 이전에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성별 남성(41.6%), 연령별 40대(39.6%), 정치적 성향별 진보(39.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3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문11.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일을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통일 전, 통일 이후 지출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이전에 매우 많이 지출	10.4%	➔ 34.5%
통일 이전에 어느 정도 지출	24.1%	
중간이다	19.8%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 지출	25.5%	➔ 45.7%
통일 이후에 매우 많이 지출	20.3%	

●표 II-24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통일 이전에 매우 많이 지출	통일 이전에 어느 정도 지출	중간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	통일 이후에 매우 많이 지출	종합			유의도	
							통일 이전에 지출	중간 이다	통일 이후에 지출		
전체	(942)	10.4	24.1	19.8	25.5	20.3	34.5	19.8	45.7		
성별	남성	(477)	14.1	27.4	19.1	21.1	18.1	41.6	19.1	39.3	$\chi^2 = 27.169$ $p = 0.000$
	여성	(465)	6.5	20.7	20.5	29.9	22.4	27.2	20.5	52.3	
연령별	20대	(184)	6.9	17.1	20.5	33.1	22.4	24.0	20.5	55.6	$\chi^2 = 25.800$ $p = 0.057$
	30대	(200)	11.1	23.8	19.4	27.6	18.1	35.0	19.4	45.7	
	40대	(212)	10.9	28.7	21.2	19.3	19.9	39.6	21.2	39.2	
	50대	(177)	8.3	29.8	17.8	25.3	18.7	38.1	17.8	44.1	
	60세 이상	(169)	14.8	20.2	20.0	22.4	22.5	35.1	20.0	44.9	

구분	사례수 (명)	통일 이전에 매우 많이 지출	통일 이전에 어느 정도 지출	중간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	통일 이후에 매우 많이 지출	종합			유의도	
							통일 이전에 지출	중간 이다	통일 이후에 지출		
정치적 성향별	보수	(287)	9.7	26.4	16.2	24.4	23.3	36.1	16.2	47.7	$\chi^2 = 12.068$ $p = 0.148$
	중도	(368)	8.3	22.2	23.2	27.7	18.7	30.4	23.2	46.4	
	진보	(221)	13.2	26.1	18.6	23.3	18.7	39.3	18.6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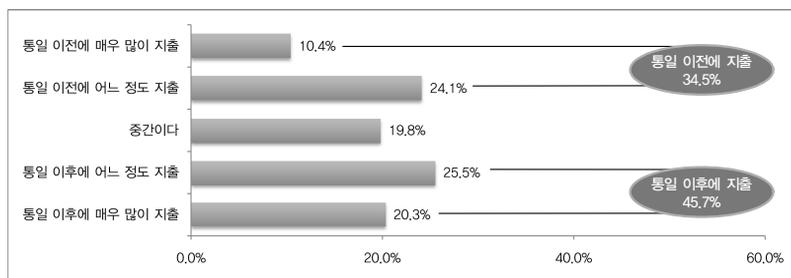


그림 II-12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타.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통일 과정과 방식 중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은 60.2%(‘매우 찬성’ 22.5% + ‘다소 찬성’ 37.7%)로 ‘반대’라는 응답 18.2%(‘매우 반대’ 6.8% + ‘다소 반대’ 1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정치적 성향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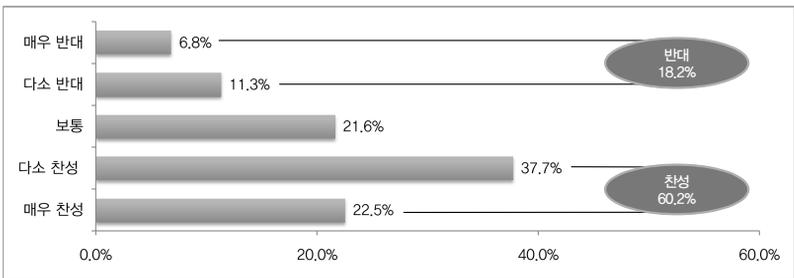
‘찬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64.6%), 연령별로는 20대(66.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반대’라는 응답은 성별 여성(18.7%), 연령별 40대(22.4%)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25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문12.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한 뒤 통일한다.	
매우 반대	6.8%
다소 반대	11.3%
보통	21.6%
다소 찬성	37.7%
매우 찬성	22.5%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 <div style="text-align: right;"> <p>18.2%</p> <p>60.2%</p> </div> </div>	

● 표 II-26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종합			유의도	
							반대	보통	찬성		
전체	(968)	6.8	11.3	21.6	37.7	22.5	18.2	21.6	60.2		
성별	남성	(484)	7.4	10.1	17.9	41.2	23.4	17.6	17.9	64.6	$\chi^2 = 11.678$ p=0.020
	여성	(485)	6.2	12.5	25.4	34.2	21.7	18.7	25.4	55.9	
연령별	20대	(186)	2.7	7.4	23.5	46.3	20.1	10.1	23.5	66.4	$\chi^2 = 26.755$ p=0.044
	30대	(206)	6.1	10.6	21.9	38.7	22.7	16.7	21.9	61.3	
	40대	(214)	5.8	16.6	20.8	36.2	20.6	22.4	20.8	56.8	
	50대	(181)	10.0	9.0	22.4	34.1	24.6	18.9	22.4	58.7	
	60세 이상	(182)	10.0	12.3	19.6	33.1	25.1	22.3	19.6	58.1	



■ 그림 II-13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파.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통일 과정과 방식 중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은 45.1%(‘매우 찬성’ 15.4% + ‘다소 찬성’ 29.7%)로 ‘반대’라는 응답 27.5%(‘매우 반대’ 9.4% + ‘다소 반대’ 1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 직업별, 정치적 성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0.9%),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별로는 농림어업(56.6%)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반대’라는 응답은 연령별 20대(32.5%),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별 블루칼라(37.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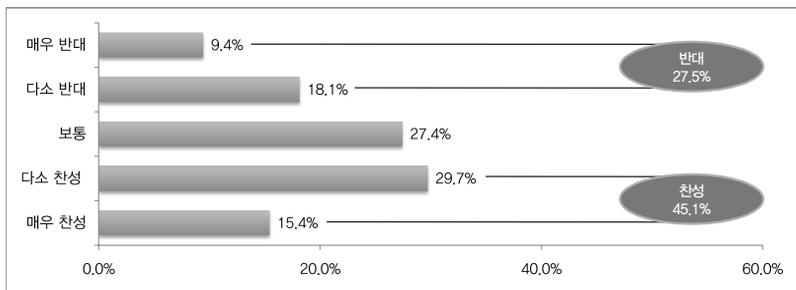
표 II-27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문13. 우선 통일하고 경제격차를 줄인다.	
매우 반대	9.4%
다소 반대	18.1%
보통	27.4%
다소 찬성	29.7%
매우 찬성	15.4%
	27.5%
	45.1%

표 II-28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교차분석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종합			유의도
							반대	보통	찬성	
전체	(958)	9.4	18.1	27.4	29.7	15.4	27.5	27.4	45.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종합			유의도	
							반대	보통	찬성		
연령 구분	20대	(185)	10.1	22.4	35.8	25.0	6.8	32.5	35.8	31.7	$\chi^2=28.997$ $p=0.024$
	30대	(202)	10.1	20.9	23.8	30.0	15.2	31.0	23.8	45.2	
	40대	(211)	8.2	13.8	27.2	30.5	20.3	22.1	27.2	50.8	
	50대	(176)	9.3	19.4	25.4	29.9	16.1	28.7	25.4	45.9	
	60세 이상	(183)	9.2	14.5	25.3	33.1	17.9	23.7	25.3	50.9	
직업 구분	중졸 이하	(129)	6.9	10.7	32.3	28.8	21.2	17.6	32.3	50.0	$\chi^2=12.105$ $p=0.147$
	고졸	(252)	7.9	19.1	28.2	29.4	15.5	26.9	28.2	44.8	
	대졸 이상	(560)	10.7	19.5	26.5	29.8	13.5	30.2	26.5	43.3	
직종 구분	농림어업	(18)	3.8	3.8	35.9	31.7	24.8	7.6	35.9	56.6	$\chi^2=48.651$ $p=0.009$
	자영업	(140)	12.8	15.6	27.8	31.7	12.1	28.4	27.8	43.8	
	화이트칼라	(205)	8.2	16.2	25.9	32.6	17.0	24.4	25.9	49.7	
	블루칼라	(68)	20.6	17.0	27.2	17.5	17.7	37.6	27.2	35.2	
	가정주부	(223)	8.2	17.4	25.3	32.8	16.3	25.6	25.3	49.2	
	학생	(118)	7.6	26.3	36.9	23.0	6.2	33.9	36.9	29.2	
	전문직/공무원	(91)	9.3	23.9	24.4	28.0	14.5	33.1	24.4	42.5	
	무직	(80)	4.3	15.7	24.7	32.4	23.0	19.9	24.7	55.4	



■ 그림 II-14 ■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하.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은 62.1%(‘매우 찬성’ 21.9% + ‘다소 찬성’ 40.1%)로 ‘반대’라는 응답 15.3%(‘매우 반대’ 5.6% + ‘다소 반대’ 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직업별, 정치적 성향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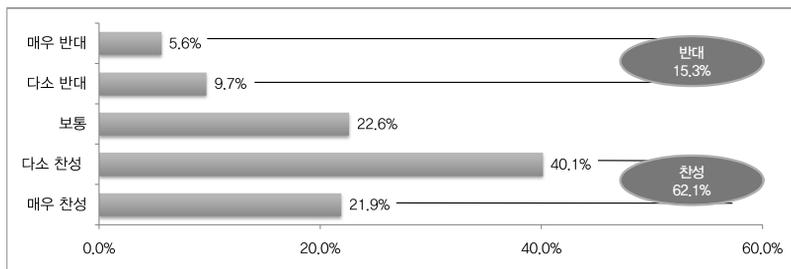
‘찬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70.8%), 연령별로는 40대(71.0%),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별로는 600만 원 이상(68.6%), 직업별로는 전문직/공무원(75.1%),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66.9%)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반대’라는 응답은 성별 여성(18.5%), 연령별 60세 이상(23.6%),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별 200만 원 미만(24.7%), 직업별 블루칼라(24.6%), 정치적 성향별 보수(19.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9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문14. 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			
매우 반대	5.6%	➔	15.3%
다소 반대	9.7%		
보통	22.6%		
다소 찬성	40.1%	➔	62.1%
매우 찬성	21.9%		

●표 11-30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총 합			유의도
								반대	보통	찬성	
전체		(974)	5.6	9.7	22.6	40.1	21.9	15.3	22.6	62.1	
성별	남성	(489)	5.4	6.7	17.0	42.7	28.2	12.1	17.0	70.8	$\chi^2 = 41.806$ $p = 0.000$
	여성	(485)	5.7	12.8	28.3	37.5	15.7	18.5	28.3	53.2	
연령별	20대	(185)	4.7	8.7	28.9	42.7	15.0	13.4	28.9	57.7	$\chi^2 = 32.729$ $p = 0.008$
	30대	(206)	4.2	9.8	24.4	41.3	20.4	13.9	24.4	61.7	
	40대	(215)	4.1	4.8	20.1	43.4	27.6	8.9	20.1	71.0	
	50대	(182)	6.9	10.9	18.1	38.9	25.1	17.8	18.1	64.1	
	60세 이상	(186)	8.3	15.3	21.9	33.5	20.9	23.6	21.9	54.5	
학력별	중졸 이하	(134)	9.0	18.6	23.4	29.6	19.4	27.6	23.4	49.0	$\chi^2 = 22.901$ $p = 0.003$
	고졸	(256)	5.5	8.3	24.6	42.2	19.3	13.9	24.6	61.5	
	대재 이상	(566)	4.8	8.3	21.3	42.5	23.1	13.1	21.3	65.6	
가구 소득별	200만 원 미만	(155)	8.3	16.3	20.7	31.5	23.1	24.7	20.7	54.6	$\chi^2 = 42.123$ $p = 0.003$
	200~300만 원 미만	(145)	5.6	12.6	20.0	44.0	17.8	18.3	20.0	61.8	
	300~400만 원 미만	(186)	6.4	4.7	24.7	42.4	21.8	11.1	24.7	64.2	
	400~500만 원 미만	(140)	3.0	8.4	32.8	43.2	12.5	11.5	32.8	55.8	
	500~600만 원 미만	(118)	3.2	8.9	22.4	36.0	29.6	12.0	22.4	65.6	
	600만 원 이상	(96)	6.6	8.5	16.3	41.6	27.0	15.1	16.3	68.6	
직업별	농림어업	(19)	0.0	16.6	10.8	43.9	28.6	16.6	10.8	72.6	$\chi^2 = 60.572$ $p = 0.000$
	자영업	(145)	5.2	5.9	26.6	47.8	14.5	11.1	26.6	62.3	
	화이트칼라	(206)	4.0	9.3	16.8	44.8	25.1	13.3	16.8	69.9	
	블루칼라	(73)	13.1	11.5	28.4	25.8	21.3	24.6	28.4	47.0	
	기정주부	(227)	7.3	12.5	28.4	34.2	17.6	19.8	28.4	51.8	
	학생	(118)	3.1	9.3	29.5	41.4	16.6	12.5	29.5	58.0	
	전문직/공무원	(92)	4.9	7.6	12.4	42.2	32.9	12.5	12.4	75.1	
무직	(80)	5.1	9.7	15.0	42.5	27.8	14.8	15.0	70.3		
정치적 성향별	보수	(303)	8.8	10.8	20.8	40.2	19.4	19.6	20.8	59.6	$\chi^2 = 15.893$ $p = 0.044$
	중도	(380)	4.1	9.9	24.9	40.8	20.2	14.0	24.9	61.1	
	진보	(222)	4.1	6.2	22.8	40.1	26.7	10.3	22.8	66.9	



■ 그림 II-15 ■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가. 통일자원 마련의 필요성

‘통일자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은 72.2%(‘매우 찬성’ 26.8% + ‘다소 찬성’ 45.4%)로 ‘반대’라는 응답 11.1%(‘매우 반대’ 4.5% + ‘다소 반대’ 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16.7%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별, 직업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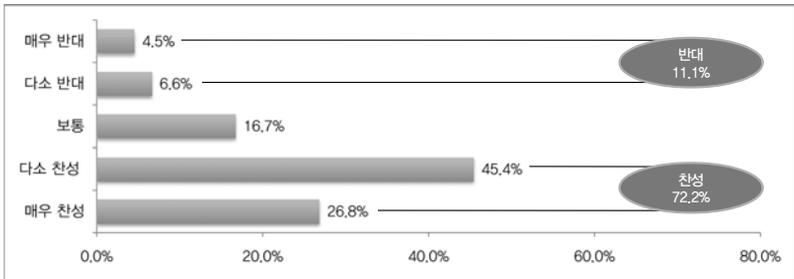
‘찬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79.2%), 직업별로는 무직(84.0%)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반대’라는 응답은 연령별 30대(12.7%), 직업별 블루칼라(21.2%)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31 통일자원 마련의 필요성

문15. 후속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자원 마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매우 반대	4.5%	➔ 11.1%
다소 반대	6.6%	
보통	16.7%	
다소 찬성	45.4%	➔ 72.2%
매우 찬성	26.8%	

●표 II-32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종합			유의도	
							반대	보통	찬성		
전체	(974)	4.5	6.6	16.7	45.4	26.8	11.1	16.7	72.2		
연령 별	20대	(186)	2.7	8.8	22.7	51.0	14.9	11.5	22.7	65.9	$\chi^2 = 38.378$ $p = 0.001$
	30대	(203)	3.9	8.8	21.0	42.1	24.2	12.7	21.0	66.3	
	40대	(214)	5.1	3.0	12.7	45.7	33.5	8.1	12.7	79.2	
	50대	(181)	6.0	6.4	10.9	45.6	31.2	12.4	10.9	76.7	
	60세 이상	(189)	4.8	6.1	16.4	43.0	29.7	11.0	16.4	72.7	
직업 별	농림어업	(18)	5.1	13.0	21.4	11.3	49.1	18.2	21.4	60.4	$\chi^2 = 67.429$ $p = 0.000$
	자영업	(140)	5.8	3.2	11.5	55.8	23.6	9.0	11.5	79.5	
	화이트칼라	(209)	2.7	7.1	17.5	44.2	28.5	9.8	17.5	72.7	
	블루칼라	(71)	12.3	8.9	17.4	31.8	29.7	21.2	17.4	61.5	
	가정주부	(227)	4.7	6.7	19.7	44.3	24.6	11.4	19.7	69.0	
	학생	(119)	2.8	5.5	24.0	52.3	15.4	8.3	24.0	67.7	
	전문직/공무원	(92)	2.3	13.1	11.0	42.6	31.0	15.4	11.0	73.6	
무직	(83)	4.9	1.6	9.4	46.6	37.4	6.6	9.4	84.0		



■그림 II-16 ■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나.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산 일정부분 적립’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금’(15.0%), ‘국민 성금’(13.2%), ‘해외 자본 유치’(12.6%), ‘채권 발행’(7.6%)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조부모 고향별, 정치적 성향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일정부분 적립’을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62.3%),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전문직/공무원(62.3%), 정치적 성향별로는 중도(59.5%)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세금’이라는 응답은 연령별 50대(18.1%),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별 농림어업(23.6%), 정치적 성향별 진보(20.4%)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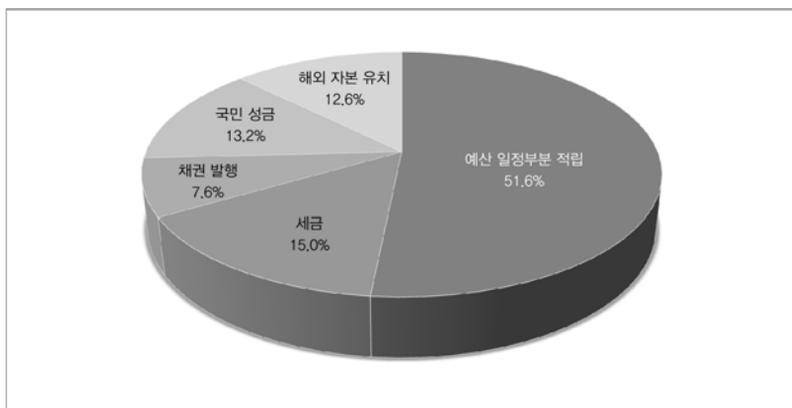
● 표 II-33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문16.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산 일정부분 적립	51.6%
세금	15.0%
채권 발행	7.6%
국민 성금	13.2%
해외 자본 유치	12.6%

● 표 II-34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예산 일정부분 적립	세금	채권 발행	국민 성금	해외 자본 유치	유의도
전체	(892)	51.6	15.0	7.6	13.2	12.6	

구분		사례수 (명)	예산 일정부분 적립	세금	채권 발행	국민 성금	해외 자본 유치	유의도
연령별	20대	(176)	46.0	15.6	7.1	17.1	14.1	$\chi^2 = 59.405$ $p = 0.000$
	30대	(190)	62.3	9.5	8.0	3.8	16.5	
	40대	(201)	54.3	17.3	5.9	8.0	14.4	
	50대	(166)	51.2	18.1	9.3	17.0	4.3	
	60세 이상	(160)	42.2	14.5	7.8	22.7	12.7	
학력별	중졸 이하	(108)	31.6	19.7	12.3	23.6	12.8	$\chi^2 = 30.329$ $p = 0.000$
	고졸	(241)	48.8	15.1	8.0	15.4	12.7	
	대재 이상	(528)	56.8	14.2	6.5	10.1	12.4	
직업별	농림어업	(16)	21.1	23.6	0.0	27.6	27.7	$\chi^2 = 51.371$ $p = 0.005$
	자영업	(128)	48.2	18.6	10.9	12.2	10.1	
	화이트칼라	(192)	56.6	11.9	6.5	6.7	18.3	
	블루칼라	(63)	47.1	20.9	5.7	14.6	11.7	
	가정주부	(203)	55.3	14.1	6.2	13.8	10.6	
	학생	(113)	44.7	18.7	6.7	18.8	11.1	
	전문직/공무원	(90)	62.3	8.0	8.6	9.1	11.9	
무직	(74)	43.3	14.4	11.3	21.8	9.2		
정치적 성향별	보수	(273)	42.1	16.1	12.3	15.1	14.4	$\chi^2 = 39.747$ $p = 0.000$
	중도	(355)	59.5	10.9	5.6	14.7	9.3	
	진보	(215)	53.0	20.4	5.2	7.5	14.0	



Ⅱ 그림 II-17 Ⅱ 바람직한 통일자원 마련 방안

3. 소결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기존의 단순한 통일외식 중심의 여론조사 범주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통일외지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국민이 추구하는 통일외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최근 연구경향과 미디어의 보도는 통일외담(비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통일외담뿐만 아니라 통일외국이 얻을 수 있는 각종 유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는 통일외기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문항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설문지의 구성은 국민의 통일외식에 대해 추적함과 동시에 통일외기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로 인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각종 통일외항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외정책 구상과 방향성 제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국민의식조사의 문항은 통상적인 전화조사의 제한에 따라 간결하고 평이한 용어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우선 기본적인 대북외식 파악을 위해 통일의 필요성(문1), 통일외시기(문2), 대북외식(문5)을 설문하였다. 이들 문항은 기존의 통일외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예외 없이 사용되는 문항이므로 선행조사와 비교 가능한 장점이 있다.

통일의 기대와 외담에 대한 문항은 통일의 기대와 외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나열하여 단순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문방식은 기대와 외담의 항목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상세한 기대와 외담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면접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의 기대와 외담 관련 문항은 <문3>, <문4>,

<문6>에서 <문10>까지 7개로 구성되었다. 문항에는 분단비용, 통일 기대, 준비사항, 통일의 미래상, 통일 순편익이 포함된다. 통일재원 마련은 6개의 문항으로 재정지출의 시기, 통일재원의 의미, 통일재원 마련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은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로 추출된 1,000명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0\%$ 포인트이다.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2012년 7월 14~15일 시행하였다. 또한 표집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화를 포괄하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국민의 통일의지와 통일재원에 대한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 대다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문1)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 63.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22.0%는 ‘중립’,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는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예외 없이 제시되어온 문항으로서 기본적인 통일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다. 본 문항에 대해 국민여론은 ‘40대 이상’과 ‘남성’일 경우 더 공감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년 이내’(29.2%), ‘10년 이내’(19.9%), ‘30년 이내’(12.9%)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설문은 기대 기간이 짧을수록 통일을 현실적인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 시기를 가까운 미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30년 이내’와 ‘30년 이상’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0.9%).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중요한 평가문항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70%가 북한을 ‘협력대상’ 또는 ‘관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3.1%가 ‘지원대상’, 13.5%가 ‘적대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문항은 선행연구(통일연구원 공동체 통일방안 여론조사, 2011)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도발(2010.11.23.)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2011년 4월)에 22.5%, 2011년 7월 조사에서는 16.8%였다. 즉, 2012년 7월 현재,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크게 상승하였다.

통일기대와 관련해서는 안보위협을 해소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다. 통일기대는 분단비용(문3)과 통일기대(문4)의 두 문항에 할당되었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통일의 이익 또는 기대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은 51.8%라는 절대 다수가 ‘북한의 안보위협’을 가장 큰 분단비용으로 선택하였다. ‘민족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15.1%)와 ‘분단이재민’(14.2%)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통일기대 문항에서는 분단비용과 우선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단비용에서 51.8%였던 ‘북한의 안보위협’은 37.1%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그러한 감소폭은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16%)과 ‘경제적 기회의 확대’(13.6%) 등의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항목별 답변의 변동은 통일기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기대상태를 반영한다. 즉, ‘안보위협’ 이외에도 다양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며 각각의 통일기대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일부담과 관련하여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문7)을 조사하였다. 민족통합의 장애요인은 ‘남북 주민 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큰 비중인 39.4%로 응답하였으며, ‘남북 간 경제격차’는 33.9%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격차에 대한 응답은 ‘40대’와 ‘자영업’ 직업에서 많았으며, 주민 간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는 ‘40대’와 ‘전문직/공무원’이 선택하였다.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을 묻는 질문(문8)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국가’가 31.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동북아와 세계 평화 주도국가’와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국가’가 각각 23.8%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된 문항인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문9)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공개’가 39.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보공개’는 2011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한 항목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교과과정에 반영’(27.3%), ‘통일 가상체험관’(19.4%),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14%)가 제시되었다. 20-30대의 경우 ‘영화, 드라마의 소재’ 또는 ‘가상 체험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50대는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더 컸다.

통일재원에 대한 문항을 전반적으로 보면 응답자들이 통일에 대해 기대보다는 부담이 크고, 더 빨리 재원을 모아서 투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문10)라는 질문에 대해 66.4%가 ‘부담이 크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는 답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기대가 크다’는 방향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포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된 본 국민의식조사에서 다른 문항이 일정한 중심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민인식이 통일비용에 대해 극단적인 수준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통일기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의 지출을 통일 이전과 이후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가(문11)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일 이전’(34.5%), ‘중간’(19.8%), ‘통일 이후’(45.7%)로 응답하였다. 즉, 통일 이후에 더 많은 지출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이다. 그러나 통일의 긴 여정을 고려할 경우 통일 이전에 대한 지출 비중을 선택한 34.5%는 무시하지 못할 다수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 지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남성’, ‘30대 이상’이 많은 답변을 하였다.

통일 과정과 방식 관련 문항에서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문12), 아니면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문13)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국민은 60.2%가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의 방식을 찬성하였으며,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방식은 45.1%가 찬성하였다. 즉, 국민은 상대적으로 우선 북한이 경제성장을 한 뒤 일정 수준이 되면 그 후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통일비용의 투자적 성격에 대한 인식(문14)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문15)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62.1%, 통일재원의 준비에 대해서는 72.2%가 동의하였다. ‘남성’, ‘40대’, ‘전문직/공무원’ 집단에서 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여야 하는가(문16)에 대한 답변은 ‘예산 일정부분 적립’이 51.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세금’, ‘국민 성금’, ‘해외 자본 유치’가 각각 15%, 13.2%, 12.6%로 비슷한 비중을 기록했다.



Ⅲ. 대학생 설문조사

1. 조사개요

가. 연구설계

최근 통일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세대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크며 그 중 20대가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정책적 고려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 20대는 앞으로 통일이 현실적 과제로 당면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하며 통합을 담당하게 될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통일의식의 측정과 장기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대학생은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고학력자로서 20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재원을 담당할 핵심집단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설문조사의 설계는 제한된 시간과 재원에 따라 가능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측정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통상적인 설문조사(Survey Research)와 실험조사(Experimental Research)를 결합하되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따라 통제조건을 완화시킨 의사실험 연구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의 형태로 구상하였다. 의사실험 연구설계는 실험대상의 무작위 할당, 외생변수의 통제 등 실험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구설계와 달리 실험설계가 갖추고 있는 비교와 통제 등의 조건이 완화된 연구설계이다. 설계구조는 크게 3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1개 통제집단과 2개 실험집단으로 구분한 뒤 3개의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2개의 실험집단은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자극을 받은 집단과 단기자극을 받은 집

단으로 다시 구분된다.

연구설계에 포함될 표본은 면밀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시과제로서 매우 단기간에 한정된 주제에 대해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대규모 인력과 재원이 요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적절한 확률표집을 위해서는 대학생 인구를 지역과 성별에 따라 층위로 나누고 이를 다시 확률적 표집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전국 대학생 모집단 목록이 존재할 경우 이를 일정한 표집오차(3%포인트 전후)에 따라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대학생 설문조사는 몇몇 대학을 선정하여 비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편의할당추출(Convenient Quota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다만 연구설계에 맞추어 크게 3가지 유형의 집단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3개의 집단은 통제집단, 실험집단-I, 실험집단-II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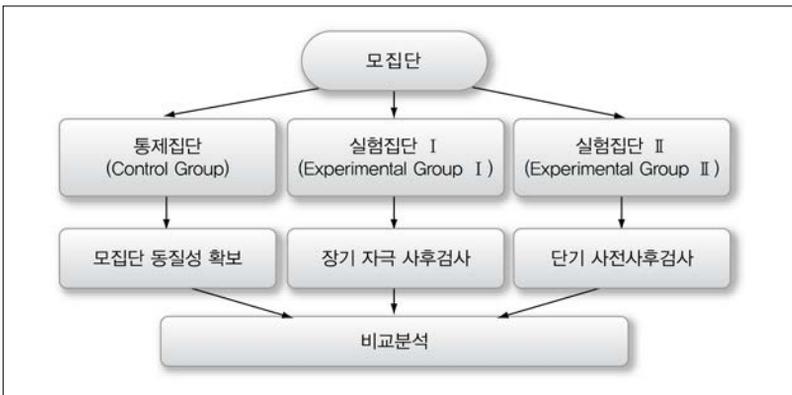


그림 III-1 | 대학생 설문조사 의사실험 연구설계

우선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서 모집단인 대학생 전체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의 비교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직능집단에 대한 확률적 표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경제교육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는 JA Korea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6월간 동 워크숍에 참여한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효 표본은 597명이다. 이러한 표본 추출 방법은 편의할당표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집단에 대한 동일한 표집확률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별 및 거주지 역시 확률적 층화 표집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적 전국적 강연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과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률표집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집단-I(Experimental Group I)은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에 장기 자극을 받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수행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단을 선정한 뒤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사전 사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실험집단-I을 일정기간 교양과목으로 북한 및 통일관련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정치학 또는 북한학 전공자의 경우 편향된 응답자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강내용은 분단의 현실, 북한 정치경제사, 통일문제 등이며,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동질성과 이질성, 분단의 정치경제적 비용, 통일의 실천적 이익 등이 강의내용에서 강조되었다. 대상 집단은 서울과 지방(용인)의 대학생으로 북한관련 과목을 약 3개월간 수강한 대학생 10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2년 5월 15~22일간 시행되었으며, 유효표본은 98명이다. 실험집단-I의 경우 장기자극이 연구기간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실험환경이 사전에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격한 실험연구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극의 실질적인 내용이

통일의 비용과 편익 및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며 표본의 다양성이 일정 정도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사실험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가 엄밀한 실험통제 환경에 따르는 인과관계의 획득 보다는 일반 대학생과 장기자극에 노출된 대학생의 기술적 비교(Descriptive Comparison)에 있으므로 연구설계의 방법론적 엄밀성은 논외로 할 수 있다.

실험집단-Ⅱ(Experimental Group Ⅱ)는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에 단기자극을 받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가장 가까운 실험설계이다. 춘천 소재 대학의 대학생 66명에 대해 2012년 5월 29일 1차 조사를 수행한 뒤, 6월 5일 통일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을 거친 직후 2차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집단통제 없이 편의표집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단발성 강의를 통한 자극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사실험 연구설계라고 할 수 있지만 자극의 강도와 시간이 의식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Ⅱ에 사용된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에서 도출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론조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조사기법으로 일반인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자극에 비교적 단기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충분한 자극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조사의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주제에 대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가지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론조사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그 사이에 토론과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는 단계를 거친다. 통상적인 절차는 ①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 ② 1차 조사 대상자를 공론조사에 초청, ③ 조사 주제에 대한 자료 집 또는 정보 제공, ④ 주제에 대한 소집단 토론, ⑤ 전문가와의 토론, ⑥ 2차 설문조사의 과정이다. 이러한 공론조사는 향후 단기간 숙의에 의한 통일의지 결집을 위해 매우 유용한 조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III-1 대학생 설문조사 의사실험 연구 집단표집

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I	실험집단-II
조사일시	2012. 5월~6월	2012. 5. 15~22	2012. 5. 29~6.5
조사대상	JA Korea 참가자	교양북한 수강생	일반 대학생
유효표본	597	98	66
비고	모집단 동질성 확보	장기자극 사후조사	단기 사전사후조사

나. 설문지 작성

대학생 설문지는 국민의식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본구조로 유지 하되 개별적인 통일의 기대와 부담의 문항에 나열된 주요 항목을 하위 문항의 형태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의식’, ‘통일의 기대와 부담’, ‘통일재원’의 3분야에 대한 총 16개 문항으로 작성된 국민의식조사 항목은 14개의 상위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23개의 하위항목으로 재구성되었다.

우선 통일관련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1>, <문2>, <문5>를 편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기존의 통일관련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으로 조사대상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등가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구성은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문항이다. 기대와 부담이

라는 용어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설문지 상에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즉, 기존의 통일비용 논의는 지나치게 경제 분야의 투입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전체적인 통일의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통일기대는 통일이후 연계 될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물질적·비물질적 이익을 의미하며, 통일부담은 물질적·비물질적 비용을 의미한다고 적시하였다. 해당 문항은 <문3>, <문4>, 그리고 <문6>에서 <문10>까지 7개 문항이며 이 중 3개의 문항은 구체적인 기대와 부담의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된 하위 문항을 구성하였다.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문8)과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문9)은 개방형 답변항목을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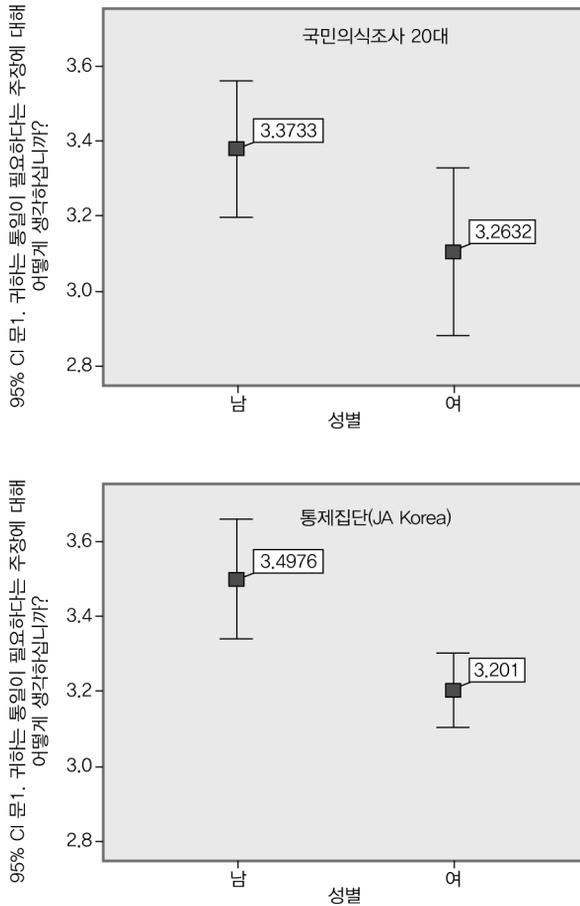
끝으로 통일재원과 관련된 문항은 <문11>에서 <문14>까지 구성하였으며, 이 역시 2개 문항에 대한 5점 척도의 하위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비용의 지출시기를 조사한 <문11>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 대신 재정투입 비율을 묻는 것으로 바꾸었다. 설문지가 다소 길고 복잡하게 구성되었으나 설문대상이 대학생이며 필답형식으로 수행되므로 문항이 다소 어렵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집단특성의 비교

대학생 설문조사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편의할당표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엄격한 실험통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실험연구이므로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 이전에 집단 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설문조사는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간 비교는 물론이고 선행 여론조사와의 비교를 위한 지표문항으로 통일의식을 묻는 <문1>, <문2>, <문5>를 준비한 바 있다. 특히 <문1>은 기본적인 통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가장 유용한 문항으로 이를 중심으로 대학생 설문조사에 포함된 3개 집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통제집단은 모집단인 대학생 전체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학생 전체집단은 별도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앞장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에서 20대만을 추출하여 두 집단 간 평균비교를 수행하였다. 20대를 추출한 이유는 국민의식조사 표본에서 20대의 대학재학 이상 ‘학력’과 ‘학생’인 집단만을 추출할 경우 유효사례수가 더 작아져 편의에 의한 왜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를 묻는 <문1>은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공히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평균 5에 가까울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아진다.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20대의 동 문항에 대한 평균은 3.30(표준편차 0.904)으로 남자가 3.33, 여자가 3.26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미세하게나마 더 공감하고 있으며 남녀 간 평균차는 0.07이다. 한편, 통제집단인 JA Korea의 경우 평균은 동일한 3.30(표준편차 1.059)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3.50, 여자가 3.20으로 남녀차가 0.30이다. 평균은 국민의식조사와 통제집단 모두 3.30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통제집단의 남녀 평균이 모두 높은 이유는 통제집단의 성비가 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즉, 통제집단은 남자 35%, 여자 65%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가진 여자의 평균이 더 크게 반영되었다. 두 집단 간 평균과 신뢰구간(CI)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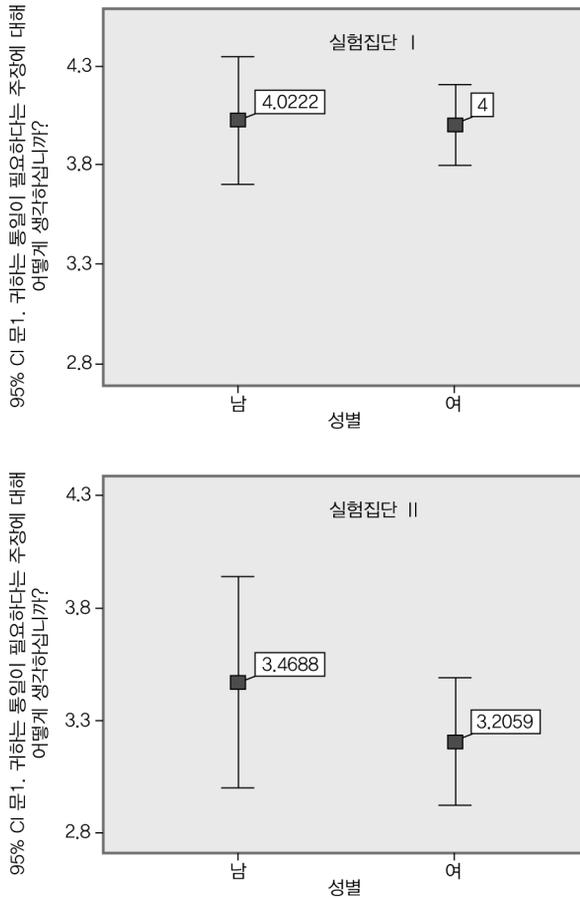
▮ 그림 III-2 ▮ 국민의식조사(대학생)와 대학생 설문조사(통제집단) 간 평균-신뢰구간 비교

위 그림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국민의식조사의 20대 평균과 통제집단 간 평균은 두 집단 공히 3.3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성별에 따른 평균차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즉, 남자의 경우 통제집단 평균이 다소 높고 여자의 경우 다소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신뢰구간을 볼 경우 국민의식조사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어 집단

간 균질성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식조사에 포함된 대학생의 응답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다양한 성향을 가진 남녀 대학생이 조사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의식조사에 포함된 대학생 집단은 113명에 불과하며 대학생 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유효표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생 집단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별도의 표본추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목적을 위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즉, 통제집단의 남녀 평균이 국민의식조사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양 평균 공히 국민의식조사의 신뢰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통제집단이 국민의식조사의 대학생 집단의 오차범위 이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제집단(JA Korea)의 평균이 높은 이유는 동 집단이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제위크숍에 참여한 관심집단(Attentive Group)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집단적 균일성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통제집단은 일반대학생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간주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집단-I은 약 3개월간 북한 및 통일분야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다. 실험집단-I의 평균은 4.01(표준편차 0.902)로 통제집단의 3.3과 비교할 때 0.7이라는 비교적 큰 평균차를 가지고 있다. 성별에 따른 평균은 남녀 각각 4.02와 4.0로 거의 동일하다. 국민의식조사에서 동 문항에 대한 20대 집단의 평균이 3.24이고 60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4.02임을 감안하면, 실험집단-I의 장기자극에 의한 태도변화의 크기는 기대 이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 신뢰구간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III-3 ■ 실험집단-I과 실험집단-II의 평균-신뢰구간 비교

실험집단-II의 경우 1회의 단기자극에 의한 사전사후조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사후조사 결과 <문1>에 대한 평균은 3.33(표준편차 1.072)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평균이 3.47, 여자는 3.21로 남자가 다소 높다. 이러한 사후조사 결과는 사전조사 평균 3.27보다 0.06점 개선된 것으로 실질적인 사전사후 조사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II의 각 평균값은 통제집단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며, 따라서 통제집

단과 실험집단-Ⅱ는 통계적으로 동일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험집단-Ⅱ에서 시행한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자극의 강도가 대폭 축소된 약식 공론조사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상적인 공론조사에서 요구되는 장시간의 자료제공, 토론, 전문가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소집단에 대한 짧은 시간의 강의만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사후 조사과정에서 실험집단-Ⅱ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미세하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태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즉, 강의 이후 통일에 대한 이해도 상승효과가 소수에 대해서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표설문(문1)에 의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Ⅱ에 대한 분석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간의 집단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두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또한 실험집단-Ⅱ의 경우 사전사후 조사의 통계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통제집단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Ⅱ와의 추가적인 비교는 무의미하므로 간략히 사전사후 조사의 차이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한다.

2. 조사결과분석

가.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일반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통제집단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47.9%(‘매우 공감한다’ 12.4% + ‘대체로 공감한다’ 35.5%)가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공감 정도는 국민의식조사 중 가장 낮았던 20대의 ‘공감한다’는 응답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공감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감한다’는 응답을 한 남성은 57.5%, 여성은 42.8%로 남성의 ‘공감’에 대한 응답이 현저하게 많다. 또한 통제집단의 여성 중 28.9%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 에 비해 유보적 태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 표 III-2 통일 필요성 공감 정도

문1.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2%	26.7%	2.0%	6.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3.5%		4.1%	
보통이다	25.5%		15.3%	
대체로 공감한다	35.5%	47.9%	48.0%	78.6%
매우 공감한다	12.4%		30.6%	

한편 3개월간 북한 및 통일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실험집단-I의 경우 동 문항에 대한 답변은 ‘공감’의 방향으로 크게 이동하였다. 실험집단-I 중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30.6%,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48%를 기록하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하다. 실험집단-I의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73%가 ‘공감’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통일에 적극적인 세대로 구분된 ‘60대 이상’ 일반국민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또한 통제집단의 성별에 따른 응답차와는 달리 실험집단-I의 경우 두 집단 간 응답차는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공감도가 미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교차분석

구 분	사례수 (명)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공감 한다	매우 공감 한다	종합			유의도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공감 한다	
전 체	(695)	3.0	20.7	24.0	37.3	15.0	23.7	24.0	52.2	
통제 집단	남성 (209)	5.3	18.2	19.1	36.4	21.1	23.5	19.1	57.5	$\chi^2 = 32.739$ $p = 0.000$
	여성 (388)	2.1	26.3	28.9	35.1	7.7	28.4	28.9	42.8	
	소계 (597)	3.2	23.5	25.5	35.5	12.4	25.7	25.5	47.9	
실험 집단 I	남성 (45)	4.4	4.4	15.6	35.6	40.0	8.8	15.6	75.6	$\chi^2 = 7.450$ $p = 0.114$
	여성 (53)	0	3.8	15.1	58.5	22.6	3.8	15.1	81.1	
	소계 (98)	2.0	4.1	15.3	48.0	30.6	6.1	15.3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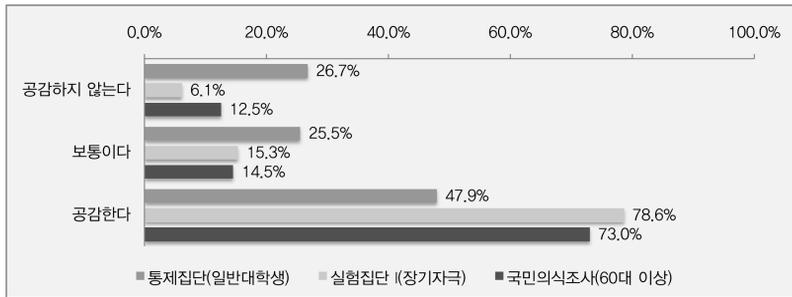


그림 III-4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통상적인 20대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통제집단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실험집단-I의 응답분포는 통제집단과 같은 연령대의 유사한 집단이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장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집단에 해당하는 여성 대학생의 경우 유보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8.9%의 유보적 태도는

적절한 통일관련 정보와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매우 용이할 수 있다.

나. 통일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통제집단 중 27.6%만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20년 이내(‘10년 이내’ 5%, ‘20년 이내’ 22.6%)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통일이 매우 먼 미래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선택항목이다. 통제집단 중 47.9%가 ‘30년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은 10명 중 다섯 명이 통일의 실현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반 대학생으로 이뤄진 통제집단의 통일 시기에 대한 응답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III-4 통일 가능 시기

문2.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10년 이내	5.0%	3.1%
20년 이내	22.6%	39.2%
30년 이내	24.5%	27.8%
30년 이상	47.9%	29.9%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실험집단-I은 통제집단보다 낮은 3.1%만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응답의 분포를 보면 실험집단-I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일이 더 가까운 시기에 발생하며 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인 42.3%에 달하며, ‘30년 이내’와 ‘30년 이후’는 각각 27.8%, 29.9%를 기록하였다. ‘30년 이후’의 응답이 통제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성별에 따라 통일 가능 시기의 평가가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성별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살펴본 <문1> 통일의 필요성과 본 문항인 통일 가능 시기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간략한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두 문항 모두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칭적 서열척도의 관계심도 통계인 감마(Gamma) 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통계집단은 감마값 -0.427($p=0.000$), 실험집단-I은 -0.416($p=0.001$)로 보통 정도의 역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공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 가능시기를 더 가까이 평가하는 경향이 다소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성은 상당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감마값으로 판단하건대 통일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가 통일의 실현 시기는 먼 미래의 일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표 III-5 통일 가능 시기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명)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전체	(694)	4.8	24.9	24.9	45.4
통제 집단	남성 (209)	6.2	26.3	23.0	44.5
	여성 (388)	4.4	20.6	25.3	49.7
	소계 (597)	5.0	22.6	24.5	47.9
통제 집단	남성 (44)	4.5	34.1	34.1	27.3
	여성 (53)	1.9	43.4	22.6	32.1
	소계 (97)	3.1	39.2	27.8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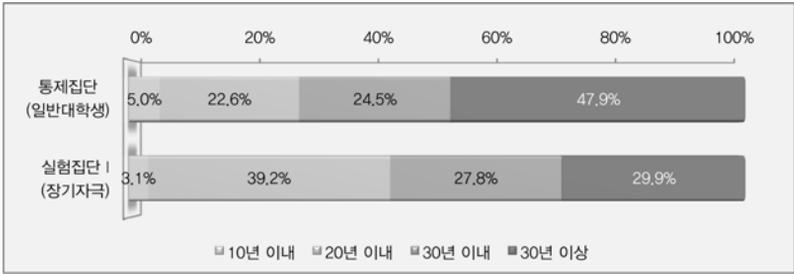


그림 III-5 통일 가능 시기

다.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

국민의식조사에서 선택형 문항으로 작성되었던 동 문항은 보다 세부적인 공감수준의 확인을 위해 7개 하위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 북한의 안보위협, 2)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3) 남한의 주식 저평가, 4) 남한의 국가신인도 하락, 5) 남북 간 교통단절, 6)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7)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분단이재민) 문제 등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I 공히 압도적 다수가 안보위협이 분단비용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대체로 두 집단의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은 분단이재민 문제와 소모적 남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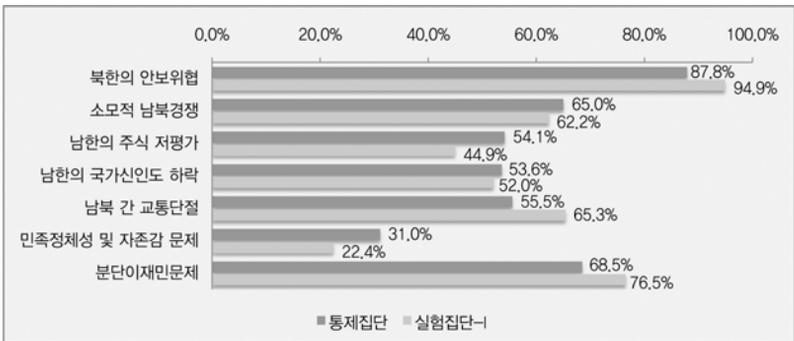


그림 III-6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

쟁을 다음으로 선택하였다. 분단비용 항목 중 민족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가 가장 낮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 북한의 안보위협

분단비용 항목 중 ‘북한의 안보위협’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가 ‘공감’에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공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의 87.8%에 비해 94.9%라는 높은 비율로 이 문항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동 문항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의 응답이 성별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뚜렷한 성별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III-6 북한의 안보위협

문3-1.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핵실험 및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안보위협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0%	3.5%		2.0%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5%		2.0%	
보통이다	8.9%		3.1%	
대체로 공감한다	49.7%	87.8%	44.9%	94.9%
매우 공감한다	37.9%		50.0%	

(2)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분단비용 항목 중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은 통제집단의 경우 65%, 실험집단-I의 경우 62.2%의 공감도(‘대체로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를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해 두 집단의 응답 분포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응답의 변화도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 통제집단에서 ‘공감하지 않는다’(13.8%)는 응답이 여성(7.5%)보다 다소 많았다. 두 집단 공히 ‘보통’이라는 중립적 응답이 20~30% 가량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 표 III-7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문3-2.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3%	9.7%	3.1%	11.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8.4%		8.2%	
보통이다	25.3%		26.5%	
대체로 공감한다	44.9%	65.0%	41.8%	62.2%
매우 공감한다	20.1%		20.4%	

(3) 남한의 주식 저평가

분단비용 항목 중 ‘남한의 주식 저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54.1%(‘매우 공감한다’ 18.3% + ‘공감한다’ 35.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험집단-I은 ‘공감한다’는 응답이 44.9%를 기록하였다. 이번 문항의 경우 실험집단-I이 오히려 통제집단보다 공감도가 낮게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공감도의 차이는 두 집단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본 문항은 소위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남한의 주식과 기업이 저평가되었다는 경험적 학술연구가 축적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학생의 인식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그러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물론이고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각각 29.5%,

33.7%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 III-8 남한의 주식 저평가

문3-3.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분단으로 인한 남한 주식 저평가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0%	16.4%	4.1%	21.4%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4.4%		17.3%	
보통이다	29.5%		33.7%	
대체로 공감한다	35.8%	54.1%	33.7%	44.9%
매우 공감한다	18.3%		11.2%	

(4)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분단비용 항목 중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한 문항은 위 남한의 주식 저평가와 연관되며 그 결과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통제집단 53.6%, 실험집단-I의 52%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문항 역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남한의 국가신인도가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두 등급 가량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설문에 포함되었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공히 반 수 가량이 ‘보통이다’ 또는 ‘공감하지 않는다’에 응답함으로써 이 문항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집단-I의 경우 성별에 따른 응답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통제집단의 경우 여성의 공감도가 남성에 비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 표 III-9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문3-4.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국가 신인도 하락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8%	15.7%		16.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3.9%		16.3%	
보통이다	30.6%		30.6%	
대체로 공감한다	37.1%	53.6%	41.8%	52.0%
매우 공감한다	16.5%		11.2%	

● 표 III-10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공감 한다	매우 공감 한다	종합			유의도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공감 한다	
전 체	(693)	1.6	14.3	30.6	37.8	15.7	15.9	30.6	53.5	
통제 집단	남성 (208)	1.4	10.1	27.4	38.5	22.6	11.5	27.4	61.1	$\chi^2 = 12.185$ $p = 0.016$
	여성 (387)	2.1	16.0	32.3	36.4	13.2	18.1	32.3	49.6	
	소계 (595)	1.8	13.9	30.6	37.1	16.5	15.7	30.6	53.6	
실험 집단 I	남성 (45)		13.3	33.3	42.2	11.1	13.3	33.3	53.3	$\chi^2 = 0.662$ $p = 0.882$
	여성 (53)		18.9	28.3	41.5	11.3	18.9	28.3	42.8	
	소계 (98)		16.3	30.6	41.8	11.2	16.3	30.6	53.0	

(5) 남북 간 교통단절

분단비용 항목 중 ‘남북 간 교통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실험집단-I이 통제집단에 비해 약 10%포인트 가량 높은 공감 정도를 보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55.5%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립적 응답은 31.9%로

비교적 큰 편이다. 실험집단-I의 경우 65.3%가 ‘공감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분단비용의 각 항목 중 안보위협, 분단이재민 문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공감도이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간의 응답분포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제집단이 실험집단-I에 비해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태도가 많고 ‘공감한다’는 답변이 적기 때문이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공히 성별에 따른 응답분포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 표 III-11 남북 간 교통단절

문3-5.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육로를 통한 남북 교통단절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5%	12.6%		11.2%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1.1%		11.2%	
보통이다	31.9%		23.5%	
대체로 공감한다	40.2%	55.5%	43.9%	65.3%
매우 공감한다	15.3%		21.4%	

(6)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대체로 낮은 연령대의 경우 민족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크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분단비용으로서 ‘민족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본 문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공통적으로 7개의 분단비용 항목 중 본 문항에 대해 가장 낮은 공감 정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두 조사집단 공히 ‘공감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이 ‘공감한다’라는 응답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단비용으로 알려진 7개 문항에 대한 조사 중 가장 예외적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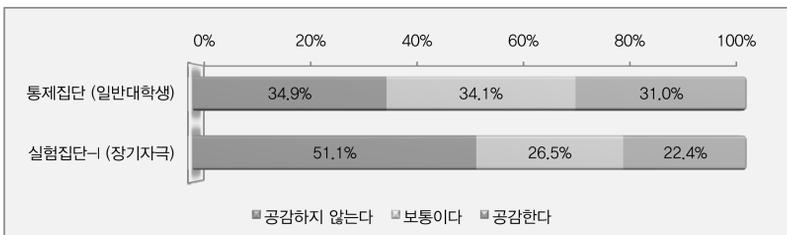
● 표 III-12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문3-6.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분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존심 감퇴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7.2%	34.9%	8.2%	51.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7.7%		42.9%	
보통이다	34.1%		26.5%	
대체로 공감한다	21.1%	31.0%	15.3%	22.4%
매우 공감한다	9.9%		7.1%	

즉, 대학생 집단 전체가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장래 통일에 당면하였을 때 공동체 형성의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분단비용이 통일이 되지 못함으로써 상실하게 된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과 분단비용으로 상정된 항목들이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 얻게 될 ‘편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본 문항에 내재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단비용에 대한 공감이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통일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선 문항 중 안보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았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얻게 될 동일 분야의 편익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족정체성’ 또는 ‘민족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본 문항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점은 장래 통일이 현실화되었을 때 ‘공동체 형성’의 과제가 원만히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가 통일한국의 커다란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 시기의 주도세대를 담당하게 될 대학생 집단에 대한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중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학생으로 구성된 통제집단은 ‘공감하지 않는다’ 34.9%, ‘보통이다’ 34.1%, ‘공감한다’ 31%로 응답하였다. 반면 3개월간 북한 및 통일 분야를 수강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실험집단-I의 경우 각각 51.1%, 26.5%, 22.4%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대체로 실험집단-I의 경우 본 설문 조사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제집단보다 긍정 또는 공감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본 항목의 경우 그 반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51.1%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동질감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정을 가능하게 하며 후속연구의 새로운 연구주제로 제시될 수 있다. 중립적 응답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이 각각 34.1%, 26.5%로 상당히 큰 편이다. 성별에 따른 응답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III-7 ■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7)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분단비용 항목 중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분단이재민에 대한 사항에 대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공히 매우 높은 공감 정도를 표출하였다. 본 문항은 7개 분단비용 항목 중 ‘안보위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공감 정도를 보인 문항이다. 통제집단은 68.5%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7.3%에 불과하다. 실험집단-I의 경

우 공감의 수준은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공감한다’에 76.5%, ‘공감하지 않는다’에 5.1%가 응답하였다.

● 표 III-13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문3-7.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0.8%	7.3%	2.0%	5.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6.5%		3.1%	
보통이다	24.2%		18.4%	
대체로 공감한다	45.5%	68.5%	51.0%	76.5%
매우 공감한다	23.0%		25.5%	

실험집단-I이 통제집단보다 더 큰 공감대를 표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포형태는 분단이재민이 매우 큰 분단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통계적 분포의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항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의 수준이 미세하게나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통일기대 항목별 공감 정도

통일기대는 1) 안보위협 해소, 2) 국제적 위상 향상, 3)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분단이재민) 문제 해결, 4) 경제적 기회의 확대, 5) 남북간 자유왕래, 6) 민족 동질성 회복, 7) 분단스트레스 해소의 7개 하위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분단비용과 마찬가지로 7개 하위항목 중 안보위협 해소가 가장 큰 통일기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단이재민 문제 해결이 그 뒤를 이었

다. 분단비용과 하위문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항목의 경우 분단비용의 답변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단비용이 통일기대(편익)가 될 수 있다는 가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이 공히 안보위협 해소, 분단이재민 해결, 국제적 위상 향상,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주요한 통일기대로 보았으며,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분단스트레스 해소 등의 항목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식조사에서 사용된 항목과 대비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제집단은 안보위협 해소, 분단이재민 해결, 경제적 기회의 확대, 국제적 위상 향상, 남북 간 자유왕래, 민족 동질성 회복, 분단스트레스 해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실험집단-I의 경우 국제적 위상의 향상을 매우 큰 편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7개 항목 중 3위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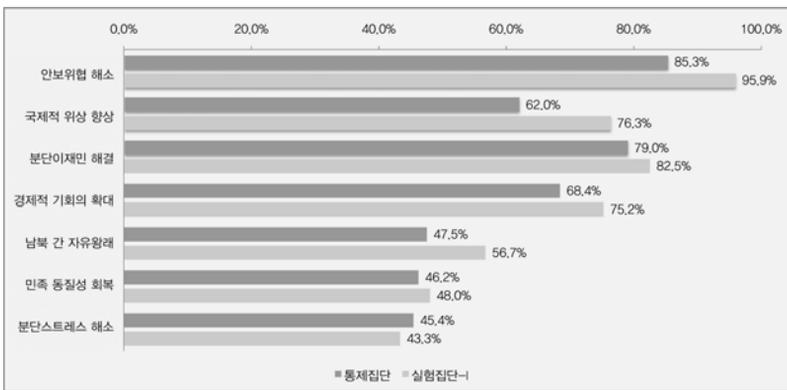


그림 III-8 통일기대 항목별 공감 정도

(1) 안보위협 해소

통일기대 항목 중 ‘안보위협 해소’는 <문3>의 분단비용 문항의 하위 문항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극단

적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공감한다’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문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I이 안보위협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은 편이다. 통제집단은 ‘공감한다’에 85.3%, ‘보통이다’에 12.4%,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에 2.3%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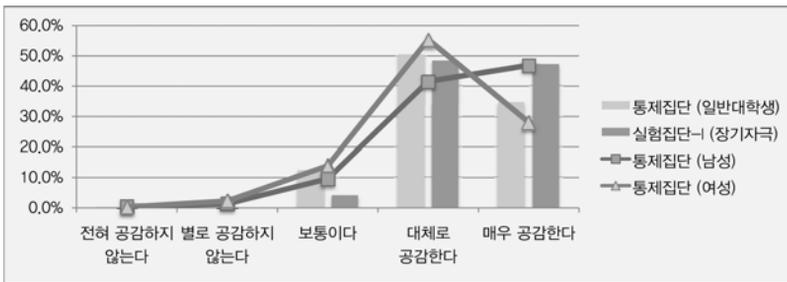
● 표 III-14 안보위협 해소

문4-1. 귀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쟁 방지와 안보불안의 해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0.3%	2.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0%			
보통이다	12.4%		4.1%	
대체로 공감한다	50.6%	85.3%	48.5%	95.9%
매우 공감한다	34.7%		47.4%	

● 표 III-15 안보위협 해소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공감 한다	매우 공감 한다	종합			유의도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공감 한다	
전 체	(694)	0.3	1.7	11.2	50.3	26.5	2.0	11.2	76.8	
통제 집단	남성 (209)	0.5	1.4	9.6	41.6	46.9	1.9	9.6	88.5	$\chi^2 = 21.742$ $p = 0.000$
	여성 (387)	0.3	2.3	13.9	55.4	28.1	2.6	13.9	83.5	
	소계 (595)	0.3	2.0	12.4	50.6	34.7	2.3	12.4	85.3	
실험 집단 I	남성 (45)			2.3	38.6	59.1		2.3	97.7	$\chi^2 = 4.583$ $p = 0.101$
	여성 (53)			5.7	56.6	37.7		5.7	94.3	
	소계 (98)			4.1	48.5	47.4		4.1	95.9	

본 문항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집단 모두 남성이 ‘매우 공감한다’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응답분포가 다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통제집단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다만 카이제곱 검정에 따르면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만 유의수준을 만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험집단-I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의 셀이 공란이기 때문이다. 5점 척도 상에서 남녀의 선호도 차이는 아래 그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Ⅲ 그림 Ⅲ-9 Ⅲ 안보위협 해소

(2) 국제적 위상 향상

통일기대 항목 중 ‘국제적 위상 향상’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간 격차가 가장 큰 문항이다. 통제집단은 62%가 ‘공감한다’, 27%가 ‘중립’, 11.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반해 실험집단-I은 76.3%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공감’ 응답만을 볼 경우 14.3%라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인다. 통제집단은 ‘국제적 위상 향상’을 7개 항목 중 제4위로 선택하였으나, 실험집단-I은 제3위로 선택하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응답분포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 표 III-16 국제적 위상 향상

문4-2. 귀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향상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7%	11.1%		4.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4%		4.1%	
보통이다	27.0%		19.6%	
대체로 공감한다	39.3%	62.0%	45.4%	76.3%
매우 공감한다	22.7%		30.9%	

(3)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통일기대 항목 중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분단이재민) 문제 해결’ 등 분단이재민에 대한 사항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두 번째로 중요한 통일기대 하위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79%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실험집단-I의 82.5%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표 III-17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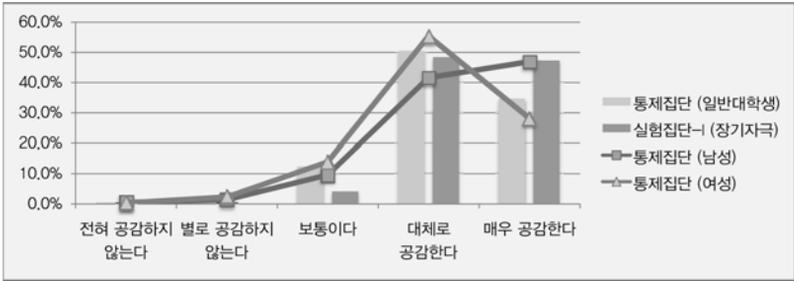
문4-3. 귀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0.3%	3.5%	1.0%	4.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2%		3.1%	
보통이다	17.4%		13.4%	
대체로 공감한다	46.3%	79.0%	52.6%	82.5%
매우 공감한다	32.7%		29.9%	

(4) 경제적 기회의 확대

통일기대 항목 중 ‘경제적 기회의 확대’는 통제집단의 경우 제3위, 실험집단-I은 제4위를 차지하였다. 통제집단은 68.4%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1.4%가 ‘보통이다’, 10.2%가 ‘공감하지 않는다’에 선택하였다. 실험집단-I의 경우 75.2%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실험집단-I의 공감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안보위협 해소’와 마찬가지로 통제집단의 경우 남성은 ‘매우 공감한다’에 다수가 답변하고, 여성은 ‘대체로 공감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카이제곱검정에서도 통제집단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험집단-I은 성별과 무관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래 도표는 이러한 통제집단의 응답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 양상은 위에서 다룬 ‘안보위협 해소’와 거의 동일하다.

표 III-18 경제적 기회의 확대

문4-4. 귀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제적 기회의 확대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0%	10.2%	1.0%	7.2%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8.2%		6.2%	
보통이다	21.4%		17.5%	
대체로 공감한다	38.9%	68.4%	47.4%	75.2%
매우 공감한다	29.5%		27.8%	



Ⅲ-10 경제적 기회의 확대

(5) 남북 간 자유왕래

통일기대 항목 중 ‘남북 간 자유왕래’는 비교적 낮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하위문항이다. 통제집단은 47.5%가 ‘공감한다’를 선택하였으며, ‘보통이다’에 37%, ‘공감하지 않는다’에 15.4%가 응답하였다. 실험집단-I은 이에 비해 다소 높은 56.7%가 ‘공감한다’, 35.1%가 ‘보통이다’, 8.2%가 ‘공감하지 않는다’를 선택하였다. 남녀 성별에 따른 응답차는 거의 없다.

표 III-19 남북 간 자유왕래

문4-5. 귀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북한 지역의 자유왕래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2%	15.4%		8.2%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2.2%		8.2%	
보통이다	37.0%		35.1%	
대체로 공감한다	34.8%	47.5%	34.0%	56.7%
매우 공감한다	12.7%		22.7%	

<문3> 분단비용 항목 중 ‘남북 간 교통단절’의 경우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I의 ‘공감한다’ 응답률은 각각 55.5%, 65.3%였다. 거의 동일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교통단절’이 ‘남북 간 자유왕래’에 비해 각각 8%포인트와 8.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이유에 대한 잠정적 평가를 하자면, ‘남북 간 교통단절’이 남북 간 자유왕래 뿐만 아니라 물류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두 대학생 집단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보다는 ‘방문과 교통연결’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6)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기대 항목 중 ‘민족 동질성 회복’ 역시 <문3> 분단비용의 하위항목에서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라는 주제로 다루었다. 본 하위문항은 통일기대 하위항목 중 ‘분단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가장 낮은 공감 정도를 보이고 있는 문항이다. 통제집단은 46.2%가 ‘공감한다’, 36.2%가 ‘보통이다’, 17.6%가 ‘공감하지 않는다’에 응답하였다. 실험집단-I의 경우 ‘공감한다’에 대한 응답이 48%에 달해 미세하나마 통제집단보다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중립적인 자세라 할 수 있는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36.2%, 36.5%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유보적 태도가 상당히 클 경우 적절한 자극을 통한 태도변화가 용이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두 집단 모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통제집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공감도가 높은 편이며 카이제곱검정 결과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문항이 통일기대로서는 큰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문3> 분단비용의 하위문항에서 제시된 ‘민족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와 비교할 경우 급격한 공감 정도의 상승이 발견된다. 통제집단의 경우 분단비용으로서의 ‘민족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는 31%였음에 반해 통일기대에서의 ‘민족 동질성 회복’은 46.2%로 15.2%의 공감도 상승이 이뤄졌다. 실험집단-I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커져 두 문항 간 ‘공감한다’의 응답차이가 25.6%포인트(분단비용 22.4% - 통일기대 48%)에 달한다. 여전히 ‘민족 동질성 회복’의 공감 정도는 낮은 편이지만 통일기대라는 측면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단비용과 통일기대에서의 ‘민족 동질성 회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가는 <그림 III-11>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실선으로 표시된 분단비용은 전체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의 분포가 크게 나타난 반면, 통일기대에서의 막대도표는 비교적 우측에 치우쳐 있다. 또한 모든 도표가 ‘보통이다’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표시되고 있다.

●표 III-20 민족 동질성 회복

문4-6. 귀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0%	17.6%	3.1%	15.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3.6%		12.5%	
보통이다	36.2%		36.5%	
대체로 공감한다	31.4%	46.2%	36.5%	48.0%
매우 공감한다	14.8%		11.5%	

표 III-21 민족 동질성 회복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공감 한다	매우 공감 한다	종합			유의도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공감 한다	
전체	(692)	3.9	13.4	36.3	32.1	14.3	17.3	36.3	36.4	
통제 집단	남성 (208)	5.3	13.9	32.7	27.4	20.7	19.2	32.7	48.1	$\chi^2 = 11.562$
	여성 (388)	3.4	13.4	38.1	33.5	11.6	16.8	38.1	45.1	
	소계 (596)	4.0	13.6	36.2	31.4	14.8	17.6	36.2	46.2	
실험 집단 I	남성 (43)	2.3	14.0	34.9	34.9	14.0	16.3	34.9	48.9	$\chi^2 = 0.820$ $p = 0.936$
	여성 (53)	3.8	11.3	37.7	37.7	9.4	15.1	37.7	47.1	
	소계 (96)	3.1	12.5	36.5	36.5	11.5	13.6	36.5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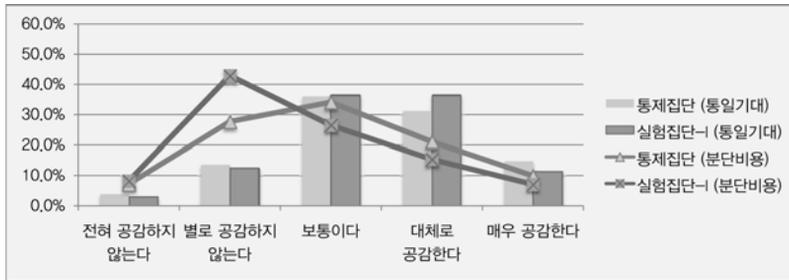


그림 III-11 민족 동질성 회복

(7) 분단스트레스 해소

본 문항은 분단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7개 통일기대 항목 중 가장 낮은 공감 정도를 보이고 있다. 통제집단은 45.4%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는 32%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실험집단-I의 분포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43.3%, ‘보통이다’는 35.1%가 답변했다. ‘분단스트레스 해소’라는 문항에 대한 공감 정도가

낮은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본 문항은 안보, 경제, 이산가족 등 비교적 구체적인 통일기대와 달리 매우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대학생들은 그러한 측면의 문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공감대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현재 대학생이 분단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보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단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느끼게 될 분단스트레스 해소에 의한 효과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표 III-22 분단스트레스 해소

문4-7. 귀하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의 해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7%	22.6%	4.1%	21.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7.9%		17.5%	
보통이다	32.0%	45.4%	35.1%	43.3%
대체로 공감한다	32.5%		32.0%	
매우 공감한다	12.9%		11.3%	

마. 북한에 대한 인식

본 문항은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를 묻는 <문1> 및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문2>와 더불어 통일관련 의식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문항이다. 통상적으로 선택항목 중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거의 채

택되지 않는 편이며, ‘협력대상’과 ‘관리대상’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추이에 따라 ‘적대대상’의 등락이 매우 극심하게 이뤄지며, 이에 따라 다른 선택항목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 표 III-23 북한에 대한 인식

문5. 귀하는 다음 중 북한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지원대상	12.6%	지원대상	9.2%
협력대상	34.0%	협력대상	37.8%
경쟁대상	1.0%	경쟁대상	2.0%
관리대상	34.8%	관리대상	39.8%
적대대상	17.6%	적대대상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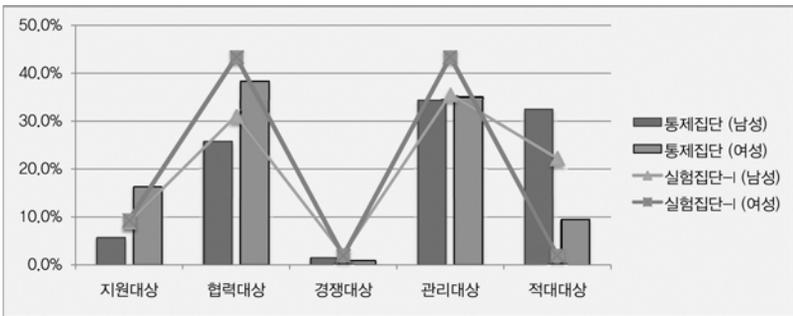
통제집단의 경우 ‘관리대상’(34.8%)과 ‘협력대상’(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30.2%는 ‘적대대상’과 ‘지원대상’을 선택하였다. 실험집단-I의 경우 응답의 비중은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우선순위는 거의 동일하였다. ‘관리대상’(39.8%)과 ‘협력대상’(37.8%)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적대대상’(11.2%)과 ‘지원대상’(9.2%)이 그 뒤를 이었다.

두 집단을 성별과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랐다. 통제집단의 경우 남성은 32.5%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은 5.7%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여성은 ‘지원대상’(16.2%)과 ‘협력대상’(38.4)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험집단의 경우도 남성은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응답이 22.2%로 여성의 1.9%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집

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카이제곱 유의수준을 0.05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

●표 III-24 북한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구 분		사례수 (명)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관리 대상	적대 대상	유의도
전체		(695)	12.1	34.5	1.2	35.5	16.7	
통제 집단	남성	(209)	5.7	25.8	1.4	34.4	32.5	$\chi^2 = 59.678$ p=0.000
	여성	(388)	16.2	38.4	0.8	35.1	9.5	
실험 집단	남성	(45)	8.9	31.1	2.2	35.6	22.2	$\chi^2 = 10.336$ p=0.035
	여성	(53)	9.4	43.4	1.9	43.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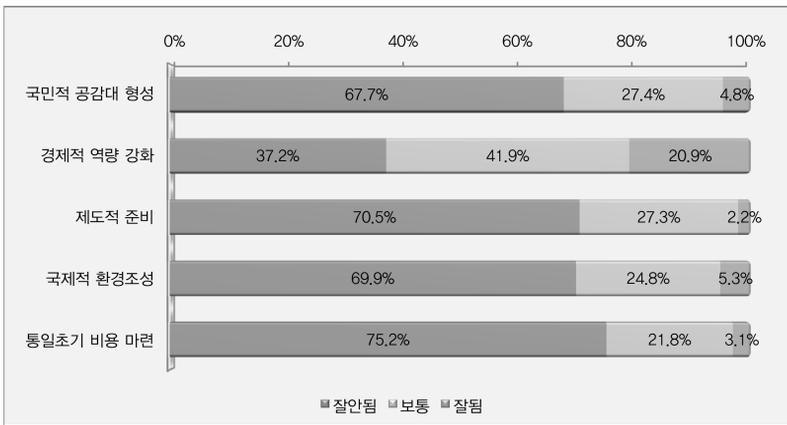
Ⅱ 그림 III-12 Ⅱ 북한에 대한 인식

바. 남한의 항목별 통일준비 정도

남한의 통일준비 정도에 대해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경제적 역량 강화, 3) 제도적 준비, 4) 국제적 환경 조성, 5) 통일초기 조기안정비용 마련의 다섯 가지 하위항목을 조사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공히 모든 통일준비 항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남한

의 경제적 역량을 제외한 4개 하위항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제도적 준비에 대해서는 2.2%만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평가하였다. 남한의 경제역량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으나 여전히 부정적 응답 37.2%에 비해 상당히 낮은 20.9%에 불과하다. 실험집단-I의 경우 통일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은 통제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를 법제화하여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본 문항은 국제적 환경 조성을 제외한 전 하위문항이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전반적 응답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 그림 III-13 ■ 남한의 항목별 통일준비 정도(통제집단)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한의 항목별 통일준비 정도 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은 67.7%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하다.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경향은 더 커지고 있다. 76.6%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 되고 있다’는 평가는 2%에 그치고 있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성별에 따른 평가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남성의 경우 ‘매우 잘 안 되고 있다’를 선택하는 경향이 여성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5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6-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11.8%	67.7%	13.3%	76.6%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	55.9%		63.3%	
보통이다	27.4%		21.4%	
대체로 잘 되고 있다	4.5%	4.8%	2.0%	2.0%
매우 잘 되고 있다	0.3%			

(2) 경제적 역량 강화

‘경제적 역량 강화’의 경우 통일 준비 하위항목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답변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부정적 응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통제집단은 ‘잘 되고 있다’에 대해 20.9%, ‘안 되고 있다’에 37.2%로 응답하였다. 실험집단-I

의 응답분포는 통제집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 응답 20.4%, 부정적 응답 38.8%를 기록하였다. 경제적 역량에서 주목할 점은 두 집단이 각각 41.9%, 40.8%의 높은 비율로 유보적 응답인 ‘보통이다’에 응답한 것이다. 두 집단의 성별과의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6 경제적 역량 강화

문6-2.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남한의 경제적 역량 강화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7.1%	37.2%	9.2%	38.8%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	30.1%		29.6%	
보통이다	41.9%		40.8%	
대체로 잘 되고 있다	19.7%	20.9%	19.4%	20.4%
매우 잘 되고 있다	1.2%		1.0%	

(3) 제도적 준비

정부의 ‘제도적 준비’에 대해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은 70.5%가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은 더 부정적이다. 82.6%가 ‘안 되고 있다’에 응답하여 통제집단 보다 약 12% 이상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7 제도적 준비

문6-3.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정부의 제도적 통일 준비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19.6%	70.5%	30.6%	82.6%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	50.9%		52.0%	
보통이다	27.3%		17.3%	
대체로 잘 되고 있다	2.0%	2.2%		
매우 잘 되고 있다	0.2%			

(4) 국제적 환경조성

국제환경 역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제집단의 69.9%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실험집단-I은 이 보다 더 부정적인 81.6%를 기록하였다. 실험집단-I은 앞서 제도적 준비에 대해 단 한 명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국제환경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실험집단-I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본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분포의 특징은 거의 유사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표 III-28 국제적 환경조성

문6-4.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통일에 대한 우호적 국제 환경조성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0.1%	69.9%	34.7%	81.6%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	49.8%		45.9%	
보통이다	24.8%		19.4%	
대체로 잘 되고 있다	5.1%	5.3%		
매우 잘 되고 있다	0.2%			

(5) 통일초기 조기안정비용 마련

정부는 통일 이후 남북 간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재원과 기금을 결합하여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부정적인 태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본 문항에서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에서 각각 3.1%와 0%라는 점은 정책홍보와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은 통제집단이 75.2%, 실험집단-I이 82.5%를 기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응답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29 통일 초기 조기안정비용 마련

문6-5.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조기 안정을 위한 비용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3.8%	75.2%	35.1%	82.5%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	51.4%		47.4%	
보통이다	21.8%	3.1%	17.5%	
대체로 잘 되고 있다	2.9%			
매우 잘 되고 있다	0.2%			

사.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동 문항은 ‘통일부담’ 또는 ‘통일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4

개의 선택문항 중 ‘경제격차’와 ‘가치관 차이’가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기록하였다. 앞장에서 검토한 국민의식조사에서 20대는 전체 여론에 비해 가치관보다는 경제문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본 문항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은 ‘남북주민 간 경제격차’(43.4%)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였다. ‘가치관 차이’도 33%라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채택되었다.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의 경우 대조적인 응답분포를 보인다. 38.8%가 ‘가치관 차이’를 우선적 문제로 뽑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인 37.8%가 ‘경제격차’를 들었다. 나머지 두 개의 장애요인으로 제시된 ‘신뢰부족’과 ‘북한주민의 부적응’은 두 집단의 응답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험집단-I이 일반대학생의 응답분포와 상이한 우선순위를 나타낸 이유는 여성 응답자의 태도차이 때문이다. 표 III-30에 의하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가치관 차이’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집단-I의 경우 여성 41.5%가 ‘가치관 차이’를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경제격차’는 35.8%를 기록하였다.

●표 III-30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문7. 귀하는 통일이후 민족통합의 완성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 (장기자극집단)
남북주민 간 신뢰부족	14.2%	14.3%
남북주민 간 경제격차	43.4%	37.8%
남북주민 간 가치관 차이	33.0%	38.8%
북한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	9.4%	9.2%

표 III-31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남북 주민 간 신뢰부족	남북 주민 간 경제격차	남북주민 간 가치관 차이	북한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
전체		(695)	14.2	42.6	33.8	9.4
통제 집단	남성	(209)	16.3	46.4	29.7	7.7
	여성	(388)	13.1	41.8	34.8	10.3
실험 집단-I	남성	(45)	11.1	40.0	35.6	13.3
	여성	(53)	17.0	35.8	41.5	5.7

아.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본 문항은 바람직한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활용하고 이를 통일기대와 연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민주주의 주도국가’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집단의 경우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은 ‘세계경제 주도국가’에 34.8%, ‘세계평화 주도국가’에 30.1%가 응답하였다. 실험집단-I의 우선순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실험집단-I의 경우 ‘세계경제 주도국가’에 대한 응답이 4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의 변동은 없다. 다만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계평화 주도국가’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에 대해 개방형 선택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35개의 유효응답이 있었으며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통일 이후 10년차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떤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며, 또 다른 답변은 여전히 경제 불안과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표 III-32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문8. 통일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통일 후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 (일반대학생)	실험집단-I (장기자극집단)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국가	30.1%	29.2%
G8 수준의 세계경제 주도국가	34.8%	49.0%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국가	17.2%	8.3%
친환경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	3.5%	1.0%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	9.5%	6.2%
기타	4.9%	6.2%

●표 III-33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	친환경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	기타
전체		(688)	29.9	36.8	16.0	3.2	9.0	5.1
통제 집단	남성	(207)	27.5	39.6	15.9	3.9	7.2	5.8
	여성	(385)	31.4	32.2	17.9	3.4	10.6	4.4
실험 집단-I	남성	(44)	20.5	56.8	11.4	0	6.8	4.5
	여성	(52)	36.5	42.3	5.8	1.9	5.8	7.7

자.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문8>에서 다루었던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과 연계하여 어떤 방식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홍보할 것인가를 설문하였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은 34.7%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선택하였으며, ‘정보 공개’와 ‘교과과정 반영’이 각각 24.8%와 23.3%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 가상 체험관’에 대한 응답도 15.6%에 달한다. 한편, 실험집단(장기자

극집단)의 경우 우선순위와 비중이 상이하다. ‘교과과정 반영’이 38.1%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36.1%)가 선택되었다. ‘정보공개’와 ‘가상 체험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분 문항과 성별을 교차분석 한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 여성은 ‘정보공개’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남성보다 낮으며 대신 ‘가상 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실험집단-I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응답비율이 거의 동일했다.

표 III-34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문9. 귀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 (장기자극집단)
교과 과정에 반영	23.3%	38.1%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34.7%	36.1%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24.8%	20.6%
북한 가상 체험관 활용	15.6%	5.2%
기타	1.5%	

표 III-35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교과 과정에 반영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	기타	유의도
전체	(693)	25.4	34.9	24.2	14.1	1.3	
통제 집단							$\chi^2 = 20.243$ $p = 0.000$
남성	(208)	23.6	33.2	31.7	8.7	2.9	
여성	(388)	23.2	35.6	21.1	19.3	0.8	
실험 집단-I							$\chi^2 = 0.325$ $p = 0.955$
남성	(44)	38.6	34.1	22.7	4.5		
여성	(53)	37.7	37.7	18.9	5.7		

차.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에 대해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는 응답은 71.9%(‘부담이 훨씬 더 크다’ 32.9% + ‘부담이 조금 더 크다’ 39%)로 나타났으며,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16.5%(‘기대가 훨씬 더 크다’ 6.2% + ‘기대가 조금 더 크다’ 10.3%)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1.6%이다. 통제집단은 통일부담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은 여전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55.1%이며, ‘비슷하다’는 11.2%를 차지했다. 통일의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은 통제집단의 응답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33.7%였다.

●표 III-36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문10.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일로 인한 부담과 통일로 인한 기대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부담이 훨씬 더 크다	32.9%	71.9%	18.4%	55.1%
부담이 조금 더 크다	39.0%		36.7%	
비슷하다	11.6%		11.2%	
기대가 조금 더 크다	10.3%	16.5%	20.4%	33.7%
기대가 훨씬 더 크다	6.2%		13.3%	

두 비교집단 공히 성별에 따라 통일의 부담과 기대에 대한 평가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카이제곱 검정에서 유의수준 0.05를 만족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일

기대’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관계의 심도는 그리 크지 않다(각각 감마 -0.173, -0.097). 그러나 ‘기대가 훨씬 더 크다’라는 선택 항목 만을 비교할 경우 통제집단의 경우 11.6% 대 3.4%, 실험집단-I의 경우 22.2% 대 5.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II-37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부담이 조금 더 크다	비슷 하다	기대가 조금 더 크다	기대가 훨씬 더 크다	종합			유의도
							부담이 크다	비슷 하다	기대가 크다	
전체	(691)	30.8	38.6	11.6	11.7	7.2	69.5	11.6	19.0	
통제 집단	남성 (207)	30.0	34.3	13.0	11.1	11.6	64.3	13.0	22.7	$\chi^2 = 17.966$ $p = 0.001$
	여성 (386)	34.5	41.5	10.9	9.8	3.4	76.0	10.9	13.2	
실험 집단-I	남성 (45)	17.8	40.0	2.2	17.8	22.2	57.8	2.2	40.0	$\chi^2 = 11.579$ $p = 0.021$
	여성 (53)	18.9	34.0	18.9	22.6	5.7	52.9	18.9	28.3	

카.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두 비교 집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의 경우 통일 전후로 40.48% 대 59.52%의 지출평균이 계산되었고,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의 경우 41.57 대 58.43이다. ‘통일비용의 지출비중’은 다음 문항 <문12> 통일 과정과 방식과 연계하여 국민이 어떤 유형의 통일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남한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준이다. 약 46으로 통일이전과 통일이후의 비용지출 비중이 측정되었는데 이를 단순한 수치로 읽을 경우 통일 후

비용지출이 다소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비용 지출이 대규모의 본격적인 형태로 수행될 것을 감안할 경우 약 40%의 통일 이전 비용지출이라는 평균값을 통해 대학생 상당수가 통일 이전의 비용지출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문12>에서 통일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있는 답변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III-38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문11.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일을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통일 전, 통일 이후 지출 비중을 어느 정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통일 전(평균/표준편차)	40.48%(16.399)	41.57%(15.689)
통일 후(평균/표준편차)	59.52%(16.399)	58.43%(15.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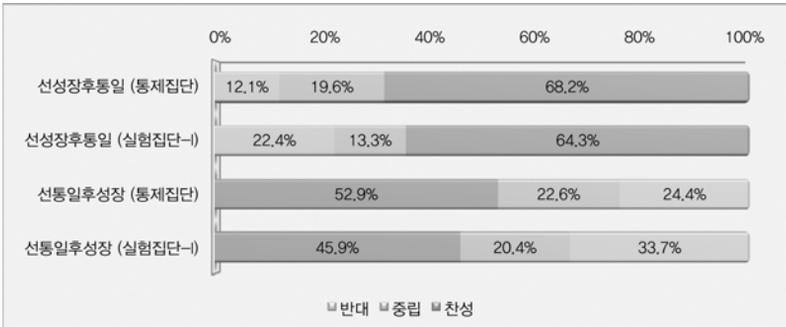


Ⅱ 그림 III-14 Ⅱ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타.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혹은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등의 통일 과정과 방식은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과 관련된 중요한 설문이다. 위의 <문11>과 연관한 본 문항은 응답일관성 추정

위해 순서가 치환된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문항에서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통일 이전에 대한 비용지출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본 문항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대학생은 우선 북한이 경제성장을 한 뒤 통일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우선 통일한 뒤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 그림 III-15 ■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과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1)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에 대해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은 68.2%가 찬성하고 12.1%가 반대하였다. 이에 비해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은 찬성 64.3% 대 반대 22.4%로 다소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압도적으로 이 통일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실험집단-I의 경우 차이가 없으나 통제집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방식을 미세하나마 더 선호하고 있다(감마 0.175).

●표 III-39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문12-1.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한 뒤 통일한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반대	3.0%	12.1%	5.1%	22.4%
다소 반대	9.1%		17.3%	
보통	19.6%		13.3%	
다소 찬성	47.1%	68.2%	51.0%	64.3%
매우 찬성	21.1%		13.3%	

(2)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문항 간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순의 통일방식, 즉,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의 방식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의 경우 찬성 대 반대는 각각 24.4% 대 52.9%로 반대가 압도적이다.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의 경우는 33.7% 대 45.9%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에 비해 찬성이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 비율이 낮아졌다.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의 설문문항과 완전히 도치된 문항임에도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문항에서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 응답태도와 해당 문항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두 집단의 통일방식은 매우 압도적으로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이라는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하고 있다.

성별과 본 문항을 교차분석 한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반대’로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은 찬성의 비중이 높았다.

● 표 III-40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문12-2. 우선 통일하고 경제격차를 줄인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반대	17.5%	52.9%	14.3%	45.9%
다소 반대	35.4%		31.6%	
보통	22.6%		20.4%	
다소 찬성	19.7%	24.4%	27.6%	33.7%
매우 찬성	4.7%		6.1%	

파. 통일비용과 통일재원

통일비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통일재원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관된 2개의 하위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은 일반대학생으로 구성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간의 인식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반대에 비해 압도적인 찬성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미래 통일주도 세대의 시각이 대단히 고무적임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일재원의 필요성에 더 많은 찬성 비중을 두고 있으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은 뚜렷한 분포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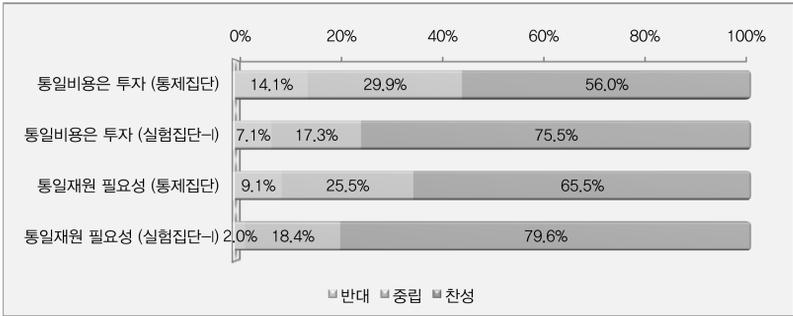


그림 III-16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에 대한 인식

(1)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제집단은 찬성 56.0%대 반대 14.1%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비중은 앞서 살펴본 의식조사의 20대와 거의 동일한 결과이며 전체 세대 중 낮은 편에 해당한다. 실험집단-I의 경우 통일비용의 투자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일반 대학생으로 이뤄진 통제집단과 확연히 구분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찬성은 약 20%포인트가 높은 75.5%이며 반대는 7.1%에 불과하다. 실험집단-I의 응답분포는 의식조사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40대보다 높은 분포이다.

성별에 따른 변화를 교차분석한 결과 통제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다소 존재하며 실험집단-I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통일비용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으며,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은 53.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III-41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문13.1. 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반대	3.5%	14.1%		7.1%
다소 반대	10.6%		7.1%	
보통	29.9%		17.3%	
다소 찬성	46.1%	56.0%	52.0%	75.5%
매우 찬성	9.9%		23.5%	

표 III-42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종합			
							반대	보통	찬성	
전 체	(694)	3.0	10.1	28.1	47.0	11.8	13.1	28.1	58.8	
통제 집단	남성	(208)	5.8	9.1	25.0	47.1	13.0	14.9	25.0	60.1
	여성	(288)	2.3	11.3	32.5	45.6	8.2	13.6	32.5	53.8
실험 집단-I	남성	(45)		3.8	20.8	49.1	26.4	3.8	20.8	75.5
	여성	(53)		11.1	13.3	55.6	20.0	11.1	13.3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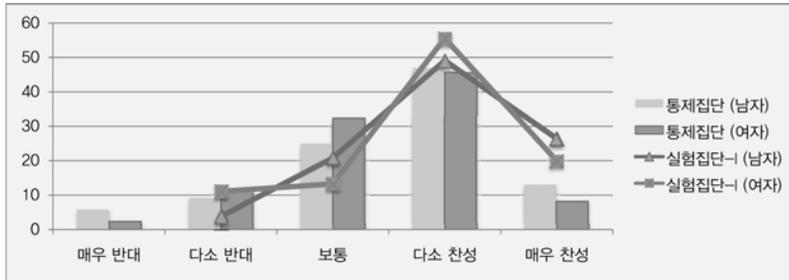


그림 III-17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2)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두 집단의 분포는 위 통일비용 문항과 유사하며 찬성 비율이 대폭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의 통일재원에 대한 평가는 앞서 살펴본 국민의식조사의 20대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65.5%이며, ‘보통’이 25.5%, ‘반대’가 9.1%를 기록하였다.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서 ‘투자적 의미’에 대한 찬성 비율보다 약 10%포인트 가량 증가하였다.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의 통일재원에 대한 평가는 통제집단에 비해 찬성 비중이 월등히 높다.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의 79.6%가 ‘찬성한다’에 응답하였으며, 중립은 18.4%이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실험집단-I의 조사결과는 일반대학생에 비해 15%포인트 가량 찬성률이 높은 것이며 국민의식조사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40대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성별과의 교차분석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43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문13-2. 후속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재원 마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매우 반대	2.5%	9.1%	1.0%	2.0%
다소 반대	6.6%		1.0%	
보통	25.5%		18.4%	
다소 찬성	50.8%	65.5%	55.1%	79.6%
매우 찬성	14.7%		24.5%	

표 III-44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종합			
							반대	보통	찬성	
전체	(691)	2.3	5.8	24.5	51.4	16.1	8.1	24.5	67.4	
통제 집단	남성	(207)	3.9	6.3	25.6	47.8	16.4	10.2	25.6	64.2
	여성	(386)	1.8	6.7	25.4	52.3	13.7	8.5	25.4	66.0
실험 집단-I	남성	(45)	2.2	0.0	13.3	62.2	22.2	2.2	13.3	84.4
	여성	(53)	0.0	1.9	22.6	49.1	26.4	1.9	22.6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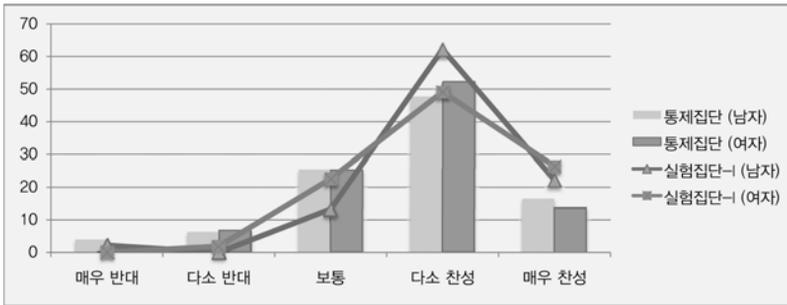


그림 III-18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하.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통제집단(일반대학생)과 실험 집단-I(장기자극집단) 모두 ‘예산 일정부분 적립’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집단 각각 63.5%와 76.3%로 다른 방안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통제집단의 경우 나머지 4개의 선택문항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내외가 선호하였는데 이중 ‘해외자본의 유치’가 12.8%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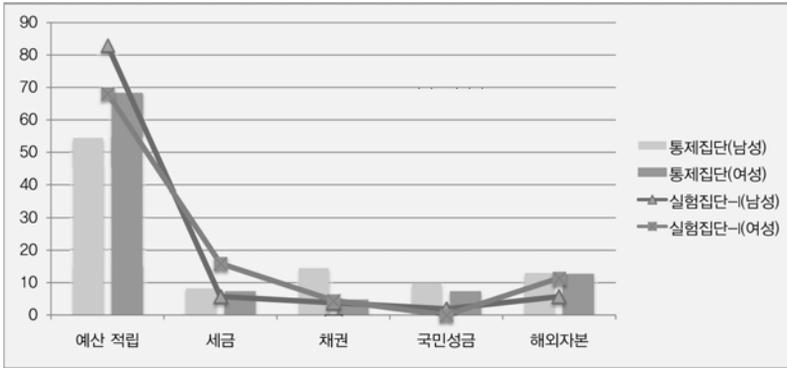
●표 III-45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문14.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실험집단-I(장기자극집단)
예산 일정부분 적립	63.5%	76.3%
세금	7.6%	10.3%
채권 발행	8.1%	4.1%
국민 성금	8.1%	1.0%
해외자본 유치	12.8%	8.2%

성별에 따른 각 방안에 대한 선호차이도 다소 나타난다. 통제집단의 경우 남성은 채권 발행에 상대적 비중을 크게 두었으며, 여성은 예산을 제외할 경우 해외자본의 유치에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실험집단-I의 경우 남성은 예산 적립에 83%가 집중된 반면, 여성의 경우 세금과 해외자본 유치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표 III-46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교차분석

구분		사례수 (명)	예산 일정부분 적립	세금	채권 발행	국민 성금	해외 자본 유치	유의도
전체		(692)	65.3	7.9	7.5	7.1	12.1	
통제 집단	남성	(207)	54.6	8.2	14.5	9.7	13.0	$\chi^2 = 21.435$ p=0.000
	여성	(388)	68.3	7.2	4.6	7.2	12.6	
실험 집단-I	남성	(44)	83.0	5.7	3.8	1.9	5.7	$\chi^2 = 4.956$ p=0.292
	여성	(53)	68.2	15.9	4.5	0.0	11.4	



Ⅲ 그림 Ⅲ-19 Ⅲ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3. 소집단 공론조사

가. 조사개요

소집단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대학생 대상 의사실험연구의 설계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에 단기자극을 받은 실험집단-II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는 춘천 소재 대학의 대학생 66명에 대해 2012년 5월 29일 1차 조사를 수행한 뒤, 6월 5일 통일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을 거친 직후 2차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의사실험연구와 약식 공론조사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통상적인 실험연구가 엄격한 통제조건을 부여하는데 반해, 편의표집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단발성 강의를 통해 자극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사실험(Quasi-Experiment)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사후 두 차례의 조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거쳤다는 점에서 약식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기대와 부담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짧은 준비과정과 자극 부여로 인해 사후조사에서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만 방법론 및 이론적 차원에서 매우 희소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험집단-Ⅱ의 소집단 공론조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통제집단과 거의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집단에 대해 1회의 단기자극에 의한 사전사후조사를 수행한 결과, 사전조사 평균 3.27은 사후조사 결과 3.33(표준편차 1.072)로 0.06점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기자극의 효과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사전사후조사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형식과 방법론에 있어서, 본 조사의 방식은 실험연구와 결합할 경우 기존의 정책평가와 새로운 정책개발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일정한 통제집단과 차별화된 자극을 통한 공론조사를 결합할 경우 어떤 주제와 내용이 더 큰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비교한 실험집단-Ⅰ의 수단이 비교적 긴 시간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데 비해 공론조사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수일의 기간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토론을 통해 정책대상의 자발적인 숙의를 유도하면서 통일의지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조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조사결과분석

(1)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2차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0.06%가 공감한다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은 두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가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통계기법이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에 대해 통일의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27, 표준편차는 1.03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33, 표준편차는 1.07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0.782 , 유의확률은 $.437$ 로서 유의수준 $.05$ 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47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27	3.33
표준편차	1.03	1.07
사례 수	66	66
t		-0.782
유의확률		$.437$

(2) 통일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교육 전과 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30년 이상’의 경우 1차 조사 50.0%에서 2차 조사 43.9%로 낮아진 반면, ‘20년 이내’라는 응답은 1차 조사 21.2%에서 2차 조사 30.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먼 미래의 일로 평가되는 ‘30년 이내’와 ‘30년 이상’에 대한 응답이 1차 조사에서 68.2%인데 2차 조사에서는 60.6%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표 III-48 통일 가능 시기

	1차 조사	2차 조사
10년 이내	10.6%	9.1%
20년 이내	21.2%	30.3%
30년 이내	18.2%	16.7%
30년 이상	50.0%	43.9%

(3)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에 대해 대학생 설문조사와 같이 7개의 하위항목에 대해 1차와 2차에 걸쳐 조사하였다. 전 항목에 대해 공문조사 표본은 미세하나마 ‘공감한다’는 방향으로 이동되었으나 통계적으로 1차와 2차의 평균차는 발견할 수 없었다. 공문조사 표본은 대학생 설문조사와 달리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77.3%)를 가장 큰 분단비용이라고 응답하였고, ‘북한의 안보위협’(75.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는 가장 공감 정도가 낮았으나 대학생 설문조사의 29.8% 보다는 높은 34.9%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가) 북한의 안보위협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2차 조사는 0.18%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분단비용 예상 항목에 대한 공감 중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71, 표준편차는 1.03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89, 표준편차는 .88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368, 유의확률은 .176으로서 유의수준 .05

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9 북한의 안보위협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71	3.89
표준편차	1.03	.88
사례 수	66	66
t		-1.368
유의확률		.176

(나)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이 분단비용이라는 응답에 대해 평균이 0.24 증가하여 공감한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분단비용 항목 중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35, 표준편차는 .94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59, 표준편차는 .89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983, 유의확률은 .05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0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35	3.59
표준편차	.94	.89
사례 수	66	66
t		-1.983
유의확률		.052

(다) 남한의 주식 저평가

‘남한의 주식 저평가’에 대한 평균은 0.18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분단비용 항목 중 ‘남한의 주식 저평가’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32, 표준편차는 .90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50, 표준편차는 .83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468, 유의확률은 .14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51 남한의 주식 저평가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32	3.50
표준편차	.90	.83
사례 수	66	66
t		-1.468
유의확률		.147

(라)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이 통일비용이라는 응답이 평균 0.18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분단비용 항목 중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30, 표준편차는 .87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48, 표준편차는 .91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243, 유의확률은 .219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52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30	3.48
표준편차	.87	.91
사례 수	63	63
t		-1.243
유의확률		.219

(마) 남북 간 교통단절

‘남북 간 교통단절’이 통일비용이라는 응답은 1차 3.52, 2차 3.52로 변화가 없었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분단비용 항목 중 ‘남북 간 교통단절’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평균(3.52)과 표준편차(.92)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000, 유의확률은 1.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53 남북 간 교통단절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52	3.52
표준편차	.92	.92
사례 수	66	66
t		.000
유의확률		1.000

(바)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가 통일비용이라는 의견은 평균 0.15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분단비용 예상 항목에 대한 공감 중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08, 표준편차는 1.04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23, 표준편차는 .87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166, 유의확률은 .248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4 민족 정체성 및 자존감 문제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08	3.23
표준편차	1.04	.87
사례 수	66	66
t		-1.166
유의확률		.248

(사)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분단이재민을 통일비용으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0.18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분단비용 항목 중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80, 표준편차는 .93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98, 표준편차는 .89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654, 유의확률은 .103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5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80	3.98
표준편차	.93	.89
사례 수	66	66
t		-1.654
유의확률		.103

(4) 통일기대 항목별 공감 정도

통일기대에 대한 7개 하위항목에 대해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가 미세하나마 더 큰 평균값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매우 미세하여 통계적 평균차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생 설문조사의 경우 ‘안보위협 해소’가 가장 큰 통일기대 항목이었다. 반면, 공론조사는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통일기대 항목으로 선택하였으며, ‘안보위협 해소’는 그 다음을 이었다. 이는 분단비용을 묻는 위항목과 일관된 답변결과이다.

(가) 안보위협 해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안보위협의 해소’에 대해 2차 조사 평균은 0.21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65, 표준편차는 .97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86, 표준편차는 .88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750, 유의확률은 .085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6 안보위협 해소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65	3.86
표준편차	.97	.88
사례 수	66	66
t		-1.750
유의확률		.085

(나) 국제적 위상 향상

‘국제적 위상 향상’은 2차 조사에서 0.19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중 ‘국제적 위상 향상’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36, 표준편차는 .99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55, 표준편차는 .90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333, 유의확률은 .187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7 국제적 위상 향상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36	3.55
표준편차	.99	.90
사례 수	66	66
t		-1.333
유의확률		.187

(다)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분단이재민은 공론조사 표본이 통일기대 항목 중 가장 ‘공감한다’는 비율이 높은 항목이다. 2차 조사에서는 0.07 증가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중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4.02, 표준편차는 .94이며, 2차 조사 평균은 4.09, 표준편차는 .84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778, 유의확률은 .439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8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4.02	4.09
표준편차	.94	.84
사례 수	65	65
t		-.778
유의확률		.439

(라) 경제적 기회의 확대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중 ‘경제적 기회의 확대’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45, 표준편차는 .83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62, 표준편차는 .91이다. 2차 조사에서 평균이 0.17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526, 유의확률은 .132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9 경제적 기회의 확대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45	3.62
표준편차	.83	.91
사례 수	66	66
t		-1.526
유의확률		.132

(마) 남북 간 자유왕래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중 ‘남북 간 자유왕래’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44, 표준편차는 .91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48, 표준편차는 .97이다. 평균은 0.04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444, 유의확률은 .658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0 남북 간 자유왕래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44	3.48
표준편차	.91	.97
사례 수	66	66
t		-.444
유의확률		.658

(바) 민족 동질성 회복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중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39, 표준편차는 .82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36, 표준편차는 .91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한 평균은 0.03 감소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261, 유의확률은 .795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61 민족 동질성 회복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39	3.36
표준편차	.82	.91
사례 수	66	66
t		.261
유의확률		.795

(사) 분단스트레스 해소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중 ‘분단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공감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14, 표준편차는 .88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32, 표준편차는 .90이다. 2차 조사에서 평균이 0.18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405, 유의확률은 .165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2 분단스트레스 해소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14	3.32
표준편차	.88	.90
사례 수	66	66
t		-1.405
유의확률		.165

(5)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육 전과 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협력대상’의 경우 1차 조사 33.3%에서 2차 조사 45.5%로 크게 높아진 반면, ‘지원대상’은 1차 조사 28.8%에서 2차 조사 21.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북한에 대한 인식

	1차 조사	2차 조사
지원대상	28.8%	21.2%
협력대상	33.3%	45.5%
경쟁대상	1.5%	0.0%
관리대상	28.8%	27.3%
적대대상	7.6%	6.1%

(6) 남한의 항복별 통일준비 정도

(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2.35, 표준편차는 .77이며, 2차 조사 평균은 2.45, 표준편차는 .71이다. 평균 0.1이 변화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187, 유의확률은 .24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64 국민적 공감대 형성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2.35	2.45
표준편차	.77	.71
사례 수	66	66
t		-1.187
유의확률		.240

(나) 경제적 역량 강화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중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2.45, 표준편차는 .73이며, 2차 조사 평균은 2.74, 표준편차는 .79이다. 평균차가 0.29로 비교적 큰 편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3.163, 유의확률은 .0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수 사례의 공론조사에서 예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강의 이후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이 통계적으로도 검정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III-65 경제적 역량 강화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2.45	2.74
표준편차	.73	.79
사례 수	66	66
t		-3.163
유의확률		.002

(다) 제도적 준비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중 ‘제도적 준비’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2.23, 표준편차는 .84이며, 2차 조사 평균은 2.44, 표준편차는 .91이다. 0.21의 평균변화가 있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808, 유의확률은 .075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6 제도적 준비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2.23	2.44
표준편차	.84	.91
사례 수	66	66
t		-1.808
유의확률		.075

(라) 국제적 환경조성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중 ‘국제적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평균(2.45)과 표준편차(.83)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000, 유의확률은 1.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67 국제적 환경조성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2.45	2.45
표준편차	.83	.83
사례 수	66	66
t		.000
유의확률		1.000

(마) 통일초기 조기안정을 위한 비용 마련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중 ‘통일초기 조기안정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2.48, 표준편차는 .88이며, 2차 조사 평균은 2.39, 표준편차는 .91이다. 2차 조사에서 평균이 0.09 감소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677, 유의확률은 .501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68 통일초기 조기안정을 위한 비용 마련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2.48	2.39
표준편차	.88	.91
사례 수	66	66
t		.677
유의확률		.501

(7)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에 대해 교육 전과 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 주민 간 신뢰부족’(18.5%⇒21.2%)과, ‘남북 주민 간 가치관 차이’(27.7%⇒30.3%)는 다소 높아진 반면, ‘남북 주민 간 경제격차’(36.9%⇒34.8%)와 ‘북한 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16.9%⇒13.6%)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았다. 즉, 경제격차, 가치관 차이, 신뢰부족의 순으로 민족통합의 장애요인이라고 평가되었다.

●표 III-69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1차 조사	2차 조사
남북 주민 간 신뢰부족	18.5%	21.2%
남북 주민 간 경제격차	36.9%	34.8%
남북 주민 간 가치관 차이	27.7%	30.3%
북한 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	16.9%	13.6%

(8)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에 대해 교육 전과 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의 경우 1차 조사 25.4%에서 2차 조사 30.8%로 높아진 반면,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와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의 경우 1차 조사 23.8%에서 2차 조사 20.0%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설문조사의 경우 세계 경제 주도국가가 36.8%로 가장 높고 세계평화 주도 국가가 29.9%로 그 뒤를 이었다. 공론조사 표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표본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한 편차로 보인다.

●표 III-70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1차 조사	2차 조사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	20.6%	20.0%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	23.8%	20.0%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	25.4%	30.8%
친환경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	6.3%	7.7%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	23.8%	20.0%
기타	0.0%	1.5%

(9)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에 대해 교육 전과 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의 경우 1차 조사 34.8%에서 2차 조사 27.3%로 낮아진 반면, ‘교과 과정에 반영’의 경우 1차 조사 16.7%에서 2차 조사 24.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71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1차 조사	2차 조사
교과 과정에 반영	16.7%	24.2%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34.8%	27.3%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22.7%	22.7%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	25.8%	25.8%

(10)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2.22, 표준편차는 1.19이며, 2차 조사 평균은 2.31, 표준편차는 1.10이다. 2차 조사에서 평균이 0.09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668, 유의확률은 .507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 조사에서 공론조사 표본은 74.2%가 부담이 기대보다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설문조사의 평균 69.5%보다 통일부담을 더 크게 판단하고 있다.

● 표 III-72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2.22	2.31
표준편차	1.19	1.10
사례 수	65	65
t		-.668
유의확률		.507

(11)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41.44, 표준편차는 16.33이며, 2차 조사 평균은 43.32, 표준편차는 16.02이다. 즉,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통일 이전에 통일비용을 지출해야한다는 응답이 1.88%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727, 유의확률은 .089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73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통일 전		통일 후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41.44	43.32	58.56	56.68
표준편차	16.33	16.02	16.33	16.02
사례 수	66	66	66	66
t	-1.727		1.727	
유의확률	.089		.089	

(12) 통일 과정과 방식

(가)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통일 과정과 방식 중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62, 표준편차는 1.07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66, 표준편차는 .94이다. 즉,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에 대한 평균이 2차에서 0.04 증가하였다. 공론조사 표본은 두 차례의 조사 공히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

한 결과, t통계값은 -.331, 유의확률은 .742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74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62	3.66
표준편차	1.07	.94
사례 수	65	65
t		-.331
유의확률		.742

(나)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위의 ‘가’ 문항과 대조적으로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에 대한 견해는 두 차례 조사 모두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았다. 2차 조사에서 평균은 0.13 감소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2.72, 표준편차는 1.03이며, 2차 조사 평균은 2.59, 표준편차는 1.07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929, 유의확률은 .35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75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2.72	2.59
표준편차	1.03	1.07
사례 수	64	64
t		.929
유의확률		.356

(13) 통일비용과 통일재원

(가)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에서 ‘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에 대한 주장에 대해 45.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40.9%는 중립, 13.6%는 반대하였다(2차 조사).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35, 표준편차는 .86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34, 표준편차는 .85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119, 유의확률은 .905로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I-76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35	3.34
표준편차	.86	.85
사례 수	65	65
t		.119
유의확률		.905

(나)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후속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재원 마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주장에 대해 2차 조사에서 평균이 0.08 증가되었다. 2차 조사에서 56.1%가 찬성하였으며, 6.1%가 부정적이었다. 대응표본 t검정에 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평균은 3.55, 표준편차는 .89이며, 2차 조사 평균은 3.63, 표준편차는 .75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을 검정한 결과, t통계값은 -0.798 , 유의확률은 $.428$ 로 유의수준 $.05$ 에서 대학생들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77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차 조사	2차 조사
평균	3.55	3.63
표준편차	.89	.75
사례 수	64	64
t		-0.798
유의확률		$.428$

(14)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교육 전과 후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예산 일정부분 적립’의 경우 1차 조사 47.0%에서 2차 조사 53.0%로 높아진 반면, ‘채권 발행’의 경우 1차 조사 7.6%에서 2차 조사 1.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의식조사의 경우 예산 적립이 65.3%, 해외 자본 유치에 12.1%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론 조사 표본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78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1차 조사	2차 조사
예산 일정부분 적립	47.0%	53.0%
세금	19.7%	18.2%
채권 발행	7.6%	1.5%
국민 성금	18.2%	19.7%
해외 자본 유치	7.6%	7.6%

4. 소결

20대는 앞으로 당면할 통일과 통합을 담당할 미래의 주역이다. 그러나 20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전 연령대 중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대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통일의식의 측정과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생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대학생은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고학력자로서 20대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재원을 담당할 핵심집단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설문조사의 설계는 제한된 시간과 재원에 따라 가능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측정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통상적인 설문조사와 실험조사를 결합하되, 시간과 자원의 제약에 따라 통제조건을 완화시킨 의사실험 연구설계의 형태로 구상하였다. 설계구조는 크게 3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1개 통제집단과 2개 실험집단으로 구분한 뒤, 3개의 집단을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우선 통제집단으로서 모집단인 대학생 전체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의 비교를 도모하였다. 그 대상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경제교육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는 JA Korea의 수강생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I은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에 장기자극을 받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실험집단-II는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에 단기자극을 받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에 가장 가까운 실험설계이다. 또한 실험집단-II에 사용된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에서 도출된 공론조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학생 설문조사의 설문지는 국민의식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본

구조로 유지하되 개별적인 통일의 기대와 부담의 문항에 나열된 주요 항목을 하위문항의 형태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의식’, ‘통일의 기대와 부담’, ‘통일재원’의 3분야에 대한 총 16개 문항으로 작성된 국민의식조사 항목은 14개의 상위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23개의 하위항목으로 재구성되었다.

본격적인 문항분석에 앞서 실험에 포함될 통제집단, 실험집단-I, 실험집단-II의 집단특성을 비교하였다. 통제집단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민의식조사의 20대와 비교하였으며 동일한 집단으로 판명되었다. 실험집단-I은 사후조사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의식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이는 세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II의 사전조사 결과는 통제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I 간 문항비교를 하였다. 두 집단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뚜렷한 평균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험집단-I은 통일의식, 통일의지, 재원마련 등 전 분야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응답분포는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통일에 적극적인 세대인 ‘4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분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적절한 정보와 토론의 공간이 일정 기간 주어질 경우 현재 통일에 가장 무관심한 세대인 20대의 통일 자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실험집단-I에 대한 비교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매우 흥미로운 결과는 여성의 태도변화이다. 통상적인 통일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20대 여성은 통일에 가장 무관심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다. 그러나 실험집단-I의 여성은 20대의 대학생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대 여성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험집단-I은 다수의 문항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전향적이고 적극적

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식조사의 ‘60대 이상’ 집단보다 더 적극성을 보였으며, 응답자 42%가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통일기대와 관련하여, 통제집단과 유사한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인식 차원에서 보다 높은 공감도를 나타내었다. 실험집단-I은 통일의 부담보다 기대가 더 크다는 응답이 통제집단에 비해 2배 더 컸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재원 마련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20대의 통일에 대한 시각이 유지되는 경향도 있었다. 실험집단-I은 안보문제, 경제문제에 더욱 민감한 태도를 보였으며, 반면에 민주주의, 민족 동질성, 분단스트레스와 같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해소과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실험집단 II의 경우 1회의 단기자극에 의한 사전사후조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실험집단 II의 사전조사 결과는 통제집단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하였으나 단기 자극 이후의 변화가 매우 미세한 수준에서만 변화하였다. 실험집단 II의 사전사후 조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매우 짧은 준비기간과 부족한 인력 및 자원으로 인해 적절한 단기자극이 주어지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다만 실험집단 II에서 시도되었던 공론조사는 자료제공, 토론, 전문가 질의응답 등의 과정의 적절한 자극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조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IV. 비교분석

1.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비교분석

본 연구는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의 주도세대가 될 20대 대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대학생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일반대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개의 실험집단을 비교하는 의사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앞 장에서 통제집단으로 규정되었던 일반대학생의 의식이 전반적인 국민의식과 어떤 공통점과 상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설계에서 대학생 설문조사의 구조와 국민의식조사의 구조를 비교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다만,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응답자 특성과 전화조사라는 한계로 설문지를 매우 쉽고 단순하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문항이 일대일 비교가 가능하며 일부 문항의 경우 개략적인 상이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의 구조와 대응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IV-1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동일문항 추출

문항	국민의식조사	대학생 설문조사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문1	문1
통일 가능 시기	문2	문2
북한에 대한 인식	문5	문5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문7	문7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문8	문8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문9	문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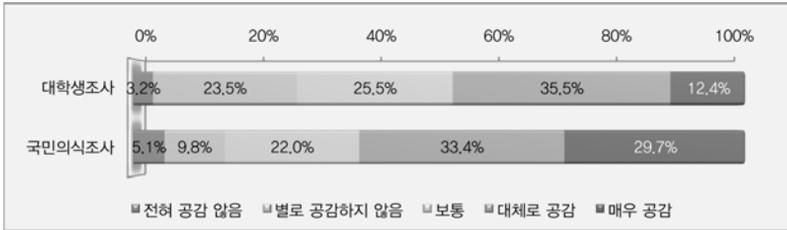
문항	국민의식조사	대학생 설문조사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문10	문10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문12	문12-1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문13	문12-2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문14	문13-1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문15	문13-2
비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문16	문14

가.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63.1%(‘매우 공감한다’ 29.7% + ‘대체로 공감한다’ 33.4%)로 대학생 설문조사 47.92%(‘매우 공감한다’ 12.4% + ‘대체로 공감한다’ 35.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식조사에서 20대는 가장 낮은 공감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대해 대학생 26.7%가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미래 통일의 주역이면서 부담과 기대의 당사자가 될 대학생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적 집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표 IV-2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대학생 설문조사	3.2%	23.5%	25.5%	35.5%	12.4%
	26.7%			47.9%	
국민의식 조사	5.1%	9.8%	22.0%	33.4%	29.7%
	14.9%			63.1%	



Ⅱ 그림 IV-1 Ⅱ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나. 통일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대학생 설문조사(47.9%), 국민의식조사(38.0%) 모두에서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년 이상’은 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거나 통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응답자일 경우이다. 국민의식조사에서 ‘10년 이내’ 또는 ‘20년 이내’가 49.1%로서 10명 중 5명이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의 경우 27.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앞의 통일의 필요성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부정적 인식과 일관된 특징이다. 요컨대, 국민의 통일가능시기에 대한 응답이 다소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대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통일가능시기에 대한 응답은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3 Ⅲ 통일 가능 시기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대학생 설문조사	5.0%	22.6%	24.5%	47.9%
국민의식조사	19.9%	29.2%	12.9%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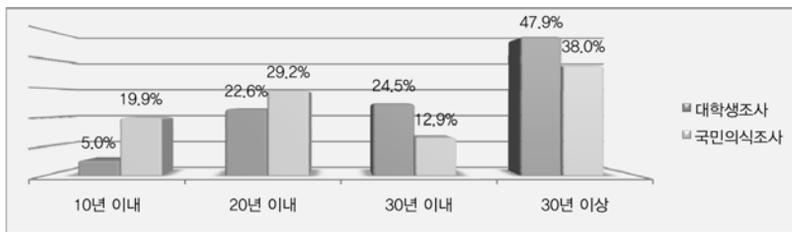


그림 IV-2 통일 가능 시기

다.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 집단의 상대적 응답비율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대학생과 일반국민 모두 북한을 ‘협력대상’과 ‘관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대대상’과 ‘지원대상’이 그 다음 응답율을 기록하였다. 다만, 미세하나마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민의 경우 ‘협력대상’이 35.8%로 관리대상의 34.2%보다 다소 높으며, 대학생은 ‘관리대상’이 34.8%, ‘협력대상’이 34%로 순위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선순위의 차이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크기이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다. 국민의 경우 13.5%가 ‘적대대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17.6%로 집단 간 차이가 4.1%로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평균적인 국민보다 젊은 대학생이 북한에 대해 더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앞서 <문1>과 <문2>에 나타난 대학생의 부정적인 시각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요약하면, 전체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인 국민인식과 대학생 인식 간 큰 차이가 없으며 북한을 협력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20대 초중반의 연령대를 가진 대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4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관리대상	적대대상
대학생 설문조사	12.6%	34.0%	1.0%	34.8%	17.6%
국민의식조사	13.1%	35.8%	3.4%	34.2%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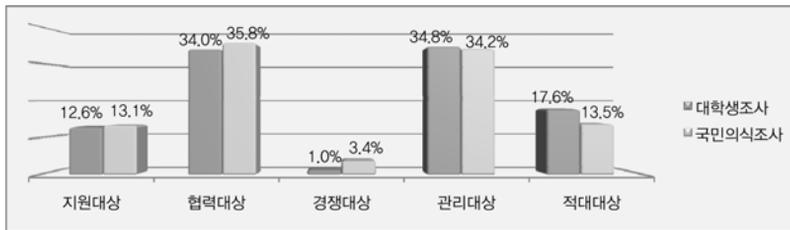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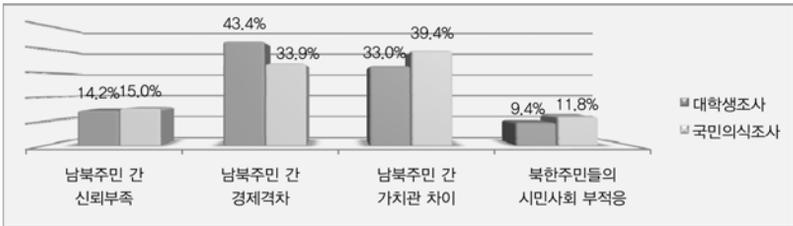
그림 IV-3 북한에 대한 인식

라.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은 통일의 부담과 관련된 항목이다. 이 항목 역시 대학생과 일반 국민 간 견해차가 다소 나타났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남북 주민 간 경제격차’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치관 차이’가 3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대학생도 매우 많으나 그 보다는 ‘경제격차’가 더 큰 문제라는 대학생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비해 국민의식조사에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39.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반면, ‘경제격차’도 33.9%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즉, 대학생과 국민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이 경제문제와 가치관 문제를 가장 큰 통일의 과제로 평가하고 있으나 대학생이 경제문제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주민 간 신뢰부족’과 ‘북한 주민의 부적응’에 대한 응답비율은 두 집단 간 응답차가 거의 없다.

● 표 IV-5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남북주민 간 신뢰부족	남북주민 간 경제격차	남북주민 간 가치관 차이	북한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
대학생 설문조사	14.2%	43.4%	33.0%	9.4%
국민의식조사	15.0%	33.9%	39.4%	11.8%



|| 그림 IV-4 ||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마.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에 대한 문항은 통일의 기대와 관련된 문항이다. 대학생과 국민조사 간 응답의 우선순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식조사에서는 31.8%가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국가’에 응답하였으며, ‘평화’와 ‘경제’가 각각 23.8%, 22.8%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 ‘자유와 민주주의’는 17.2%로 세 번째 순위에 불과하며, ‘경제’에 가장 많은 34.8%가 응답하였다. 앞 문항에서 대학생이 통일의 부담에 ‘경제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한 것과 일관된 답변이다. 전반적으로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고학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경우 경제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전체 국민 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평균적인 국민의식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큰 점수를 주고 있다.

표 IV-6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	친환경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	복지와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	기타
대학생 설문조사	30.1%	34.8%	17.2%	3.5%	9.5%	4.9%
국민의식조사	23.8%	22.8%	31.8%	7.0%	14.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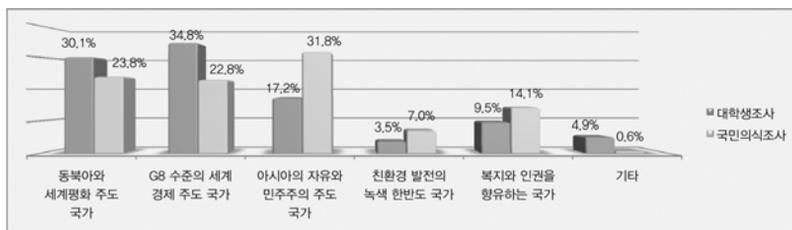


그림 IV-5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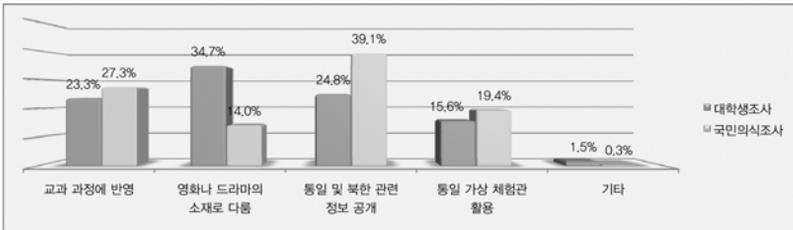
바.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응답률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제시한 4개의 선택항목 모두 고르게 채택되었다. 다만 두 집단 간 순위의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이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 공개’는 24.8%, ‘교과 과정에 반영’은 23.3%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정보 공개’가 39.1%로 다른 문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과 과정에 반영’이 27.3%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는 14%에 불과하다. 홍보방식에 대한 본 문항은 향후 20대 또는 대학생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어 중요한 판단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평균적인 국민의식조사와 달리

대학생의 경우 뚜렷하게 구별되는 홍보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확률적 표집에 의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표 IV-7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교과 과정에 반영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	기타
대학생 설문조사	23.3%	34.7%	24.8%	15.6%	1.5%
국민의식조사	27.3%	14.0%	39.1%	19.4%	0.3%



■ 그림 IV-6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사.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모두 압도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많다.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대학생 설문조사의 경우 71.9%(‘부담이 훨씬 더 크다’ 32.9% + ‘부담이 조금 더 크다’ 39%)로 국민의식조사 66.4%(‘부담이 훨씬 더 크다’ 38.6% + ‘부담이 조금 더 크다’ 27.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5점 척도 상에서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할 경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부담이 훨씬 더 크다’에 32.9%가 응답한 반면, 국민의식조사

에서는 38.6%로 극단적인 부정이 다소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두 집단 모두 기대보다는 부담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간극을 역전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표 IV-8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부담이 조금 더 크다	비슷하다	기대가 조금 더 크다	기대가 훨씬 더 크다
대학생 설문조사	32.9%	39.0%	11.6%	10.3%	6.2%
	71.9%			16.5%	
국민의식조사	38.6%	27.9%	12.4%	11.8%	9.3%
	66.4%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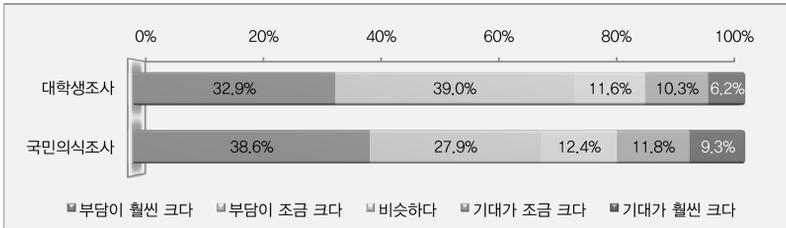


그림 IV-7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아.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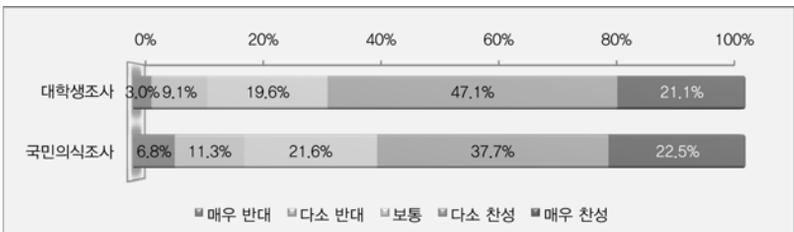
통일 과정과 방식에 대해 <문8>과 <문9> 두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이는 본 문항 자체가 대학생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문항이며 상당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일차적인 문항의 설계는 통일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의식조사이지만 이와 동시에 응답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선북한성장 후통일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선통일 후북한성장에

반대할 것이다.

우선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 국민의 의견은 두 집단 모두 압도적 다수가 ‘찬성’에 응답하였다. 다만 두 집단 간 편차는 다소 존재한다. 대학생의 경우 68.2%가 ‘찬성’에 응답하였으며, 국민의 경우 60.2%를 기록하였다. 즉, 대학생이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문항에서 대학생은 예외 없이 ‘경제’관련 문항에 매우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문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대학생은 선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표 IV-9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대학생 설문조사	3.0%	9.1%	19.6%	47.1%	21.1%
	12.1%			68.2%	
국민의식조사	6.8%	11.3%	21.6%	37.7%	22.5%
	18.2%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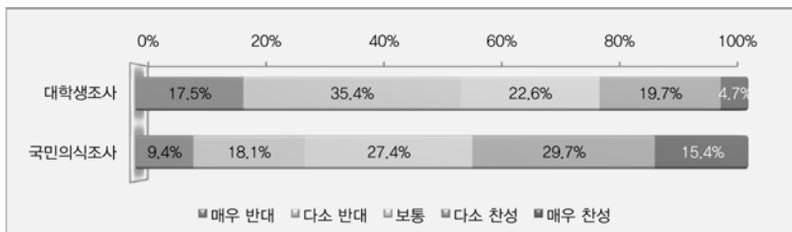
■ 그림 IV-8 통일 과정과 방식: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

자.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앞 문항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과정과 방식에 대해 그 순서가 치환된 동일 구조의 문항을 설문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 대학생은 비교적 일관된 답변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그러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앞 문항에서 대학생은 ‘선북한경제성장’에 찬성하였으며, 본 문항에서는 ‘후북한경제성장’에 반대하였다. 즉, 52.9%가 ‘반대’, 24.4%가 찬성함으로써, 앞문항과 비교할 때 완전한 일치는 아니지만 대체로 응답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후북한경제성장’에 대해 45.1%가 찬성하고 27.5%가 반대함으로써 상당 비율의 응답이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북한경제성장’에 대한 찬성이 60.2%이라면 ‘후북한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찬성률이 나와야 하는데 45.1%가 찬성하고 있다. 즉, 두 문항을 단순 비교하면 일반 국민의 경우 대체로 ‘선북한경제성장 후통일’의 방식을 찬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응답의 일관성이 크게 낮다.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는 본 문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어 자체의 어려움과 전화여론조사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어느 정도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문항을 빠르게 진행되는 전화조사방식으로 설문하는 것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긴 시간과 조사비용이 요구되는 면접조사가 필요하다.

●표 IV-10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대학생 설문조사	17.5%	35.4%	22.6%	19.7%	4.7%
	52.9%			24.4%	
국민의식조사	9.4%	18.1%	27.4%	29.7%	15.4%
	27.5%			45.1%	



■ 그림 IV-9 ■ 통일 과정과 방식: 선통일 후북한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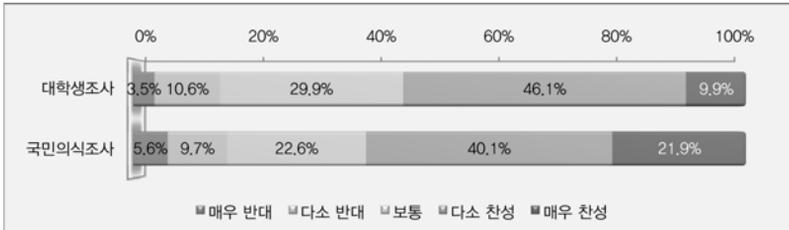
차.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모두 대단히 전향적인 응답을 하였다. ‘찬성’이라는 의견은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62.1%(‘매우 찬성’ 21.9% + ‘다소 찬성’ 40.1%)를 기록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56%(‘매우 찬성’ 9.9% + ‘다소 찬성’ 46.1%)이다. 본 문항은 통일재원에 대한 인식파악을 위해 매우 주시되었던 문항이다. 그런데 대학생 설문조사와 국민의식조사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통일비용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통일 미래의 설계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본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앞서 조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비교할 경우 매우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통일비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분포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응답분포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즉, 통일 필요성에 대해 63.1%가 ‘공감’, 14.9%가 ‘공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본 문항에서는 62.1%가 ‘찬성’, 15.3%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통일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 설문조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대학생은 통일에 대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본 문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하였다. 앞서 ‘통일의 필요성’ 문항에서 대학생은 47.9%가 ‘공감’, 26.7%가 ‘공감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하여 공감도가 전체 국민의 평균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찬성’ 56%, ‘반대’ 14.1%를 기록하여,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도 상당수가 통일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 IV-11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대학생 설문조사	3.5%	10.6%	29.9%	46.1%	9.9%
	14.1%			56.0%	
국민의식조사	5.6%	9.7%	22.6%	40.1%	21.9%
	15.3%			62.1%	



■ 그림 IV-10 ■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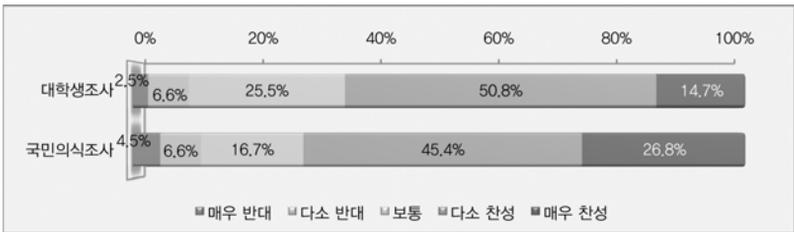
카.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일비용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찬성’이라는 의견은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72.2%(‘매우 찬성’ 26.8% + ‘다소 찬성’ 45.4%)로 통일비용 문항에 비해 10%포인트

인트가 높아졌다. 대학생 설문조사 역시 65.5%(‘매우 찬성’ 14.7% + ‘다소 찬성’ 50.8%)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찬성’에 대한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다만 유보 또는 중립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25.5%로 매우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직 통일재원의 필요성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지닌 대학생이 매우 많으며 이들 중립적 태도를 가진 대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표 IV-12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대학생 설문조사	2.5%	6.6%	25.5%	50.8%	14.7%
	9.1%			65.5%	
국민의식조사	4.5%	6.6%	16.7%	45.4%	26.8%
	11.1%			72.2%	



|| 그림 IV-11 ||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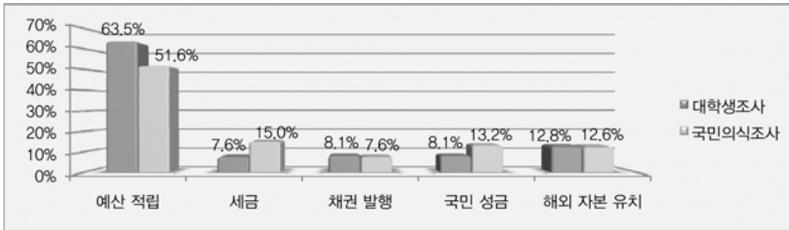
타.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생 설문조사의 경우 ‘예산적립’이라는 응답이 63.5%로 국민의식조사 51.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세금’(15.0%), ‘국민

성금’(13.2%)이라는 응답이 대학생 설문조사(‘세금’ 7.6%, ‘국민 성금’ 8.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경우 ‘예산적립’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 대학생에 비해 보다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세대 간,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IV-13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예산적립	세금	채권 발행	국민 성금	해외 자본 유치
대학생 설문조사	63.5%	7.6%	8.1%	8.1%	12.8%
국민의식조사	51.6%	15.0%	7.6%	13.2%	12.6%



Ⅱ 그림 IV-12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2. 최근 여론조사 추이분석

선행연구 비교분석은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항과 유사한 설문항을 검색하여 추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우선적으로 통일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수집한 후 각각의 보고서의 설문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동일문항과 유사문항

을 추출함으로써 본 연구와 비교 가능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추이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자료는 2010년 7월 이후 실시된 조사자료가 포함된 연구보고서로 8개 기관 12개의 보고서가 수집되었다. 연구진은 다음 과정으로 수집된 보고서의 세부 설문항과 이번 국민의식조사와의 설문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①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② 통일 가능 시기, ③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④ 북한에 대한 인식, ⑤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 ⑥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⑦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⑧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 8개의 비교 가능한 설문항을 추출하였다.

비교 가능한 설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201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0년, 2011년 1차),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년, 2011년), 한반도선진화재단(2010년), 여의도연구소(2010년),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 현대경제연구원(2012년)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연구에 따라 4점 척도로 질문한 경우와 5점 척도로 질문한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질문을 하였으므로,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2011년)의 설문항과 비교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통일 가능 시기’에 관한 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201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1년),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년, 2011년)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가장 짧은 시기가 10년 이내로 기존 연구에서 5년 이내라는 응답은 10년 이내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에 관한 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1년 3차),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의 설문항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와 기존 연구에서 문구상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는 유사하므로, 이번 조사에 맞는 항목에 포함하였다. 한반도 선진화재단(2010년)과, 통일부(2011년)의 보고서에서도 유사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설문 응답 항목에 대한 부분이 이번 연구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 분석에서는 배제하였다.

네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2011년),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년, 2011년)의 조사에서 유사한 설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번 국민의식조사의 관리대상 응답 항목이 없는 대신 경제대상 응답 항목이 있었으며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2010년), 통일부(2011년)의 보고서에서도 유사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설문 응답항목에 대한 차이가 있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섯 번째로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에 관한 사항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1년 1차)의 보고서에서만 유사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 연구와 문구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미가 유사하므로 이를 활용하였다. 한편,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년, 2011년), 한반도 선진화재단(2010년), 현대경제연구원(2012년)의 보고서에서도 유사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응답 항목에 대한 부분이 이번 연구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이 자료들은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로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에 관한 사항으로 한반도 선진화재단(201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차(2011년)의 보고서에서만 유사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는 4점 척도로 설문이 구성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통일 부담에 대한 응답이 과거와 비슷하게 나왔다

는 점을 참고하여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한편,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의 보고서에서도 유사 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질문 방식이 달라 분석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일곱 번째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여의도 연구소(2010년),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의 보고서에서 유사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 문항 역시 기존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연구와 척도 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용어상에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통일비용’을,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차이가 있었으나 문항의 의미가 비슷하여 유사문항으로 볼 수 있으며, 찬성이라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여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여의도 연구소(2010년),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의 보고서에서 유사문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연구와의 응답 항목에 대한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기존 방안과의 비교를 위해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을 위해 수집하여 분석한 선행연구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IV-14 통일비용 및 통일인식 관련 주요 국민여론조사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유효표본	표집방법	신뢰수준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2010.07.12~ 07.27	1:1 개별 면접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다단계무작위 추출법	95% 신뢰수준 ±2.8%p
	2011.07.26~ 08.15	1:1 개별 면접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1명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다단계무작위 추출법	95% 신뢰수준 ±2.8%p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유효표본	표집방법	신뢰수준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2011.03.15~ 03.16(1차)	전화면접 조사	만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1,009명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추출	95% 신뢰수준 ±3.09%p
	2011.09.20~ 09.22(2차)	전화면접 조사	만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1,031명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추출	95%신뢰 ±3.05%p
	2011.11.15~ 11.16(3차)	전화면접 조사	만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1,010명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추출	95% 신뢰수준 ±3.08%p
KBS 남북협력 기획단, 엠비존	2010.08.02~ 08.03	휴대전화 조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7명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추출	95% 신뢰수준 ±3.10%p
	2011.08.10	휴대전화 조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24명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추출	95% 신뢰수준 ±3.10%p
한반도선진화 재단, (주)메트릭스	2010.08.25~ 08.26	전화면접 조사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추출	95% 신뢰수준 ±3.10%p
여의도 연구소	2010.09.27	ARS 전화조사	전국 성인남녀	3,697명		95% 신뢰수준 ±1.61%p
연세대 통일학연구소, 리서치& 리서치	2011.02.09~ 02.22	전화조사	전국기업인 및 소상공인	1,015명	'전국기업체 총람'에서 지역, 업종별 편의할당 표집	95% 신뢰수준 ±3.08%p
통일부, 리서치& 리서치	2011.3.26~ 03.27		전국 국민	1,000명		95% 신뢰수준 ±3.10%p
현대경제 연구원	2012.02.01~ 02.08	전화조사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2명		95% 신뢰수준 ±3.9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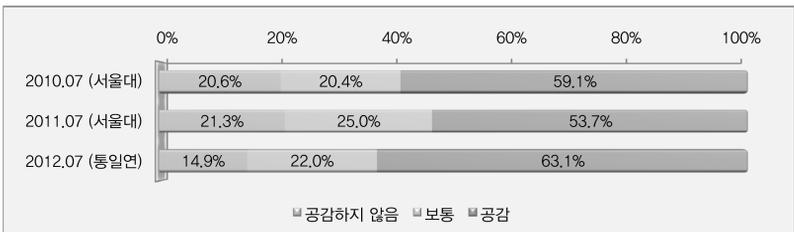
가. 선행연구와 국민의식조사 비교분석

(1)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에 대한 의견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년, 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공감한다’는 조사결과는 2010년 7월 59.1%, 2011년 7월 53.7%, 2012년 7월 63.1%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1년 다소 하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김정일 체제에서 최근 김정은 체제로의 정권 변화과정에서 국민의식은 보다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5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07)	4.0%	16.6%	20.4%	31.8%	27.3%
	20.6%			5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07)	21.3%		25.0%	53.7%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5.1%	9.8%	22.0%	33.4%	29.7%
	14.9%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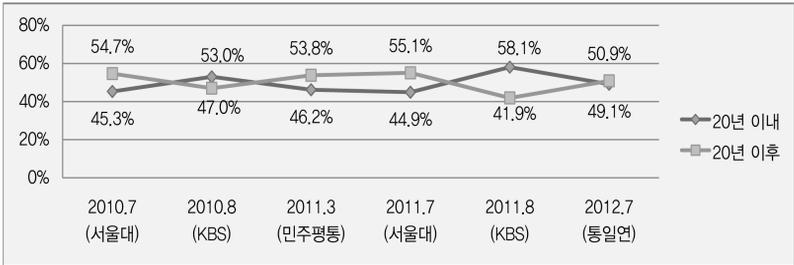
Ⅰ 그림 IV-13 Ⅰ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2) 통일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2011년),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년, 201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1년 1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가시적인 전망(‘30년 이상’, ‘불가능하다’)에 대한 응답은 2010년 7월 41.4%(‘30년 이상’ 20.8% + ‘불가능하다’ 20.6%), 2010년 8월 28.4%(‘30년 이상’ 16.3% + ‘불가능하다’ 12.1%), 2011년 3월 44.0%(‘30년 이상’ 15.9% + ‘불가능하다’ 28.1%), 2011년 7월 41.1%(‘30년 이상’ 19.8% + ‘불가능하다’ 21.3%), 2011년 8월 27.6%(‘30년 이상’ 15.5% + ‘불가능하다’ 12.1%), 2012년 7월 38.0%로 KBS 남북협력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서는 단기적인 전망(‘10년 이내’)에 비해 가시적인 전망(‘30년 이상’, ‘불가능하다’)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통일 가능 시기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 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07)	21.2%	24.1%	13.4%	20.8%	20.6%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0.08)	17.2%	35.8%	18.7%	16.3%	12.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차 (2011.03)	21.3%	24.9%	9.3%	15.9%	28.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07)	18.8%	26.1%	14.0%	19.8%	21.3%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1.08)	18.5%	39.6%	18.9%	15.5%	12.1%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19.9%	29.2%	12.9%	38.0%	



■ 그림 IV-14 ■ 통일 가능 시기

(3)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1년 3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0년 7월 조사의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후에는 ‘안보위협 해소’(2011년 2월 27.2%, 2011년 11월 30.0%, 2012년 7월 37.1%)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2011년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사망으로 인한 북한정권 체제의 불안과 최근 김정은 체제가 집권하기 위한 변화 과정과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7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안보위협 해소	국제적 위상 향상	분단이재 민 해결	경제적 기회 확대	남북 간 자유왕래	민족 동질성 회복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07)	24.1%	20.7%	7.0%	4.0%		43.0%
연세대 통일학연구소 (2011.02)	27.2%	10.9%	4.4%	25.3%		2.6%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3차 (2011.11)	30.0%	18.9%	16.6%	6.2%		18.6%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37.1%	16.0%	10.8%	13.6%	5.8%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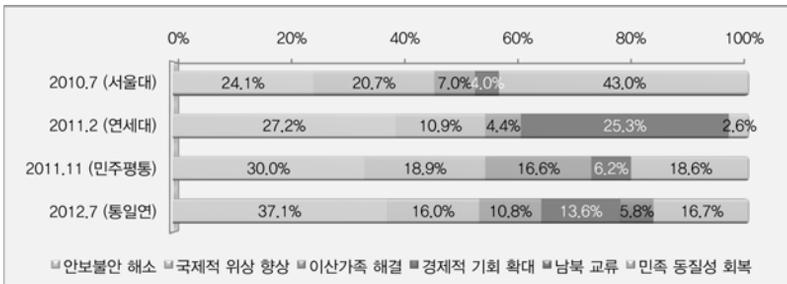


그림 IV-15 통일기대 항목 공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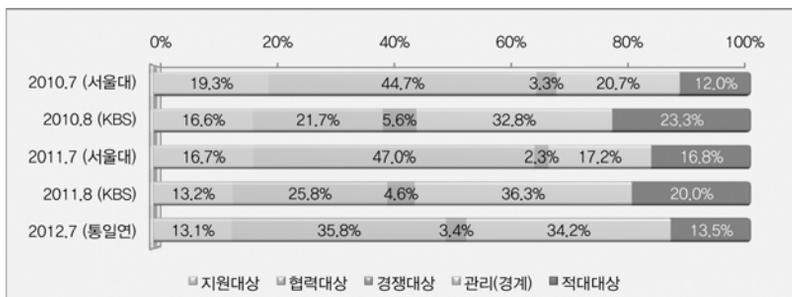
(4)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0년, 2011년),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년, 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의 경우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2010년 44.7%(2010년), 2011년 47.0%로 상

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KBS 남북협력기획단 조사의 경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2010년 32.8%, 2011년 36.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 조사의 경우 ‘협력대상’ 또는 ‘경계대상’이라는 단극화된 인식이 보다 지배적 결과라면, 이번 조사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협력대상’(35.8%)과 ‘관리대상’(34.2%)이라는 양극화된 인식의 관점이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관리대상	적대대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07)	19.3%	44.7%	3.3%	20.7% (경계대상)	12.0%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0.08)	16.6%	21.7%	5.6%	32.8% (경계대상)	23.3%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07)	16.7%	47.0%	2.3%	17.2% (경계대상)	16.8%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1.08)	13.2%	25.8%	4.6%	36.3% (경계대상)	20.0%
통일연구원 국민인식조사 (2012.07)	13.1%	35.8%	3.4%	34.2%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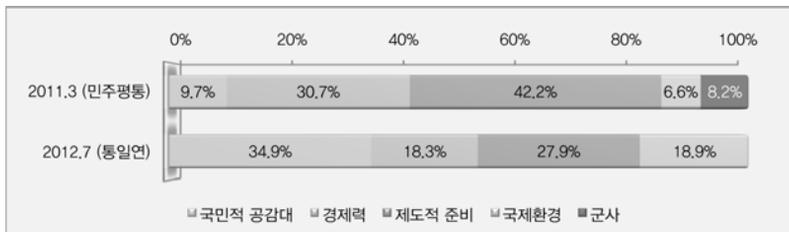
■ 그림 IV-16 ■ 북한에 대한 인식

(5)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 문항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2011년 1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조사의 경우 ‘제도적 준비’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 역량’이 30.7%로 나타난 반면, 이번 조사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라는 응답이 34.9%, 다음으로 ‘제도적 준비’라는 응답이 2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과거에는 ‘제도적 준비’와 ‘경제적 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이번 조사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19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

	국민적 공감대	경제적 역량	제도적 준비	국제적 환경조성	군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차 (2011.03)	9.7%	30.7%	42.2%	6.6%	8.2%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34.9%	18.3%	27.9%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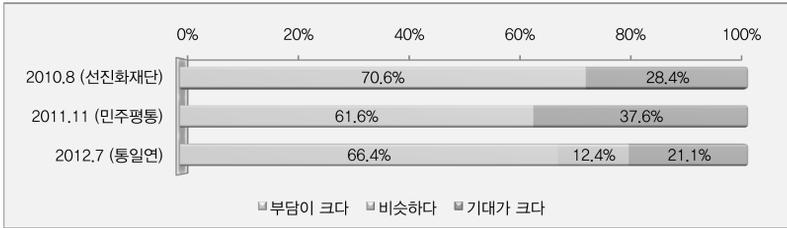
■ 그림 IV-17 ■ 남한의 통일준비 항목 공감 정도

(6)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문항은 한반도 선진화재단(201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1년 3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2010년 70.6%, 2011년 61.6%, 2012년 66.4%로 ‘기대가 크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존 선행연구 조사 자료의 경우 4점 척도로 질문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척도 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4점 척도와 5점 척도로 질문을 했을 때 ‘부담이 크다’는 응답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기대가 크다’는 응답은 오히려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기대감 보다는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태도가 보다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V-20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부담이 조금 더 크다	비슷하다	기대(이익)가 조금 더 크다	기대(이익)가 훨씬 더 크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2010.08)	39.3%	22.3%		11.5%	26.1%
	70.6%			2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차 (2011.11)	51.6%	19.0%		16.8%	11.6%
	61.6%			37.6%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38.6%	27.9%	12.4%	11.8%	9.3%
	66.4%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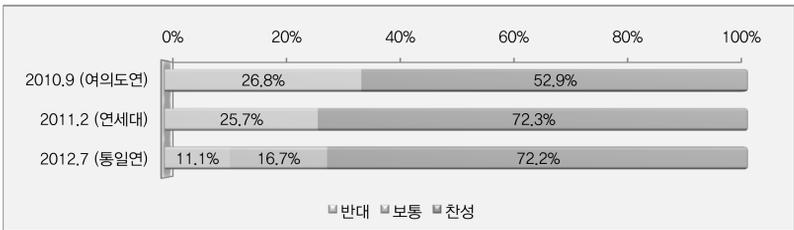
■ 그림 IV-18 ■ 통일부담 대비 통일기대

(7)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문항은 여의도연구소(2010년),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은 2010년 52.9%, 2011년 72.3%, 2012년 72.2%로 ‘반대’라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존 선행연구 조사 자료의 경우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로 4점 척도로 질문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재원이라는 용어로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용어와 척도 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록 용어상에 차이는 있지만 유사문항으로 볼 수 있으며 2011년 결과와 2012년 결과를 보면 4점 척도와 5점 척도로 질문을 했을 때 ‘찬성’이라는 응답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부터 통일재원(통일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IV-21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여의도연구소 (2010.09)	26.8%			52.9%	
연세대 통일학연구소 (2011.02)	6.8%	18.9%		46.5%	25.8%
	25.7%			72.3%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4.5%	6.6%	16.7%	45.4%	26.8%
	11.1%			72.2%	



■ 그림 IV-19 통일이전 대비 통일이후 통일비용 지출 비중

(8)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의 선행연구 비교분석을 위한 유사문항은 여의도연구소(2010년), 연세대 통일학연구소(2011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0년(59.3%)과 2011년(51.1%)에는 ‘기금 조성’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적립’(51.6%)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금 또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예산적립	세금	채권 발행	국민성금	해외 자본 유치
여의도연구소 (2010.09)	59.3% (기금)	23.8% (부가가치세)			
연세대 통일학연구소 (2011.02)	51.1% (기금)	10.8%	9.8%	6.7%	6.2%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51.6%	15.0%	7.6%	13.2%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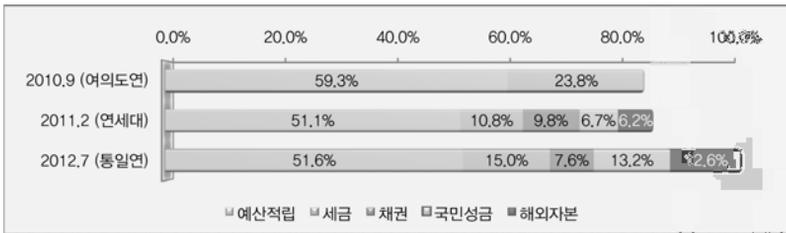


그림 IV-20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 방안

나. 통일연구원 조사 문항 분석

(1)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를 조사한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회전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리맥스를 이용하였다.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64.95%가 설명되고 있으며, 3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요인은 ‘남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과 ‘남한의 주식 저평가’로, 두 번째 요인은 ‘민족 정체성 및 자존심 문제’와 ‘남북 간 교통단절’,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로 세 번째 요인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분단비용 공감 정도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3 분단비용 항목별 공감 정도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문3-4. 북한의 국가 신인도 하락	.848	.178	.104
문3-3. 북한의 주식 저평가	.841	.075	.175
문3-6. 민족 정체성 및 자존심 문제	.087	.827	.106
문3-5. 남북 간 교통단절	.291	.630	-.048
문3-7.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66	.552	.541
문3-1. 북한의 안보위협	.157	-.138	.841
문3-2.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192	.213	.629
고유값	1.608	1.488	1.450
설명분산	22.976	21.254	20.719
누적분산	22.976	44.230	64.949
문항수	2	3	2

(2)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의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남북 주민 간 경제격차’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남북 주민 간 가치관 차이’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일반 국민은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보다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민족통합 과정의 장애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 장애요인으로는 크게 경제적인 부분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2011년 2월 외국에 살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협의회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남북 주민 간 가치관 차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남북주민 간 신뢰부족	남북주민 간 경제격차	남북주민 간 가치관 차이	북한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적응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2011.02)			38.6%	
통일연구원 대학생조사 (2012.07)	14.2%	42.6%	33.8%	9.4%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15.0%	33.9%	39.4%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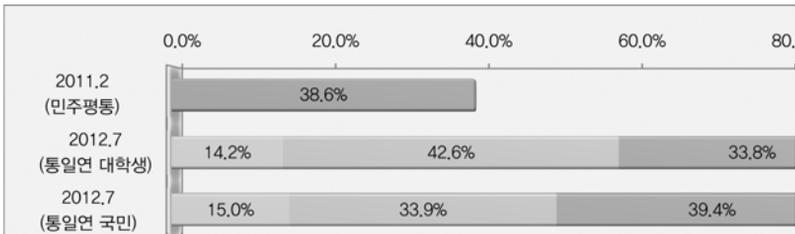


그림 IV-21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장애요인

(3)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과 과정에 반영’(27.3%),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19.4%), ‘영화나 드

라마의 소재로 다룸'(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현재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정확한 형태의 정보 공개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11년 1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차 조사에서 국민의 통일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7%가 대중매체 홍보를 30.4%가 통일교육 강화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 정확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 공개와 미디어 활용 그리고 교육 강화 등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통일한국의 미래상 홍보방식

	교과 과정에 반영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통일 가상 체험관 활용	기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차 (2011.11)	30.4% (통일교육 강화)	31.7% (대중매체 홍보)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27.3%	14.0%	39.1%	19.4%	0.3%

(4)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일부담과 통일기대 중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항목을 독립변수로,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일부담이 크다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라는 응답에 54.5%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반면, 20.3%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한편, 기대가 크다는 응답은 찬성이 85.6%, 반대는 2.5%로 나타났다. 즉, 통

일기대가 클수록 통일비용에 대해 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통일부담과 통일기대 중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따라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73.17,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찬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6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반대	보통	찬성	전체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부담이 크다	129	161	347	637
		20.3%	25.3%	54.5%	100.0%
	비슷하다	11	34	76	121
		9.1%	28.1%	62.8%	100.0%
	기대가 크다	5	24	173	202
		2.5%	11.9%	85.6%	100.0%
전체	145	219	596	960	
	15.1%	22.8%	62.1%	100.0%	

$\chi^2 = 73.17$ (df=4,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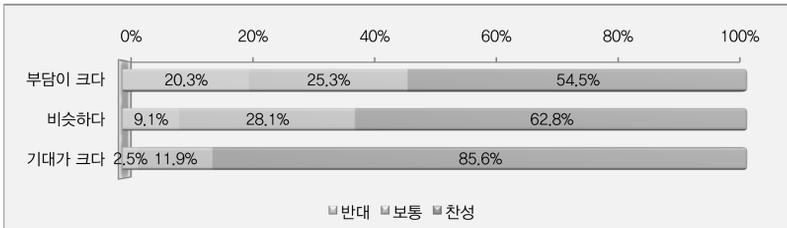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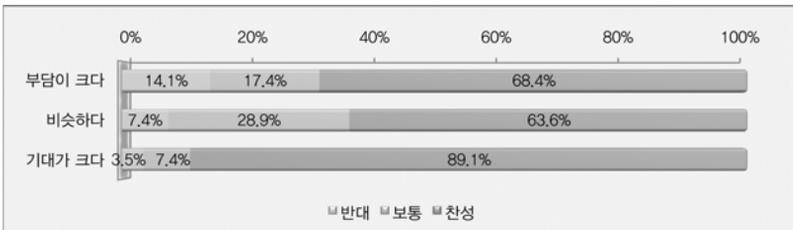


그림 IV-22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5)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 표 IV-27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반대	보통	찬성	전체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012.07)	부담이 크다	90	111	436	637
		14.1%	17.4%	68.4%	100.0%
	비슷하다	9	35	77	121
		7.4%	28.9%	63.6%	100.0%
	기대가 크다	7	15	180	202
		3.5%	7.4%	89.1%	100.0%
	전체	106	161	693	960
		11.0%	16.8%	72.2%	100.0%
$\chi^2 = 49.24$ (df = 4, p = .000)					



■ 그림 IV-23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일부담과 통일기대 중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항목을 독립변수로,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의견을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일부담이 크다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응답에 68.4%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반면, 14.1%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한편, 기대가 크다는 응답은 찬성이 89.1%,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통일기대가 클수록 통일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찬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부담과 통일기대 중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따라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후속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재원 마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49.24,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V. 정책적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그리고 두 의식조사 간 비교분석에서 파악된 일반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개진된 다양한 견해를 논리적 연결고리로 활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층적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발견한 주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일의지와 통일재원이라는 양대 주제로 나누어 국민의식조사 및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 추진관련 함의를 도출하여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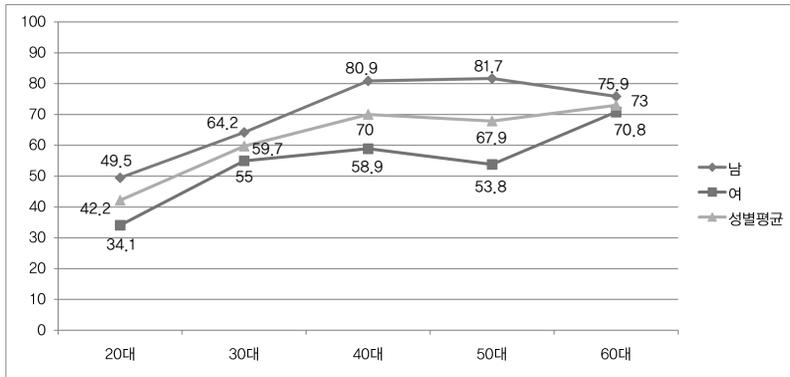
1. 국민의식조사 주요내용

국민의식조사는 실질적인 통일의지 관련 방향성을 파악하고 통일재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과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국민의식조사와 최근 여론조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첫째, 일반 국민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립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표명한 국민의 비중이 63.1%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일반 국민에서 균질하게 형성되고 못하고 있으며 세대별, 성별로 뚜렷

한 균열(Cleavage)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1은 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응답의 백분율이다. 기준선은 전체 평균인 63%이다. 그림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점은 여성과 남성의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이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현저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63%포인트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비율이 34.1%에 불과하다. 또한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남녀 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 30대의 격차는 14.2%에 불과하지만 50대에 이르러서는 27.9%까지 벌어진다.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낮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진다는 점은 중대한 정책적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20대와 30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20대와 30대 평균은 모두 전체 평균 63%포인트 보다 밑에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42.2%에 불과하다. 한편 40대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의 증가 비율보다 현저하게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40대가 소위 486세대의 참여지향적 특성을 다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라기보다는 현재의 20대가 확장 시절 겪었던 IMF 사태와 취업난 등 사회적 요인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V-1 ▮ 연령별 · 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

둘째,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기대는 ‘안보위협 해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문항 <문3>과 <문4>의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1.8%가 가장 큰 분단비용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을, 응답자의 37.1%가 가장 큰 통일기대로 ‘안보위협 해소’를 꼽았다. 다만 다른 통일기대에 대해 국민과 대학생 집단의 응답은 다소 편차를 보였다.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국제적 위상 향상’이 그 뒤를 이은 반면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등의 분단이재민 문제 해결’과 ‘경제적 기회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특이점은 ‘분단스트레스 해소’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한 답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통일기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항인 <문8> ‘통일한국 10년 후 미래상’을 보면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국가’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한 반면,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세계 경제 주도국가’를 우선적 가치로 보았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국민의식조사에서는 ‘남북 간 가치관 차이’(39.4%), ‘남북 간 경제격차’(33.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남북 간 경제격차’(43.4%)를 가장 큰 부담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남북 간 가치관 차이’(33%)가 그 뒤를 이었다.

요컨대,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해 국민의식조사에의 우선순위는 안보, 민족,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인데 반해, 대학생 설문조사의 경우 안보와 경제가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지적한 세대 간 균열과 일관된 결과이며 정책대상 집단에 따른 차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젊은 층의 경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더욱 이끌리는 경향이 존재한다.

셋째, 국민의식조사에서는 62.1%가 ‘통일비용이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72.2%가 미래를 위한 통일재원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51.6%가 ‘예산적립’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시각은 국민적 과제로서 통일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통일재원은 통일이 되기 전 북한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60.2%). 그러나 다른 문항에서 남한의 통일준비는 대체로 미비한 상황이며 그 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제도적 준비’는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의 경우도 통일재원의 준비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일초기 조기안정 비용’도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홍보가 추진되었는데, 국민의 통일재원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그러한 홍보효과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적극적인 통일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수단은 예산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신뢰는 그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식조사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

겠다.

넷째, 국민이 느끼는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제도적 준비’에 대한 기대 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홍보수단은 통일 관련 ‘정보의 공개’(39.1%)와 ‘교과 과정에 반영’(27.3%)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세대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대학생 집단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34.7)로 다루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섯째, 대학생 설문조사 과정에서 실험집단 I로 구별된 북한 및 통일관련 과목 수강생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8.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민의식조사의 세대 중 가장 공감대가 높은 ‘60대 이상 남자’의 75.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의식조사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던 성별 격차가 실험집단 I에서는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대학생 집단은 앞으로 통일 시대의 주축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 여론을 주도하게 될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그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나 공론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론조사는 비교적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유용한 기법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으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국민의식조사에서 수차례 제기되었던 20대와 여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고정된 설문문항을 이용한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호트 분석은 종단분석의 일종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동종집단이 나타내는 시간적 변모양태를 추적하는 조사방법이다. 코호트란 동일한 출발점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2000년 대학생 집단

표본 500명, 2005년 대학생 500명, 2010년 대학생 500명의 형태로 통일 의식을 조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시간적 변모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조사가 시행되더라도 불구하고 그 주제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책대상의 현상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코호트 분석이 요구된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내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객관식 설문조사의 문항을 주관식으로 변환하여 사전에 전달한 후, 전문가들이 각 항목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의견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여 본 연구진과 집중적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의 양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전반적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의지 결집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의지는 미흡하다. 이는 통일방식과 통일수준 등 통일관련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통일방식 및 수준에 대한 정부, 정치사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맞춰서 통일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통일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통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안보위협이 되지 않으며 지역평화뿐만 아니라 실리적 차원의 이익이

보장되고 촉진될 있다는 논리개발 및 외교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가. 통일의지 결집 관련 전문가 의견

통일의지 결집과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 질문은 통일의 필요성을 필두로 해서 통일방식 및 수준에 대한 의견과 통일 가능 시기와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피력한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은 국민의식조사(공감 63.1%)와 대학생 설문조사(공감 52.2%)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문가들도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통일기대와 통일부담 등의 실리적 관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나 민족차원의 당위성 및 역사적 필연성도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통일에 대한 기대와 부담의 관점은 국제 및 안보, 남한경제, 남한사회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 및 안보부문에서 북한문제는 남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 때문에 통일이슈 자체가 바로 국제적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 본 통일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주성이 향상될 수 있는 우선적 기대사안으로 꼽았다. 즉, 통일이 되면 북한문제로 인해 주변국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다 향상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남한 경제부문에서 그동안 분단 상황에 의한 부작용이 표출될 경우에는 해외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일정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호전적 행위에 의한 안보리스크가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또한 남북 간 교통단절로 인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남한과 북한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은 북한 지역의 경제회생 및 한반도 전체의 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남한 사회부문에서도 통일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 상호대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소됨으로써 국가 재정 차원에서 복지부문에 할당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남남갈등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종결되어 국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 안정 향상과 전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민족의 통합은 당위적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통일프로세스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필연성의 지적은 소수의견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통일편익은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무한하다는 점과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서 세계적 모범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남한의 주도에 의한 통일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전문가들은 통일부담이 존재하지만 통일기대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통일한국은 북한의 민주주의 구현, 인권신장 등 역사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대가치가 매우 크다는 지적은 한민족의 통합된 능력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크다.

둘째, 통일의지 결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인가, 통일은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잡아야 하는가 등의 국민적 공감대 관련 사안이다. 통일준비시기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어떤 대상

으로 보는가는 가장 중요하다. 남북 간 역할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민족 간 전쟁의 역사를 가진 갈등대상에서, 냉전기 체제경쟁의 경쟁대상으로, 다시 탈냉전기 협력대상으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역할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민족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민족의 특수성 때문에 세 가지 역할관계가 혼재하는 상황이며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벗어나서 북한을 단순히 제3국처럼 경제적 빈곤국에 대한 지원대상, 지역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모두 북한을 협력대상 또는 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정도(34-35%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북한을 협력의 대상이자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협력의 대상이지만 한반도 지역에서 두 국가 간 갈등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관리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즉, 남북관계는 민족의 특수성과 국제관계라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남북관계에 대한 상이한 시각은 통일의 방식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투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일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높은 수준의 통일방식으로써 독일식의 통일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며 독일식 통일은 사회복지 및 재정의 완전한 통합으로 요약된다. 낮은 수준의 통일방식은 국가연합 형식의 잠정적 통일과정을 거쳐서 1국가 1체제로 진행하는 형식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스펙트럼의 중간적 또는 혼합적 형태의 통일방식이 다양한 시간적 고려와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독일식 통일은 남한에게 과도한 경제적 비용 및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연합은 엄밀한 의미에

서는 통일국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경우에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단기간에 완전한 의미에서 동등한 사회복지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일이 실현될 경우에 북한지역의 경제 및 소득수준을 남한지역의 일정비율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통일 이후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향상시켜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바람직한 통일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즉, 국민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과도한 통일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을 잘 관리해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통일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기 보다는 막대한 이익을 무한하게 제공한다는 보다 희망적인 명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통일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통일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통일 가능 시기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남북간 적대관계가 첨예화되면서 냉전적 사고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1989년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과 함께 남북교류도 급진전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2008년 두 번의 정상회담 및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민간교류도 상당한 정도 진척되었다. 또한 최근의 남북교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성장하고 있으며 남북 간 이해의 폭은 그 이전보다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이며 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통일에 필요한 준비기간이라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10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법·제도적, 경제적 준비기간에만 1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당장 통일여건이 조성되어도 통일은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면 남한과 북한 각각 서로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신세대가 통일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주장의 저변에는 점진적으로 통일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일의 실현에는 2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즉, 서로에 대한 이해증진 이후에 자연스런 통합의 과정으로서 남북 간 활발한 교류가 실현된 이후 20년이 지나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 가능 시기를 30년 이상에야 가능하다고 본 국민의식조사(38.0%)와 대학생 설문조사(45.4%), 그리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으로 향후 30년 전후를 통일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았다. 통일을 장기과제로 보는 이유는 먼저 핵문제 해결과정이 장기화 될 것이며 현 북한정권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낮고 북한 위기 시에 중국이 개입하여 붕괴를 막을 것이라는 점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소수의견으로 북한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도 미국과 중국의 공동관리 단계를 거쳐 남한 혹은 중국에 위탁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적 과정을 거쳐 완전한 통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이 장기과제라면 통일 준비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것이다. 통일 준비기간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소득격차, 남한의 경제적 역량, 통일 후 남북 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소득격차에 대한 의견은 독일통일 방식의 높은 수준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간 소득격차가 커지면 그 만큼 통일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오히려 소득격차가 작은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서는 통일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북한경제가 계속 정체된다면 남북통일은 더욱 요원한 사안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한 국민의 통일비용에 대한 지불의사가 중요하다.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지불의사가 커져야만 통일이 가능하며 따라서 북한경제의 장기간 정체는 통일을 위한 악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통일 방식의 높은 수준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통일을 현실화한다면 소득격차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통일의 실현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일방식이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 준비과정에서 남북교류의 증진과 함께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남북 간 소득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장기화될수록 소득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남북교류는 통일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 경제력의 격차가 민족통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남북 주민 간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의 주된 원인으로 앞서 지적된 경제력의 격차이다. 가치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세대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 간 경제력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통일 준비기간 및 통일 이후 북한 경제재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통일 준비기간에서는 남북교류를 통한 북한의 경제

재건이 중요하며 통일 이후에도 북한지역의 생산성이 남한지역의 생산성에 못지않게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을 노동과 자원의 공급지로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북한지역도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구사가 중요하며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고급인력이 남한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는 사회적 조치 또한 중요할 것이다.

나. 통일재원 마련 관련 전문가 의견

통일재원 마련은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3가지 요소가 결합된다. 분단비용의 해소와 미래통일편익의 현재적 인식은 통일 기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은 통일기대의 다른 두 측면이다. 이는 통일재원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사고를 종합해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로 삼고자 한다.

먼저, 통일편익의 한 측면인 분단비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분단비용이 상황적, 유동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분단비용의 주요 요인이며 다른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라면 분단비용이 상승하고 남북관계가 협력적 관계라면 분단비용은 하락한다. 즉, 남북관계의 악화는 바로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그와 연동하여 경제측면에서 안보리스크가 상승하며 남남갈등이 커지는 부수효과를 초래한다.

기타의견에서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등의 인권문제, 그리고 분단으로 인하여 남한이 지리적으로 섬과 같아지는 지리적 폐쇄 상황을 지적하였다. 후자의 경우 남한의 정서 및 문화적 교류가 막히고 대륙과

직접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고의 폭이 협소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중요한 분단비용으로 지적되었다.

분단비용에 대한 추가의견으로서 통일이 남북관계에서 꼭 종착점이 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며 통일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통일비용은 통일편익의 상대적 개념으로 결국은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본다면 통일비용은 통일편익의 상대적 가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통일 후 처음 10년까지 크고 그 이후에는 통일편익이 클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독일사례에서 통일초반에 무리한 통일 후유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통일편익을 거론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통일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한국 자체를 보면 편익이 훨씬 크지만 남한주민의 입장에서는 통일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어떤 통일방식과 수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문가들은 통일편익이 대체적으로 크다고 본다. 문제는 통일부담은 현재의 세대가 아니라 장기과제로 본다면 미래세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한 직접적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양분된다. 사전에 통일재원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에서는 현재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으며 어느 국가도 보증을 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협력기금이 특정 시점에서 북한의 개혁과정 중에 필요한 재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사전통일재원 적립을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돈을 비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통일시점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강조되었고 또한 정치적 목적의식 하에서 경제적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재원을 마련한다면 북한이 몰락하기를 기다리겠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도 언급되었다.

추가 의견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통일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협력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다자협력 상황에서도 기금이 사용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시작되어 북한을 경유하여 극동으로 이어지는 철도사업에도 기금이 사용된다면 통일 환경 조성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기타 항목으로 통일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통일이전 30%, 통일이후 70% 비중으로 통일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찬성하였으나 그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은 직관적 의견이었다. 즉, 전문가들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에 합의를 보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통일정책 추진관련 고려사항

본 연구는 통일이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외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의 정책과제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식조사 및 대학생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등 다층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개방형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항목으로 국제적 환경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를 통일과 관련된 국제환경의 문제를 분

석하고 향후 통일정책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즉,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부재하며 국제공조 하에 구체적 통일준비도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변수에 대한 고려 및 주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강화를 공통적으로 주문하였다.

먼저 중국변수를 보면,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한중관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보다 긴밀한 한중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경우에 중국이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변수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보편적 가치의 수용과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순망치한의 북-중 관계는 변화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통일관점에서 중국변수가 부정적 요인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 요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한편 북핵문제가 가지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양면적 측면에 대한 의견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역으로 통일과정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북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된다면 주변국들은 통일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통일의 국제적 환경요인을 고려하면서 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론적 차원에서 국민의식조사에서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통일준비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구체적인 통일정책과 그에 적절한 통일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만 현실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지 결집과 관련해서는 첫째, 정부와 전문가 집단 및 국민 간의 다양한 경로의 소통을 강화해서 통일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구성을 감안해서 통일 논의는 분단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과거 지향적 통일 보다는 통일의 혜택을 향유하는 미래지향적 통일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당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통일논의가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다양한 민간차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통일의 바람직한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통일비전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대별·성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성별 차원에서 보면 여성이, 세대 차원에서 보면 젊은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덜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 및 젊은 세대에 대한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서 통일관련 영화 및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 및 제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안의 근거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대학생 실험집단-I에서 통일관련 정보에 대한 노출이 태도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의식의 확산을 위해 통일이 한민족의 역사적 발전 경로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남한이 먼저 성취한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한민족의 우수한 능력의 귀결점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발전 관점에 의거한 통일의 필연성에 의해 통일은 우리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첫째, 우리가 현재 유·무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의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분단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통일재원 마련은 통일비용의 규모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바 통일비용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력 한도 내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당연하지만 부각되지 못한 사안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통일을 위한 비용의 지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경제발전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서도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또한 통일이 달성될 경우 파생될 다양한 유·무형의 통일편익은 한민족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한 고려사항과 함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외교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지가 결집된 상황에서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일의지가 확고하다면 주변국가로부터 통일 한반도의 도래가 역사적 필연이라

는 점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대로 통일정책 추진의 객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체계적 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표준화된 설문지에 의거한 정기조사와 사안별 수시조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통일관련 의식조사에서 각 기관마다 상이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시계열 분석을 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미 지적한 바대로 통일의식 취약계층에 대한 코호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적 의식의 객관적 측정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산적인 통일정책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주기적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은 통일관련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통일관련 인식의 차이를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통일에 대한 정기·수시 국민의식조사, 통일의식 취약계층에 대한 코호트 조사, 전문가 집단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통일의지 결집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체계적 의식조사와 그 결과의 종합적 제시는 통일문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의지를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0 국민 통일의식 조사』. 서울: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0.
-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1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서울: KBS 남북협력기획단, 2011.
- 동아시아연구원. “한국전쟁 발발 60주년-변화하는 한국민의 대북인식과 통일 인식.” 『EAI 여론브리핑 제84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년 1차 국민통일여론조사 보고서』.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년 2차 국민통일여론조사 보고서』.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년 3차 국민통일여론조사 보고서』.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
- 연세대 통일학 연구소. 『통일인식 및 통일재원 관련 경제계 여론조사』. 서울: 연세대 통일학연구소, 2011.

2. 논문

- 여의도 연구소.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10년 9월 30일 토론회 자료집』. 서울: 여의도연구소, 2010.
- 현대경제연구원. “포스트 김정일 체제하의 남북관계와 통일의식.” 『2012년 남북관계 대국민 여론조사』.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2.

3. 기타자료

- 통일부. “2012년 업무계획(안).” 2012.1.5.
- 통일부. “통일문제 및 대북문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통일부 보도자료, 2011.3.31.

대통령 연설.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0.8.15. <<http://www.president.go.kr/kr/common>>.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통일과 선진화 국민의식 조사 발표』. 통일과 선진화 국민의식 조사 및 2010 국가 선진화지수 발표 심포지엄, 2010.9.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 2010.9.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통일의식과 통일준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 2011.9.21.



부 록

부록 I.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통일연구원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면접원 ID	응답자 ID																																																				
안녕하세요? 전문학술연구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는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통일의 기대와 부담을 측정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00명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00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14일 7월 15일																																																							
SQ1. 전화번호	-	SQ2. 성 별	남 / 여																																																				
SQ3. 지역 ID	(ID :)	※서울시 또는 경기도 응답자의 경우 서울시	구경기도 (시군)																																																				
SQ4. 나이	만 () 세	SQ5. 학 력	<input type="checkbox"/> 중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이상 <input type="checkbox"/> 무응답																																																				
SQ6. 가구소득	<input type="checkbox"/> 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299만원 <input type="checkbox"/> 300-399만원 <input type="checkbox"/> 400-499만원 <input type="checkbox"/> 500-599만원 <input type="checkbox"/> 600-699만원 <input type="checkbox"/> 700-799만원 <input type="checkbox"/> 800-899만원 <input type="checkbox"/> 9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무응답																																																						
SQ7. 직 업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화이트칼라 <input type="checkbox"/> 블루칼라 <input type="checkbox"/> 가정주부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전문직/공무원 <input type="checkbox"/> 무직 <input type="checkbox"/> 무응답																																																						
SQ8. 종교/교향	<input type="checkbox"/> 서술 <input type="checkbox"/> 안친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대전/충청 <input type="checkbox"/> 광주/전라 <input type="checkbox"/> 대구/경북 <input type="checkbox"/> 부산/울산/경남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이복 <input type="checkbox"/> 해외 <input type="checkbox"/> 무응답/무응답																																																						
SQ9. 계 층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중산층 <input type="checkbox"/> 고소득층 <input type="checkbox"/> 무응답																																																						
<p>문1.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대체로 공감한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공감한다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2.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10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20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30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3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3.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 중 무엇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핵실험 및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보 위협 <input type="checkbox"/> 분단으로 인한 한국 주권의 저평가 <input type="checkbox"/> 남북 교통의 단절 <input type="checkbox"/> 분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감소 <input type="checkbox"/> 이념가족과 남북자 문제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4. 다음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귀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전쟁방지와 안보불안의 해소 <input type="checkbox"/> 통일 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 <input type="checkbox"/> 이산가족, 탈북자, 남북자 문제 해결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기회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민족 동질성 회복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5. 귀하는 다음 중 북한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협력대상 <input type="checkbox"/> 경쟁대상 <input type="checkbox"/> 관리대상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input type="checkbox"/> 남북의 경제적 역량 <input type="checkbox"/> 정부의 제도적 통일 준비 <input type="checkbox"/> 통일에 대해 주요적인 국제환경 조성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7. 귀하는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원상과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남북한 주민 간 신뢰부족 <input type="checkbox"/> 남북한 주민 간 경제격차 <input type="checkbox"/> 남북한 주민 간 가치관 차이 <input type="checkbox"/> 북한 주민들의 시민사회 부숙음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8. 통일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통일 후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동북아와 세계평화 주도 국가 <input type="checkbox"/> G8 수준의 세계 경제 주도 국가 <input type="checkbox"/>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 주도 국가 <input type="checkbox"/> 친환자 발전의 녹색 한반도 국가 <input type="checkbox"/> 복지과 인권을 향유하는 국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9. 귀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교과 과정에 반영 <input type="checkbox"/>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다룸 <input type="checkbox"/>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통일 가상 체험단 활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10.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일로 인한 부담과 통일로 인한 기대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부담이 훨씬 더 크다 <input type="checkbox"/> 부담이 조금 더 크다 <input type="checkbox"/> 비슷하다 <input type="checkbox"/> 기대가 조금 더 크다 <input type="checkbox"/> 기대가 훨씬 더 크다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11. 우리나라 정부가 통일을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통일 전, 통일 이후 지출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 <input type="checkbox"/> 통일 이전에 매우 많이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통일 이전에 어느 정도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중간이다 <input type="checkbox"/>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통일 이후에 매우 많이 지출 비중을 두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 우리가 통일이 되는 과정은 통일준비기간, 통일 통일이후 통합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 문항마다 반드시 선택보기를 꼭 읽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 분</td> <td colspan="5">선택보기</td> <td rowspan="2">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td> </tr> <tr> <td>매우 반대</td> <td>다소 반대</td> <td>보통</td> <td>다소 찬성</td> <td>매우 찬성</td> </tr> <tr> <td>문12.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한 뒤 통일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r> <td>문13. 우선 통일하고 경제격차를 줄인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p>■ 다음은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각 문항마다 반드시 선택보기를 꼭 읽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 분</td> <td colspan="5">선택보기</td> <td rowspan="2">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td> </tr> <tr> <td>매우 반대</td> <td>다소 반대</td> <td>보통</td> <td>다소 찬성</td> <td>매우 찬성</td> </tr> <tr> <td>문14. 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r> <td>문15. 후속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일제 마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p>문16. 바람직한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p> <p> <input type="checkbox"/> 예산 일정부분 적립 <input type="checkbox"/> 세금 <input type="checkbox"/> 채권 발행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해외 자본 유치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p>문17.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p> <p> <input type="checkbox"/> 매우 보수적 <input type="checkbox"/> 보수적인편 <input type="checkbox"/> 중도 <input type="checkbox"/> 진보적인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진보적 <input type="checkbox"/>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p>				구 분	선택보기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문12.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한 뒤 통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3. 우선 통일하고 경제격차를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구 분	선택보기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문14. 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5. 후속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일제 마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구 분	선택보기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문12.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한 뒤 통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3. 우선 통일하고 경제격차를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구 분	선택보기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문14. 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5. 후속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일제 마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위쪽에 있는 인구통계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록 Ⅱ. 대학생 설문조사 설문지

소속대학	
학과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대한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제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목적으로 특별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통일문제에 대한 귀하의 평소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통일의 기대와 부담을 측정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처리 되어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2012. 5.

■ 주관 및 조사기관 : 통일연구원

주소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담당 : 김규륜 선임연구위원(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김형기 프로젝트 원구위원,
황수환 프로젝트 연구원(Tel. 02-901-2631)

☞ 응답 시 다음 사항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V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1. 통일의 기대와 부담

문1.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②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공감한다 ⑤ 매우 공감한다

문2.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년 이내 ② 20년 이내 ③ 30년 이내
④ 30년 이상

문3. 다음은 현재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 예상 항목입니다. 이점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1) 핵실험 및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안보위협	①	②	③	④	⑤
(2) 국제무대에서의 소모적 남북경쟁	①	②	③	④	⑤
(3) 분단으로 인한 한국 주식 저평가	①	②	③	④	⑤
(4) 국가 신인도 하락	①	②	③	④	⑤
(5) 육로를 통한 남북 교통 단절	①	②	③	④	⑤
(6) 분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존심 감퇴	①	②	③	④	⑤
(7)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1) 전쟁방지와 안보불안의 해소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향상	①	②	③	④	⑤
(3) 이산가족, 탈북자, 납북자 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기회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북한 지역의 자유왕래	①	②	③	④	⑤
(6)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	①	②	③	④	⑤
(7)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의 해소	①	②	③	④	⑤

문10.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일로 인한 부담과 통일로 인한 기대 중 어느 것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① 부담이 훨씬 더 크다 ② 부담이 조금 더 크다 ③ 비슷하다
 ④ 기대가 조금 더 크다 ⑤ 기대가 훨씬 더 크다

문11.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일을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통일 전, 통일 이후 지출 비중을 어느 정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통일 전()% + 통일 후()% = 100%

문12. 우리가 통일이 되는 과정은 통일준비기간, 통일, 통일이후 통합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한 뒤 통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선 통일하고 경제격차를 줄인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다음은 통일의 기대와 부담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1) 통일비용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투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후속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재원 마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바람직한 통일 자원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 ① 예산 일정부분 적립 ② 세금 ③ 채권 발행 ④ 국민 성금 ⑤ 해외 자본 유치

2. 인구 통계 질문

- SQ1. 귀하의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는 어떻게 됩니까?(2차 조사용)
예) XXXX-5103
(XXXX) - ()
-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서울 ②인천/경기 ③강원 ④대전/충청 ⑤광주/전라
⑥대구/경북 ⑦부산/울산/경남 ⑧제주 ⑨이북/기타
- SQ4.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 SQ5.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 SQ6. 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⑥ 600~700만원 미만
⑦ 700~800만원 미만 ⑧ 800~900만원 미만 ⑨ 900만원 이상
- SQ7.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①농림어업 ②자영업 ③화이트칼라 ④블루칼라 ⑤가정주부 ⑥학생
⑦전문직/공무원 ⑧무직
- SQ8. 귀하의 조부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다를 경우 조부 고향을 택해주시십시오)
① 서울/수도권 ② 충청권 ③ 영남권 ④ 강원권 ⑤ 전라/호남권
⑥ 이북 ⑦ 기타
- SQ9. 귀택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 ② 중산층 ③ 고소득층
- SQ10.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매우 보수적 ② 보수적인 편 ③ 중도
④ 진보적인 편 ⑤ 매우 진보적
- SQ11. 귀하께서 즐겨보는 신문은 무엇입니까?
① 조선일보 ② 중앙일보 ③ 동아일보 ④ 서울경제/한국경제/매일경제
⑤ 오마이뉴스 ⑥ 프레시안 ⑦ 데일리안 ⑧ 이데일리
⑨ 뉴데일리 ⑩ 한겨레 ⑪ 한국일보 ⑫ 세계일보/국민일보
⑬ 무가지 (메트로, 포커스 등) ⑭ 스포츠신문 ⑮ 기타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항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근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3,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문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최진욱 편저	6,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통일연구원

www.kinu.or.kr

